조선 근로자들은 단결하라 !

근로자

1 호 1 월 1 일

평양 근로자사 발행 1958

근로자

조선 근로자들은 단결하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관 잡지

제1호 (146)

1958년1월 1일

목 차

—조선 로동당 투쟁사 연구 자료—

—끈 술 따 찌 야—

—서적 해제 및 평론—

우리 나라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 사업에서 얻은 승리를 더욱 공고히 하며 그를 계속 발전시킬 데 대하여

김 일 성

동무들!

금번 당 중앙 위원회 상무 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각 도에서 농업 협동 조합 열성자 회의를 진행하게 되였습니다.

나는 당 중앙 위원회 상무 위원회의 위임에 의하여 황해남도 농업 협동 조합 열성자 회의에 참가하게 되였습니다.

금번 이 회의에서는 저를 비롯하여 중앙에서 내려 온 지도 그루빠 동무들과 도당 위원회를 비롯한 도의 지도 일'군들이 본 회의에 참가한 농업 협동 조합 열성자 동무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으며 또한 동무들도 역시 우리에게서 많이 배웠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황해남도 내 농업 협동 조합 관리 위원장 및 초급 당 위원장들과 군 간부들은 이번에 1957년도 농산 사업을 총화하고 1958년도 농산 사업 발전 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한자리에 모여 앉아 많은 훌륭한 경험들을 교환하였으며 또한 잘못된 것을 비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

우리는 제때에 자기 사업을 옳게 총화하여 무엇이 잘 되였으며 무엇이 잘못되였는가를 가리며 잘된 것은 살리고 잘못된 것은 시정함으로써 앞으로의 사업에서 가일층의 발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총화를 하지 않고 잘된 것과 잘못된 것을 모르고 지나 간다면 사업에서 새로운 발전을 가져 올 수 없습니다. 우리 당의 힘의 원천의 하나는 바로 이와 같이 과거에 한 일을 대중과 더불어 검토하며 잘된 것을 살리고 잘못된 것을 제때에 시정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첫번째 그루빠의 회의를 진행한 경험을 살려서 나머지 세 개 그루빠의 회의도 성과 있게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총화 사업은 필요할 때마다 늘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회의에서의 도당 위원장 동무의 보고와 여러 동무들의 토론에 의하면 황해남도 내 전체 농업 협동 조합원들은 당 중앙 위원회의 정치 로선에 튼튼히 립각하여 당의 경제 정책을 옳게 집행하였습니다. 황해남도 내 전체 농업 협동 조합원들, 근로 농민들과 당, 정권 기관 및 민청, 녀맹 일'군들, 협동 조합 관리 일'군들은 당 중앙 위원회 1956년 12월 전원 회의 결정 실행에 총동원되여 대단한 로력적 열성을 발휘한 결과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선 전 도'적으로 농업 협동 조합에 망라된 총농가 호수가 금년 초의 78%로부터 지금에는 97.2%로 장성되였습니다. 이는 대단한 장성이며 커다란 승리입니다. 이것은 황해남도에서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거의

완성되였으며 황해남도 농촌이 완전히 사회주의적 농촌으로 전변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황해남도 내 농민들은 자기들의 생활 향상과 알곡 증산을 위한 투쟁에서도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황해남도에서는 1956년에 50만 9천 톤의 알곡을 생산하였는데 1957년에는 62만 톤 즉 작년에 비하여 11만 톤의 알곡을 더 생산하였습니다.

이리하여 농민들의 생활 형편은 상당한 정도로 개선 향상되였습니다. 1956년에는 전 도'적으로 조합 매호당에 알곡 1 톤 4백 키로그람과 현금 6천 6백 원이 차례졌는데 금년에는 호당 알곡 1 톤 792 키로그람과 현금 1만 3천 원이 분배되였습니다. 이것은 벌써 황해남도 내 협동 조합원들의 생활 형편이 전반적으로 중농 수준에 거의 도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줍니다. 만약 도에서 예견하고 있는 바와 같이 또 이번 회의에서 많은 동무들이 토론한 바와 같이 1958년도에 호당 2 톤 400 키로그람의 알곡과 3만 3천 원의 현금이 차례지게 된다면 전도' 적으로 농민들의 생활은 부유한 중농의 수준에 거의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황해남도에서는 농촌 경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축산업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전쟁 시기의 혹심한 피해로 말미암아 도내 대다수 농가가 무축 농가로 되였던 것이 오늘에 와서는 전 도'적으로 무축 농가는 기본상 퇴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절대 다수의 농가는 다축 농가로 전환되고 있으며 협동 조합의 공동 가축도 현저하게 장성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더 많은 자급 비료를 생산하며 알곡을 증산하기 위한 조건들도 지어졌습니다.

또한 황해남도에서는 도내 농촌 경리 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천수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이 전 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천 정리와 관개 공사도 광범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금년도에 황해남도 농민들이 달성한 가장 중요한 성과의 하나는 락후한 영농 방법에서 벗어나 선진적인 영농 방법을 도입하기 시작한 고귀한 경험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은 쌀을 몇만 톤 증산한 것보다 더 귀중한 것입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락후한 영농 방법으로써는 농업 증산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선진 영농 방법을 광범히 적용함으로써만 알곡을 비롯하여 농업 생산을 계속 장성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황해남도에서 쟁취한 커다란 성과의 하나는 지난날에 당의 정책을 외곡하여 반혁명 분자들과의 투쟁을 전개하지 않고 농촌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당의 기본 핵심으로 되는 기본 군중을 무시하고 부르죠아 대변자, 반동 계층들에 의거한 반당 종파 분자들을 제때에 폭로하고 반혁명 분자들과의 투쟁을 강화하였으며 농촌의 기본 핵심인 빈농과 중농을 자기 주위에 튼튼히 묶어 세움으로써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용감하게 진행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농민들이 당의 정책을 옳게 집행하여 앞으로 더욱 큰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기초를 닦아 놓았습니다. 황해남도에서 이상과 같은 성과를 쟁취하게 된 것은 도내 전체 당원들과 민청원, 녀맹원들, 전체 근로 대중이 당 중앙 위원회의 주위에 굳게 단결되여 당의 정책을 견결히 집행한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황해남도 내 각급 당 및 정권 기관 지도 일'군들과 전체 농민들과 협동 조합 관리 일'군들, 민청 및 녀맹 일'군들에게 당 중앙 위원회의 이름으로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　　*

동무들!

우리가 지난 기간에 농촌 경리 발전에서 거둔 성과는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욱 큰 성과를 얻기 위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황해남도 당 단체들, 정권 기관들, 근로 단체들과 전체 농업 협동 조합원들 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농촌의 사회주의적 개조에서

달성한 승리를 공고히 하며 그를 계속 발전시킴으로써 농촌에서의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투쟁을 계속 강력히 전개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중요한 과업은 증산 예비를 더욱 광범히 동원하여 알곡 생산을 비롯한 농산물 생산을 계속 증대시키며 농민들 자체의 생활을 더 부유하게 만들고 협동 조합의 경제적 토대를 더 튼튼히 하여 협동 경리의 우월성을 더욱더 증시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조합원들 속에서 사회주의적 사상 교양 사업을 강화하여 매개 농업 협동 조합원들이 사회주의적 개조에서 얻은 성과를 고수하고 자본주의를 다시 복구하려는 일체 반동 분자들과 강력하게 투쟁하도록 함으로써 농촌에서의 사회주의 승리를 한걸음 더 전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농업 생산을 계속 장성시킬 데 관하여

농업 협동 조합들을 더욱 튼튼히 하며 농촌 경리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어떤 사업들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우선 무엇보다도 조선 로동당 제3차 대회 결정에 의거하여 당 중앙 위원회가 제시한 방향 즉 알곡 생산을 계속 증가시키는 사업을 위주로 하면서 동시에 공예 작물 생산과 축산업을 발전시키는 방침을 철저히 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알곡을 증산하기 위하여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알곡 증산을 위하여서는 우리 당이 일관해서 강조하여 온 바와 같이 관개 면적을 확장하며 하천을 정리하는 사업을 전 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관개 및 하천 정리 사업은 한해와 수해를 방지하고 언제든지 안전하고 높은 수확을 보장하는 기본 담보입니다. 옛날부터, 좋은 정치를 하려면 물과 산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관개 공사는 한재를 방지하는 것이요, 하천 정리는 수재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한재와 수재를 방지한다면 농사는 잘 될 것입니다.

관개 면적을 확장하는 사업은 오늘 우리 당앞에 나서는 알곡 증산을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우리는 논 면적을 확장하는 사업을 더욱 강력히 추진시켜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것이요, 잘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에 대하여 더 말하지 않고 이번에는 밭에다가 물을 주는 사업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하려 합니다.

밭 관개에 있어서는 논에보다 물이 적게 들고 많은 면적을 관수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을 대대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한 정보의 논에 주는 물을 가지고 한 20 정보 가량의 밭에다가 물을 줄 수 있다고 봅시다. 이렇게만 된다면 우리들은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는 논보다 밭이 더 많습니다. 이 밭을 다 논으로 풀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원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밭에도 관개 체계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입쌀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만약 논보다도 많은, 16만 정보 이상의 밭을 가지고 있는 황해남도에서 다는 못해도 한 10만 정보 가량의 밭에다 관수를 한다고 하여도 대단한 수확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늘 체험하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는 봄에 가물고 가을에도 가물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화밭, 밀밭, 옥수수밭 등 밭에다 물을 준다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만일 황해남도 일대에 많이 있는 밀밭에 물을 주어 가물을 이겨 냄으로써 정당 3—4 톤의 밀을 수확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논만 늘쿠는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밭에다가도 관개하기 위하여 투쟁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랑물도 리용하고 샘물도, 저수지도 리용하며 우물도 파는 등의 방법으

로 높은 등성이 밭에까지도 관개할 수 있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황해남도에서는 천수답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이 중요합니다.

현재 황해남도에는 논 12만 정보 가운데 3만 3천 정보의 천수답, 수리 불안전답이 있습니다.

도당 단체는 지금 이 천수답, 수리 불안전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를 적극 지지합니다. 천수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큰 관개 공사 뿐만 아니라 농업 협동 조합들이 자체로 보막이, 저수지, 도랑·파기, 양수장들을 설치하는 사업을 광범하게 실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최근 1—2 년 내에 천수답을 완전히 퇴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개 협동 조합의 힘만으로 하기 힘들면 몇 개 협동 조합이 힘을 합해 하고 또 그 조합들의 힘만으로 곤난할 때에는 국가의 방조와 사회적 방조를 받아서 하며 몇 천 정보의 큰 규모의 공사는 국가적으로 하고 몇십 몇백 정보의 것은 조합들 자체의 힘으로 천수답을 퇴치할 수 있습니다.

하천 정리 사업도 중요합니다. 힘들여 농사를 지어 놓고도 수해를 입는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므로 수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천 정리를 광범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과거 일제 통치하에서는 하천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상이 높고 강들이 딴데로 갈라져 한 번만 비가 오면 좋은 논밭들이 류실되군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토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있는 농토를 잘 보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알곡 증산을 위하여 요구되는 것은 여러 동무들이 옳게 토론한 바와 같이 비료 증산입니다. 옛날부터 《좋은 농사'군에게는 나쁜 땅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사를 잘 하는 사람은 농토를 잘 가꾸어서 척박한 땅도 비옥한 땅으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좋은 땅만 요구하고 나쁜 땅은 내버리자고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경지 면적이 제한되고 산간지대가 많은 우리 나라에서는 척박한 땅을 좋은 땅으로 개조하는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비료를 많이 생산하여야 합니다. 비료 없이는 수확을 높일 수 없습니다. 국가에서는 지금 화학 비료 공장을 확대하고 있으며 린 비료, 카리 비료 등을 생산 혹은 수입할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농촌에 대한 화학 비료 공급은 해마다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건설 템포가 빠르다고 해도 해마다 증대되는 화학 비료에 대한 요구를 단꺼번에 충분히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또 화학 비료가 원만히 보장된다고 하여도 역시 퇴비가 많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풀을 베여 썩인다든가 가축을 많이 길러서 퇴비를 받는다든가 니탄을 썩인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퇴비를 증산하여야 하겠습니다.

땅이 넓은 나라에서는 몇 년씩 땅을 묵였다가 다시 경작하는 륜작도 가능하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객토 작업을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떼를 뜬다든가 개바닥, 시궁창 흙들을 판다든가 해서 해마다 객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순환식 륜작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객토 작업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하여 온 일입니다.

다음으로 알곡 증산을 위하여 중요한 것은 선진 영농 방법을 광범히 도입하며 집약적 농법으로 단위당 수확고를 높이는 문제입니다.

우리 나라에는 농토가 적기 때문에 적은 땅에서 많은 소출을 내도록 해야 하며 집약적 농법으로 단위당 수확고를 높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선진 영농법을 광범히 도입해야 합니다.

여러 동무들이 말한 바와 같이 선진 영농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실례를 듭시다. 랭상모, 이는 좋은 영농법입니다. 개인농 때에는 로력과 자재가 많이 들어서 랭상모를 하기 어려웠으나 오늘 조합이 조직된 조건하에서는 이런 것을 여러 사람의 합친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되였습니다. 랭상모를 해보니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랭상모는 무엇이 좋은가? 그것은 모를 일찌기 논에 낼 수 있으므로 벼의 생육 기간이 길어지며 따라서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집약적으로 생산을 높이기 위해서는 랭상모와 같은 선진 영농 방법을 광범히 도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밭 농사에도 광조파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선진 영농 방법이 있습니다.

선진 영농 방법을 도입하기 위하여서는 낡은 것을 고집하는 보수주의와 강한 투쟁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보수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해석하고 설복하는 것은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수주의자들이 다 깨달을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오늘 조합이 조직된 조건하에서는 일정한 계획 밑에서 대담하게 선진 영농 기술을 도입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단위당 수확고를 높이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은 옛날부터 말하는 바와 같이 심경 세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논밭을 깊이 갈고 세밀하게 가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얼마든지 이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 농민들이 경작하는 땅은 호당 평균 1.7 정보에 불과합니다. 협동 경리를 하는 오늘에 와서는 개인 경리 때보다도 얼마든지 농토를 더 잘 가꿀 수 있으며 얼마든지 심경 세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적기 적작하고 적지 적작하는 원칙을 지키며 작물 배치를 옳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토지 리용률을 높이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2모작도 하고 간혼작도 하고 모든 방법을 적용해서 단위당 수확고를 높여야 합니다. 거름도 더 내고 한 포기라도 더 많이 심으면 그만큼 더 많이 소출이 나리라는 것은 정한 리치입니다. 평북도에서는 한 포기에 옥수수를 두 대씩 세워서 높은 수확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높은 수확을 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적당한 주수를 꽂고 거름도 많이 내며 토지 리용률을 적극 높여야 합니다.

함남도 북청 지방에서 단위당 수확고가 높습니다. 이 지방 농민들에게 무슨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름을 많이 주고 많이 심어서 잘 가꾸면 얼마든지 많은 수확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농기계들도 개량해야 합니다. 농기계를 개량하면 일도 헐하게 할 수 있고 작업 능률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당 중앙 위원회가 늘 강조하는 바와 같이 종자를 옳게 선택하고 종자를 잘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종래에 육종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종자들이 퇴화되고 수확고가 높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 농업에서는 기후 풍토에 알맞는 종자를 잘 선택하여 이를 옳게 육성하는 사업이 중요한 문제로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 결정에도 이미 지적된 바와 같이 매개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는 반드시 채종포를 가지고 종자를 가꾸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예 작물 재배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경공업이 대단히 발전하였는데 여기에 필요한 원료 즉 면화, 유지 작물, 피혁 등을 아직 원만히 생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예 작물 특히 섬유 원료 문제에 대하여 말한다면 지금 면화가 대단히 부족합니다. 큰 방직 공장은 차려 놓았는데 여기에 대줄만한 원료—면화가 없어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면화를 먼 외국에서 가져 와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며 막대한 외화가 요구됩니다.

우리의 방직 공업은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전쟁 전에는 우리 나라에서 년산 900 만 메터의 직물이 생산되였는데 명년도에는 약 1억 메터의 직물이 생산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인구 1 인당 각종 직물이 10 메터씩 돌아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발전되는 방직 공업에 원료를 보장하려면 면화를 비롯하여 대마, 아마, 어저

귀 등 섬유 작물을 많이 심어야 합니다.

섬유 원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에서는 화학 섬유 생산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청진 방적 공장에서의 스프와 인견사 생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고 하여도 우리에게는 역시 면화가 많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당 중앙 위원회는 명년도에 우리 나라에서 면화를 약 5만 정보 가량 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면화 재배에 있어서 황해남북도 지대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동무들은 여기에 큰 관심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면화를 적당한 지대에 집중적으로 심고 잘 가꾸는 사업을 옳게 조직한다면 특히 여러 동무들이 토론한 바와 같이 영양 단지 가식법을 옳게 도입하고 면화밭에 관수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면 면화 재배에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산지대에서는 아마, 대마 등을 많이 심어야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유지 작물이 많이 요구됩니다. 유지 작물은 첫째로 먹는 기름을 생산하는 데 필요하고 다음으로는 도료 원료, 비누 등에도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락화생, 깨, 들깨, 해바라기, 피마주 등 유지 작물을 대량적으로 재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언급할 것은 양잠업 발전 문제입니다.

우리는 뽕나무밭 적지를 많이 개간하여 잠견을 많이 생산하고 좋은 비단 옷감을 많이 생산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피마주누에를 치는 사업을 광범히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피마주씨로는 기름을 짜고 그의 잎으로는 누에를 치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피마주는 우리 나라 어데서나 잘 되며 산'비탈, 길섶, 집 근처 등에 얼마든지 심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과수원 적지를 많이 개간하였는데 여기에 당장 묘목을 다 심을 것도 아니니 이를 리용해서 피마주를 많이 심어 피마주누에를 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지대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 대책은 축산업과 함께 과수업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산지대에 있는 신천군 근로자 농업 협동 조합, 천마산 농업 협동 조합, 재령군 은룡 농업 협동 조합 동무들이 회의에서 좋은 토론을 하였습니다.

당 중앙 위원회는 이미 오래 전에 산지대 농민들의 생활을 개선 향상시킬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산을 낀 지대에서는 과수업과 축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서 산을 최대한도로 리용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 협동 조합들에서는 벌써 논지대 사람들보다 못 하지 않게 잘 살고 있습니다.

현실은 당 중앙 위원회가 제기한 방침이 정확하였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농업 협동 조합 내 당 단체들과 관리 일'군들이 이 방침을 철저히 집행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산이 많은데 산간 지대 사람들이 산을 버리고 모두 벌판으로 내려 갈 수는 없습니다.

산을 잘 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청 같은 데 가 보면 높은 경사지에서도 사과가 잘 됩니다. 농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 나라에서는 어떤 산지대를 막론하고 백두산 꼭대기를 제외하고는 실과가 안되는 곳이 없다고 합니다.

사과가 잘 되는 데도 있고 복숭아가 잘 되는 데도 있으며 추리가 잘 되는 지대도 있으며 그의 종류가 다를 뿐이지 실과가 안되는 지대는 우리 나라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방에 따라 그에 적당한 과수를 선택하여 심음으로써 과수업을 전면적으로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산업도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축산업은 산지대의 척박한 땅을 개량하여 알곡 수확을 높이게 하며 육류 생산을 증가시킵니다. 이것은 수익성으로 보아도 유리합니다. 만약 어떤 조합에서 산지대의 밭 1 정보에 옥수수를 심어서 2 톤을 생산한다고 합시다. 그 옥수수 2 톤과 옥수수'대와 호박 및 기타 사료를 잘 배합하여 좋은 씰로쓰를 만들어 가축을 기른다면 1 정보에서 20—30 마리의 돼지를 기를 수 있습니다.

20 마리의 돼지라면 고기가 1 톤입니다. 고기 1 톤을 팔면 옥수수 2 톤을 파는 것보다 거의 곱절이나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밭 1 정보를 리용하여 고기 1 톤을 얻어 낸다면 백미를 2 톤 생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지대에서는 반드시 축산업을 장려하여 소, 양, 토끼와 같은 초식 동물들을 많이 사육하여야 하겠습니다. 산지대 농민들이 산을 옳게 리용하여 다각적인 경리를 조직하고 축산업, 양잠업 등을 옳게 한다면 평야 지대 사람들보다 못 하지 않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과수원까지 잘 하면 평야 지대 사람들이 오히려 부러워할 수 있는 정도로 산간 지대 농민들의 생활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당 단체들은 이것을 옳게 인식하고 산을 잘 리용하는 운동을 광범히 전개하여 과수원과 축산업 그리고 양잠업 등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매 사업과 상업 류통 사업을 개선하는 문제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당 위원회를 비롯한 도'급 간부들과 군이나 리 간부들이 책임적으로 지도해야 하며 농업 협동 조합 관리 일'군들도 이 사업을 옳게 방조해 주어야 합니다. 이 사업은 농민들의 생산 의욕을 높이는 문제와도 직접 관련되여 있는바 우리가 수매 사업을 잘 조직하지 못하면 농민들의 생산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일이 제일 잘 안 되고 당 정책이 관철되지 않고 있는 부문이 수매 부문과 상업 류통 부문입니다. 소비 협동 조합은 지금 앉아서 소극적으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누가 물건을 가져 오면 사고 안 가져 오면 마는 형편입니다. 털, 가죽, 파철 심지어 파지 등 얼마든지 수매할 것이 있습니다. 특히 피혁 수매가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 나라 농촌에서는 1 년에 적지 않은 소, 돼지, 개 등이 도살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이 도살되는 가축들의 가죽을 50% 만 수매한다 해도 상당한 량을 수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 협동 조합 일'군들이 소극적으로 일하며 수매 선전도, 수매 조직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매 일'군들은 일정한 계획 밑에서 전 국가적 리익의 견지에서 적극적으로 수매 활동을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수매 사업에서 시급히 시정하여야 할 것은 농민들에게 수매하겠으니 생산하라고 해 놓고는 수매하지 않는 현상입니다. 어떤 소비 협동 조합에서는 농업 협동 조합에 대하여 무를 수매할 테니 심으라고 해 놓고는 사가지 않음으로써 그 조합이 곤난을 당하게 합니다. 이와 같이 옳지 못하게 일을 하는 현상과는 강하게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는 농산물 가공 사업에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은 협동 조합 자체에서 능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합들에서는 창고를 건설하여 농산물을 잘 보관하며 필요에 따라 가공하는 사업을 잘 조직하여야 하겠습니다. 금년에 과실이 많이 생산되였는데 제때에 이를 처분하지 못하고 또 저장할 창고도 없으면 당장에 썩이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로 과실 저장고를 건설하고 잘 보관하여 상품화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산 협동 조합에서도 간단한 저장 시설과 가공 시설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동무들!

나는 이상에서 농업 생산을 계속 장성시킬 데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농업 생산을 장성시킴으로써 조합원들의 생활을 더욱 부유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황해남도 내 전체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는 조합원들의 생활을 1—2 년 내에 전반적으로 부유한 중농의 수준에까지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유한 중농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생각으로서는 매 농호에서 평균 2.5—3 톤 가량의 알곡을 분배 받게 되면 조합원들의 생활이 모두 부유한 중농의 수준에 올라 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한다고 해서 결코 조합의 공동 축적을 적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조합원들의 생활이 곤난하던 때에는 공동 축적

을 적게 하고 우선 그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활이 안착되고 향상됨에 따라서 공동 축적은 점차 높아져야 합니다. 공동 축적을 생산적 건설에 돌려서 로동을 더 헐하게, 생산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공동 축적을 높여야만 농업 생산을 더욱 장성시킬 수 있으며 조합원들의 생활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생산을 위한 건설은 하지 않고 다 털어 먹고 말면 결국 조합원들의 생활 수준은 올라 갔다가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합원들의 생활을 계속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동 축적을 증가시키고 생산을 위한 건설을 많이 하여 생활 수준을 더욱 확고한 토대 우에서 높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은 1958년도에 전국적으로 알곡 350만 톤을 생산할 것을 투쟁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황해남도에서는 명년에 알곡 75만 톤을 생산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75만 톤의 알곡 증산을 위한 투쟁을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동무들이 토론한 바와 같이 매 농호당 알곡이 2 톤 400 키로그람 이상, 현금 3만 3천 원 이상 차례지게 한다면 이것은 아주 훌륭합니다. 이와 같이 하면 농민들의 생활 수준이 부유한 중농의 수준에 올라 가는 것으로 될 것입니다.

농촌에서 사회주의 교양 사업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황해남도에서는 전체 농가 호수의 97.2%가 사회주의적 협동 경리에 망라되였으며 농촌 경리의 협동화가 멀지 않아 완전히 끝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제기되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에서 얻은 승리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전체 조합원들을 사회주의 사상으로 교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계급 교양 사업을 강화하여 적지 않은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그러나 아직 이 사업은 그렇게 높은 수준에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농촌에서의 사회주의 사상 교양, 계급 교양 사업을 아주 높은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하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의 다수는 봉건 사상 잔재와 일제 사상 잔재, 자본주의 사상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고 조합에 들어 왔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직접 미 제국주의자들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남반부에서는 지주와 예속 자본가들이 정권을 잡고 있으나 우리 북반부에서는 로동자와 농민들이 정권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반대되는 현상입니다.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은 북반부에서 자본주의와 착취 제도를 회복하기 위하여 갖은 음모와 발악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온갖 요언을 류포하며 사회주의 사상과 우리의 인민 민주주의 제도를 비방하고 있으며 반동 사상을 침입시키기 위하여 발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부 농민들 속에 남아 있는 낡은 사상 잔재는 이러한 반동적 부르죠아 사상의 침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갖 옳지 않은 사상 경향과 투쟁하며 우리가 쟁취한 사회주의적 전취물들을 파괴하려는 일체 반동적 시도들을 물리쳐야 하며 우리가 쟁취한 승리와 제도를 고수하고 그를 공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온갖 낡은 것, 락후한 것, 자본주의 요소들과 강하게 투쟁하여야 하며 농촌에서 사회주의 사상 교양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당 중앙 위원회가 현 시기에 전체 당 단체들과 당원들에게 주는 제일 중요한 과업입니다.

만일 우리가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에서 커다란 승리를 쟁취하였다고 자만하여 만세만 부르고 이를 공고화하기 위한 사상 정치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우리 내부의 락후한 요소들이 적들의 모략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 승리를 더욱 공고히 하며 그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조합원들에게 자본주의 제도를 반대하며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현상이 없는 사회주의 제도가 자기의 제일 좋은 제도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하겠습니다.

농민들에 대한 사회주의 교양을 강화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공동 재산을 자기 재산과 같이 애호하게 하며 혁명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 당과 정권을 적극 옹호하여 나서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경리 형태가 개조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사회주의 의식으로 개조되여야만 농촌에서 사회주의가 완전히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농촌에서 문화 혁명을 적극 추진시키는 것은 오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농촌에서 일체 낡은 것, 퇴패한 것을 반대하고 새것, 사회주의적인 것을 적극 지지하며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농민들의 문화 수준을 높여 그들이 인민 학교 정도는 물론이고 중학 정도의 지식을 소유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화 수준을 높여야만 농촌 경리의 기술적 개조를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소유할 수 있으며 기술적 문제들을 성과 있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 어려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민청 단체들입니다.

청년들은 자기들의 문화 수준을 높이는 데는 물론 전반적 농민들의 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의 사회주의 농촌을 더욱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농촌에서의 문화 혁명의 성과적 추진을 위하여 특히 인민 학교 및 중학교 교원들이 많이 힘쓰게 하며 그들이 당이 요구하는 사회주의적 문화 혁명 과업 수행에 헌신하도록 추동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제1차 5개년 계획 기간 내에 초중 의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외에도 농촌에서 야간 중학, 기술 학습반, 문화 써클들을 광범히 조직 운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오직 이렇게 함으로써만 농민들의 전반적 문화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농촌에서 보건 위생 방역 사업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로인들은 지금 《좋은 세상을 만났는데 이제는 오래 살아야 하겠다.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겠는가》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박한 말은 오늘의 우리 인민들의 절실한 념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병원도 더 많이 지어야 하겠지만 인민들 자신이 자체의 위생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목욕탕도 짓고 변소도 짓고 재우리도 지어 자체 생활을 문화적으로, 위생적으로 조직하도록 농민들을 옳게 지도하여야 하겠습니다. 우선 음료수부터 위생적으로 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농촌에서는 제가끔 드레박을 가지고 물을 길러 다니는데 이것은 비위생적입니다. 조합들에서 반드시 공동 드레박을 만들어 놓고 우물에 뚜껑을 해 덮는 것과 같은 손쉽고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보건 위생 사업을 잘 해야 하겠습니다.

농촌에서 사회주의 승리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당 조직을 강화하는 문제입니다.

협동 조합이 조직되기 전에는 개인 호주가 자기 집안 살림에 대한 책임을 졌지만 오늘 협동 조합이 조직된 조건하에서는 우리 당 단체들이 조합 사업과 조합원들의 살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당 단체가 사업을 잘 하면 그 조합이 잘 되고 강해지며 일을 잘못하면 조합 일은 잘 되지 못하고 조합 자체도 약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농업 협동 조합 내 우리 당 단체를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조합 내 당 단체들은 당원들에 대한 맑스—

레닌주의 사상 교양 사업을 강화하고 당원들이 당 생활을 잘 하도록 하며 당성 단련을 위한 투쟁을 강화하여 그들이 당과 혁명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으며 조국을 위하여, 인민을 위하여 언제든지 헌신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당원들이 군중의 조직자로, 지도자로 되기 위하여 자기가 먼저 배우며 대중의 모범이 되도록 옳게 행동하게 할 것이며 그들로 하여금 반당, 반혁명 분자들이 우리 당을 약화시키지 못하도록 항상 예리하게 살피고 원쑤에 대한 혁명적 경각성을 높이게 해야 할 것입니다.

당원들의 혁명적 군중 관점을 확립하는 사업이 또한 중요합니다. 군중 관점을 확립한다는 것은 당원들이 군중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의거하며 그들 속에 들어 가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들과 같이 호흡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것은 락후한 층을 따라 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당원들은 군중들을 일깨워 주고 교양해야 합니다.

혁명의 목적은 군중들이 잘 살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군중들을 우리 당 주위에 굳게 결속시켜야 하며 당원들이 그들의 리익을 위해서 그들과 같이 투쟁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애국 렬사 가족들과 군무자, 후방 가족들과의 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애국 렬사 가족들은 우리 당과 조국과 혁명을 위하여 가장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며 우리 당의 핵심들입니다. 당 중앙 위원회는 각 방면으로 이들과의 사업을 강화하도록 이미 오래 전에 각급 당 단체들에 지시하였으며 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금 애국 렬사 가족들의 생활은 안착 향상되고 그들은 농촌 핵심답게 열성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애국 렬사 유자녀들을 위하여 유자녀 학원도 만들었고 그들을 외국 류학 또는 대학에도 많이 보냈습니다.

각 지방에서도 그들에게 많은 사회적 방조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되며 그들에게 더 많은 지도와 방조를 계속 주어야 하겠습니다. 국가적 방조도 많이 주어야 하겠지만 그들이 자체의 힘으로 국가 사업과 자기 생활을 잘 하도록 지도하고 교양하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는 애국 렬사 가족들의 사회적 위신을 제고하고 남부럽지 않게 살도록 사회적으로 도와 주며 당 단체들은 그들이 우리 당의 튼튼한 핵심으로 일하도록 교양하여야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군이나 도에서 일정한 계획 밑에 강습을 조직하여 그들을 훌륭한 사회적인 활동가로 육성하는 동시에 특히 유자녀들이 적어도 중학교 졸업 정도의 지식을 소유하도록 각 방면으로 도와 주어야 하겠습니다.

이리하여 애국 렬사 가족들이 조합 일도 모범적으로 잘 하고 생활도 넉넉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농촌의 핵심답게 활동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촌 진지를 더욱 튼튼히 하기 위하여 우리 당의 보조자이며 후비대인 민청 단체를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민청은 전쟁 시기에는 물론 전후 복구 건설 시기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청년들의 역할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청은 청년들을 옳게 지도하며 그들을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사상으로 교양하여 사회주의 조국을 위하여, 평화적 조국 통일을 위하여 더욱 용감한 투사가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기타 근로 단체들의 사업을 강화하는 데도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농업 협동 조합원들을 우리 당 주위에 더욱 튼튼히 집결시키며 협동 조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합 관리 일'군들이 옳은 군중 관점을 소유하여야 합니다. 조합원 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는 것은 조합 관리 일'군들의 기본 사업입니다. 군중의 리익을 옹호한다는 것은 국가의 리익을 옹호하며 조합의 리익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조합 관리 일'군들은 조합원들의 창의 창발성과 애국적 열성을 앙양시키기 위하여 조합 내에서 발현되는 일체 관료주의적 현상을 퇴치하고 민주주의를 적극 발양시켜야 할 것입니다. 조합원들이 서슴치 않고 자기의 의견을 적극 제기하도록 할 것이며 제기된 의견 중에서 좋은 것은 살리고 그릇된 것은 해석 설복하여 고치도록 할 것입니다.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의 재정 관리 사업이 반드시 조합원들의 대중적 감독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조합 관리 일'군들은 규약에 근거하여 조합 재산의 관리, 처리를 명백히 하며 재정 관리 운영에 대한 검열 제도를 확립하며 조합원들 앞에서 정상적으로 보고하는 제도를 철저히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관리 일'군들이 부화하지 않고 항상 명심해서 일을 잘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조합 관리 위원장들은 가능한 정도에서 생산에 직접 참가하도록 해야 합니다. 벌에 나가야 농사 형편을 알 수 있지 사무실이나 집안에만 들어 앉아 있으면 조합 실정에 암둔해질 뿐만 아니라 기술에 있어서도 뒤떨어지고 주관주의와 관료주의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결국 조합원들의 신망을 잃게 되고 그들로부터 배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 위원장들은 생산에 직접 참가하면서 군중들과 담화할 줄 알며 모든 문제를 옳게 분석할 줄 알고 많은 의견을 들을 줄 알아야 하며 군중들과 같이 호흡하는 그러한 일'군으로 되여야 합니다.

현재 조합 내 상임 관리 일'군들의 수가 일반적으로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 관리 기구를 결정적으로 간소화하고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을 극력 축소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번 열성자 회의에서 농업 협동 조합들을 필요에 따라 합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이 제기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말한다면 각개 지방의 구체적 실정과 조건에 따라서 농업 협동 조합들을 통합하는 것이 모든 면으로 보아 더욱 유리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합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도당이나 도 인민 위원회에서 실정을 구체적으로 조사 장악하고 충분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며 조합들을 통합함에 있어서 당분간은 100호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조합을 통합할 때에는 조합원 대중들이 통합을 원하는가, 어떤가, 합치려는 조합들의 경제 토대와 조합원들의 생활 조건이 서로 비슷한가, 어떤가, 통합한 후 조합의 지도 력량이 어떠한가 등을 사전에 충분히 살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리하여 서로 합쳐서 자연 경제적 조건으로 보나 조합의 공고화 및 조합원들의 생활 향상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더욱 유리해 진다면 상호 엄격한 자원적 원칙하에서 조합들을 서로 통합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일부 지방에 있었던 것처럼 지도 일'군들이 쓸데 없는 주관주의적 욕망에 사로잡혀 조합원들의 의사도 묻지 않고 경제적 토대와 발전 수준이 서로 다른 조합들을 억지로 통합한다든가 뒤떨어진 조합을 도와 준다는 명목하에 선진적인 조합과 합치려 한 것과 같은 현상은 절대로 배격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조합원들의 리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되며 조합들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것입니다.

회의에서는 농업 협동 조합 관리 위원장과 초급 당 위원장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들도 제기되였습니다.

사업의 계선을 가지고 말한다면 조합 관리 위원장은 조합원 대중이 선거한 조합 관리 운영의 유일한 행정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관리 위원장은 대부분 로동당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원이라면 그들은 응당 당 조직에 복종해야 합니다. 조합 내 당 조직의 책임자는 초급 당 단체 위원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 위원장은 초급 당 위원장과 사업을 의논해야 하며 당의 정책과 결정에 복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리 위원회 사업에 대하여 초급 당 회의에서 보고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급 당 위원장이 행정 유일 책임자인 관리 위원장의 사업을 대행해서는 안되며 또 대행할 수도 없습니다. 초급 당 위원회는 조합 관리 위원회가 당 정책과 결정을 잘 집행하는가를 살펴

보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며 당 정책을 조합 관리 위원들과 조합원들에게 해석 침투하여 그를 조합 내에서 관철하도록 투쟁해야 합니다.

동시에 관리 위원회 간부들을 당 정책을 옳게 집행하는 사람들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동무들!

나는 이상에서 우리 나라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 사업에서 얻은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며 그를 계속 발전시킬 데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투쟁은 지금 매우 유리한 조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소집되였던 당 중앙 위원회 확대 전원 회의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얼마 전에 모쓰크바에서 진행된 각국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 회의들과 여기에서 채택된 두 개의 선언들은 우리 나라 공산주의자들과 우리 인민들의 승리에 대한 신심을 더욱 북돋아 주고 있습니다.

이 문헌들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오늘의 정세는 자본주의가 몰락하고 사회주의가 전 세계적 범위에서 결정적으로 승리하는 위대한 전환기에 처하여 있습니다.

오늘 사회주의는 강력한 세계적 체계로 되였으며 쏘련을 선두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은 불패의 통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진영은 근 10억의 인구를 망라하고 있으나 제국주의 진영의 인구는 4억 남짓한 정도입니다.

사회주의 진영의 선두에 서 있는 쏘련은 지금 과학 기술 발전에 있어서도 미국보다 훨씬 앞서고 있습니다. 과거에 미 제국주의자들은 원자탄을 가지고 자기의 우세를 떠들었으나 이것은 이미 옛날 일로 되였습니다. 세계 평화의 성새인 위대한 쏘련은 현재 대륙간 탄도 로케트를 가지고 있으며 두 개의 인공 지구 위성을 발사하였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과학 기술 발전에서 새로운 기원으로 됩니다. 최근 미 제국주의자들은 야구뽈 만한 인공 위성을 쏘아 올려 보려고 하였으나 그것은 땅 우에서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세계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단결은 더욱 강화되고 공산주의 운동은 전 세계적 범위에서 강력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기타 평화 애호 국가들도 제국주의 침략 세력과 전쟁을 반대하여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평화와 사회주의 진영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 정세하에서 사회주의 혁명의 세계적 승리는 의심할 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나라에서는 정세가 어떠합니까?

우리의 혁명 력량도 비할 바 없이 강대하여졌습니다. 공화국 북반부의 인민 경제는 전쟁 전에 비하여 2.8 배로 장성하였으며 총생산액 중에서 공업과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956년도에는 공업 생산이 60%, 농업 생산이 40%였다면 명년도에는 공업 생산이 65%, 농업 생산이 35% 정도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는 공업—농업 국가로 전변되고 있습니다.

또한 북반부 인민들 뿐만 아니라 남반부의 절대 다수 인민들도 우리와 함께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쏘련을 선두로 하는 강력한 사회주의 진영과 굳게 단합되여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하에서 우리는 리 승만 도당의 어떠한 도발적인 《북진》 소동도 능히 방지할 수 있으며 조선에서 일체 외국 군대가 철거함으로써 조선 사람끼리 능히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에 진행된 당 중앙 위원회 확대 전원 회의는 우리 당원들과 전체 인민들에게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자신심과 승리의 신심을 더욱 북돋아 주고 있습니다.

평화적 조국 통일의 위업은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강력히 추진시키는 데서 촉진될 것입니다. 오늘 북반부에서는 자립적 민족 경제가 날로 장성 발전되고 있으나 반대로 남반부에서는 미제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으로 말미암아 민족 경제가 더욱 파탄되고 미제에 완전히 예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북반부에서는 인민 생활이 급속히 향상되고 있으나 남조선 인민들의 생활은 나날이 더욱더 령

락되여 가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압박이 없고 착취가 없는 사회주의 락원이 건설되고 있는데 한편 남조선은 인민에 대한 압박과 착취가 극심한 생지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남조선 인민들에게 어느 정권, 어느 제도, 어느 길이 좋은가 하는 것을 날이 갈수록 더욱 명백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조선 인민들이 우리의 인민 민주주의 제도를 더욱더 지지하며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을 동경하게 될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그의 튼튼한 담보로 되는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가일층 촉진시켜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위업은 정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합니다.

나는 본 열성자 회의에 참가한 동무들이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에서 달성한 성과를 더욱 공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1957년도 영농 사업을 총화하고 잘된 것을 살리며 잘못된 것을 제때에 시정하고 당면한 명년도 영농 준비 사업을 강화하여 1958년도의 전국적 알곡 증산 목표 350만 톤, 동무들이 결의한 황해남도의 알곡 증산 목표 75만 톤을 성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헌신 분투하는 동시에 전체 조합원들과 전체 근로 농민들을 당 중앙 위원회와 공화국 정부 주위에 더욱 튼튼히 묶어세워 우리의 사회주의 농촌을 더욱 강화하며 우리 당 제3차 대회가 제시한 제1차 5개년 계획을 빛나게 완수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키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 위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하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새해의 전투적 과업

조선 인민들은 1958년을 그 어느 해보다도 거대한 전망과 승리에 대한 새로운 신심을 가지고 맞이한다.

지난해는 우리 당 중앙 위원회 12월 전원 회의 결정을 실행하기 위한 당과 전체 인민들의 줄기찬 투쟁 속에서 흘러 갔다. 오늘 정세는 국제, 국내적으로 우리에게 더욱더 유리하게 전변되였다.

세계적 체계로 장성된 사회주의는 오늘 결정적 승리의 위대한 전환기에 들어 섰으며 쏘련을 선두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 단결의 불패의 위력은 날로 더욱 장성 강화되고 있다. 이와 반면에 미 제국주의자들을 두목으로 하는 제국주의 진영은 날로 약화 쇠퇴하고 있으며 미 제국주의자들이 떠들어 대던 그들의 《우세》와 《최강》에 대한 신화는 세계 인민의 눈 앞에서 산산히 부서지고 있다. 모든 정세는 오늘 사회주의의 결정적 승리를 의심할 여지 없게 하여 주고 있다.

우리 나라 내부에서도 혁명 력량은 그 어느 때에도 비할 수 없이 강화되였다. 지금 우리는 일찌기 볼 수 없었던 거대한 전환의 시기에 처해 있는바 우리 나라는 바야흐로 농업국으로부터 공업—농업국으로 전변되면서 있다. 이 거대한 력사적 전환은 우리 당 주위에 한 사람같이 단결된 인민 대중의 창조적 로력과 강철의 대오로 통일된 우리 당의 정책의 정당성과 조직 지도 사업의 현명성의 결과로서 이루어지고 있다.

조선 인민은 자기 력사에서 처음으로 우리 당과 같은 강대한 당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여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확고부동한 전망을 가지고 사회주의의 대로를 따라 확신성 있게 전진하여 왔으며 또 전진하고 있다. 현실은 어떠한 난관과 시련도, 국내외 반동들의 어떠한 책동과 악선동도 우리의 전진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오늘 우리의 보다 더 큰 승리와 보다 광명한 래일에 대한 굳은 신심을 동요시킬 수 있는 힘은 세상에 없다.

우리 나라의 혁명 발전의 자랑스러운 력사에 특기할만한 1957년은 거대한 승리들로 충만되여 있다. 실로 당 중앙 위원회 12월 전원 회의 결정은 전체 인민 대중의 무한한 정치적 및 로력적 열성을 불러 일으켰으며 근로자들——사회주의 건설자들로 하여금 거대한 기적을 창조케 하였다. 그리하여 1957년은 사회주의 경제 건설과 인민들의 사상—정치 생활에서 거대한 전변의 해로 되였다.

당 중앙 위원회 12월 전원 회의가 호소한 최대한의 《증산과 절약》, 이 구호는 위대한 생활력을 가지고 전체 근로자들의 모든 생산 활동과 생활에 깊이 침투되였다. 우리 당의 정확한 지도에 고무된 근로 대중의 창발성은 우리 앞에 나선 과업들이 어렵고 거대하면 할수록 더욱 뚜렷이, 그리고 보다 강력하게 발현되여 경제 발전의 결정적 요인으로 되였으며 되고 있다.

이 무진장한 힘에 의거하여 우리 나라 경제 발전의 새로운 단계에서 제기되였던 일련의 문제들이 성과적으로 해결되였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제1차 5개년 계획의 승리적 완수를 위한 첫 투쟁에서 이미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예비적 자료에 의하면 1957년 국영 및 협동단체 공업 총생산액 계획은 113.8%로, 증산 과제를 포함한 국영 및 협동 단체 공업 총생산액 계획은 101.4%로 초과 수행되였다. 이것은 1957년도의 공업 총생산액이 1956년보다 근 40%나 장성한 것을 의미하며 전쟁전 수준을 2.8 배로 릉가하게 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들은 어떠한 자본주의 나라들의 공업

발전 력사에서도 한 해 동안에 40%나 장성한 그러한 비약적인 발전 템포를 찾아 볼 수 없다.

1957년에 공업 분야에서 많은 귀중한 신 제품들이 생산되였으며 근로 대중의 수 많은 창의 고안들과 기술적 혁신들이 이루어졌다. 결과에 로동 생산 능률은 1956년에 비하여 공업에서 120.1%로, 건설에서 107%로 장성되였으며 절약 과제는 계획에 예견되였던 것보다 44억 5천만 원이나 더 초과 실행되였다.

공업과 함께 농촌 경리도 급격히 발전되였다. 1957년 계획에 예견되였던 알곡 생산 계획은 111.6%로, 면화 생산 계획은 148.1%로, 담배는 109.2%로 각각 초과 완수되였다. 자난해에 농촌 경리의 협동화는 더욱 추진되여 총 농가 호수의 90% 이상이 협동 조합에 망라되였으며 우리 나라 농촌은 사회주의적 농촌으로 전변되였다.

지난해 인민 경제의 확고한 장성에 기초하여 로동자, 사무원들의 평균 임금은 1956년에 비하여 138.3%로 장성되였으며 임금의 증대에 의한 주민들의 구매력은 1956년보다 현저히 제고된 것으로 된다.

1957년 계획의 성과적 수행으로 말미암아 3개년 계획의 완수로써 쟁취한 위대한 전취물들이 더욱더 공고 발전되였다. 특히 3개년 계획 기간에 기본적으로 구축되였던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는 한층 더 공고화되였으며 인민 경제에서의 식민지적 편파성은 더욱 현저히 퇴치되였고 그의 기술적 토대는 한층 개선 강화되였다. 지난해에 우리들은 앞으로 인민 경제의 새롭고 강력한 앙양을 보장할 수 있는 물질—기술적 토대를 일층 튼튼히 구축하여 놓았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의 정치, 경제 및 문화 등 모든 방면에 걸쳐 계속 새로운 앙양이 일어나고 있으며 인민들의 생활은 일층 향상되여 가고 있다.

우리 경제, 문화의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앙양은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적으로 발전시키는 우리 당 경제 정책의 정확성을 다시 한번 확증하여 주고 있다. 우리가 달성한 이러한 빛나는 성과들은 우리 당 경제 정책을 중상 비방하며 그를 외곡 파탄시키려고 시도하던 최 창익, 박 창옥, 윤 공흠, 서 휘, 리 필규, 리 상조, 김 승화 등의 반당 종파 분자들의 시도가 얼마나 황당무계하고 후안무치한 것이였던가를 다시 한번 철저히 폭로하고 있다.

자기의 정당한 경제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투쟁 행정에서, 그의 정확한 집행을 위한 조직 지도 사업의 과정에서 우리 당 대렬의 통일 단결과 당과 대중과의 련계는 더욱 불패해졌으며 이 통일과 단결의 힘은 우리 앞에 제기되는 더욱 중대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하는 확고한 담보로 되고 있다.

지난 해에 우리가 거둔 거대한 성과, 인민 경제 계획의 성과적 수행과 당 대렬의 통일 단결과 대중과의 련계의 가일층의 강화는 근로 대중의 자각적 열성과 사회주의 건설자로서의 자부심과 새로운 승리에 대한 확신을 한층 더 북돋아 주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의 거대한 성과는 원쑤들과 착취자들 속에서는 불안과 초조와 사회주의에 대한 적의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우리 조국 남반부의 형편은 북반부와 판이하다.

남반부에서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과 리 승만 도당의 매국 정책으로 말미암아 민족 경제가 혹심하게 파탄되고 더욱더 미제에 완전히 예속되여 가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 산업을 파탄시킴으로써 남조선을 자기들의 상품 시장으로 전변시켰으며 그로 말미암아 수 많은 조선인 중소 기업체들이 파산되였으며 남아 있는 일부 공장들도 제대로 돌아 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초에 종업원 200 명 이하의 중 소 기업체 수는 1955년 말에 비하여 1,200 여 개나 감소되였으며 남아 있는 기업체들의 약 80%는 휴업 또는 조업 단축의 상태에 빠졌다. 지난해 5월에 남조선에서 소매 물가 지수는 해방 직전인 1945년 6월에 비하여 약 4만 3천 배에 달하며 1954년에 비하여 2.7 배로 높아졌

다. 지난해 말에 남조선 로동자들의 실질 임금은 그렇게도 착취가 심하던 일제 시기의 수준에 비하여 3분의 2밖에 되지 않는다.

미 제국주의자들과 리 승만 도배는 남조선의 농촌 경리도 극도로 황폐화시켰다. 그리하여 남조선에서는 해마다 농산물의 수확고와 농경지가 감소되여 극심한 식량 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그들이 발표한 공식 자료에 의하더라도 남조선 경지 면적은 일제 말기에 비하여 20만 정보나 감소되였다. 결과에 일제 시기에는 북조선에 비하여 약 2 배나 더 많은 알곡을 생산하던 남조선이 오늘에 와서는 북반부와 거의 비슷한 량의 알곡을 생산하게 되였으며 특히 미국 잉여 농산물의 압박 밑에 맥류, 두류, 면화의 생산은 더욱 심하게 감소되였다. 지난해 봄에 남조선에서 절량 농가는 약 100만 호에까지 이르렀었다.

남조선에 조성된 경제적 위기는 정치적 위기를 심각화시키고 있으며 정치적 위기는 다시 경제적 위기를 더욱 심각화시켜 미 제국주의자들과 리 승만 도당의 식민지 략탈 정책을 근저로부터 진동시키고 있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는 미 제국주의자들과 리 승만 통치 밑에서 더는 살아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다르며 북반부의 인민 민주주의 제도와 사회주의 건설을 동경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투쟁 기세가 날로 높아 가고 있다.

남조선의 지난해 정치 경제 형편의 총화는 파멸과 몰락, 빈궁과 기아 뿐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현 정세의 특징은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혁명 력량이 급속히 장성되며 지상 락원이 건설되고 있는 반면에 남반부에서는 미제 침략자들의 식민지 통치가 참을 수 없는 기아와 인민 생활의 파멸을 초래하고 있으며 파탄되여 가는 미제 및 리 승만 통치와 광범한 인민 대중들과의 모순이 날로 격화되고 있는 그것이다.

지금 우리 나라의 모든 정세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더욱 유리하게 전변되고 있다.

그러나 남반부를 미국 군대가 강점하고 있음으로 하여 우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투쟁은 간고성과 장기성을 띠고 있다. 우리는 더욱 긴장된 투쟁으로써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에 있어서 북반부 혁명적 민주 기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가강히 추진시키는 것은 우리 승리의 튼튼한 담보로 된다.

새해를 맞이하는 조선 인민 앞에는 1958년 인민 경제 계획을 성과적으로 실행함으로써 북반부의 혁명적 민주 기지를 한층 강화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시켜야 할 중대한 당면 과업이 나서고 있다.

당과 정부는 1957년도 인민 경제 계획 실행의 결과에 조성된 우리 나라의 경제 형편과 우리 당 제3차 대회가 규정한 제1차 5개년 계획의 기본 과업에 근거하여 1958년 인민 경제 계획의 중심 과업과 규모들을 확정하였다.

금년도 계획의 중심 과업은 인민 경제 각 분야의 급속한 발전에 상응하여 기간 부문들인 연료 및 동력 공업, 야금 공업, 기계 제작 및 금속 가공 공업, 화학 공업 및 건재 공업 등등을 급속히 발전시키는 데 있다. 석탄과 전력 생산을 지난 해보다 현저히 증대시키면서 그의 장래 발전을 위한 기초를 튼튼히 구축하며 흑색 금속 특히 각종 강재의 생산을 급속히 확대하며 쎄멘트를 비롯한 건재와 건설 부재의 생산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올해 계획은 계속하여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광산 및 탄광용 설비, 농기계, 건설 기계를 비롯한 중소 기계들과 부속품 생산을 확대할 것을 규정하였다.

우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기간 공업 부문들을 급속히 장성하는 인민 경제 각 분야의 수요에 상응되도록 하기 위하여 금년 계획에는 연료 공업은 123.3%, 야금 공업은 약 118%, 기계 제작 및 금속 가공 공업은 123.5%, 화학 공업은 139%, 건재 공업은 134.4%로 각각 장성시킬 것이 예견되여 있다.

금년도에는 중공업을 보다 높은 속도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의 동시적 발전을 계속 견지하고 있다.

경공업 부문에서도 섬유 공업의 원료 기지를 공고히 형성함에 있어서 중요한 고리인 인조 섬유 생산을 급속히 발전시키며 식료품 가공 공업을 축산, 수산, 과수의 발전에 적응시켜 발전시키게 된다. 즉 인견사 생산을 지난해 예정 실적에 비하여 402.7%로, 식료품 가공 공업도 급속히 장성될 것이다.

농촌 경리 부문에서는 알곡 생산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계속 공고히 하기 위하여 국가 및 민영 관개 사업을 더욱 광범히 조직 전개하며 섬유 공업 원료를 확보하기 위한 면화 재배 면적을 확장하며 잠업, 과수, 축산업 등등의 발전을 위한 제반 조건들을 조성하여 농촌 경리의 다각적 발전을 보장하는 데 주되는 력량이 기울여 지게 된다. 그리하여 알곡 생산고는 330만 톤 (증산 목표는 350만 톤) 이상으로, 면화는 지난해에 비하여 375%로 각각 장성될 것이며 축산업, 잠업도 현저히 장성될 것이다.

올해 계획은 인민 경제 각 분야에서 요구되는 고정 폰드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적지 않은 기본 건설을 진행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 금년 기본 건설 투자의 분배는 계속 공업 특히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실시될 것인바 그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은 투자로써도 속히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상과 이미 착공한 주요 대상에 투자를 집중하는 동시에 참을 수 있는 대상은 참고, 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기본 건설 자금의 분산을 극력 피하게 될 것이다. 금년의 국가 자금에 의한 기본 건설 투자는 지난해 수준을 약간 릉가하는바 투자의 효과성을 높이는 문제가 더욱 긴절하게 나선다.

그리고 올해 계획에는 우리 나라의 현 실정으로부터 출발하여 외화의 수지 균형을 확고히 보장하기 위하여 대외 수출 원천을 광범히 탐구 개발하며 수입 품종에 대한 국내 생산을 적극적으로 조직하며 인민 경제 각 분야 특히 로력 지출 분야에서 계속 엄격한 절약 제도를 확립할 것이 예견되였다.

우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인민 경제 각 분야의 장성에 기초하여 1958년 국영 및 협동 단체 공업 총생산액은 1957년에 비하여 122.1%, 그중에서 생산 수단 생산은 123.1%, 소비재 생산은 120.7%로 각각 장성할 것이다.

새해에 우리 앞에 나서는 전망과 과업은 이와 같이 거대하다. 1958년 계획의 성과적 실행은 우리 나라 경제 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될 것이다.

금년도 계획의 성과적 수행은 제1차 5개년 계획에 착수하던, 우리 나라 경제 발전의 새로운 단계에서 제기되였던 경제적 문제들——재정, 상품, 외화 문제들을 기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제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제시된 경제적 과업들을 완수 및 초과 완수할 수 있는 확고한 기초를 축성하게 될 것이다. 금년 동안에 중공업의 토대가 계속 강화 발전되면서 식민지적 편파성과 인민 경제 각 분야간의 불균형이 더욱 현저히 퇴치되며 인민 경제 각 분야의 기술적 장비가 한층 강화되여 경제를 더욱 앙양시킬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되여 앞으로 기본 건설을 계속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성될 것이다. 농촌 경리의 급격한 앙양을 위한 충분한 조건들이 조성되여 식량 문제를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길에 들어서게 될 것이며 식료품 가공 공업의 토대가 이루어질 것이다. 금년 계획의 성과적 수행은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을 현저히 제고시키며 인민들의 의식주 문제 해결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1958년 계획의 성과적인 완수에 기초하여 앞으로 어떠한 인민 경제 부문이든지 필요에 따라 능히 급속히 발전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금년 계획의 수행은 전체 인민들에게 제1차 5개년 계획을 성과 있게 완수할 수 있다는 보다 확고한 신심을 주는 동시에 그들의 정치적 및 로력적 열성을 더 한층 제고할 것이다.

올해 계획이 성과적으로 수행된다면 이미 기본적으로 구축된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가 더욱 강화될 것이며 농업국으로부터 공업—농업국으로의 전환이 현저히 촉진될 것이다.

금년도의 계획은 지난해와 같이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제1차 5개년 계획의 실행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올해 계획에 예견된 지표들을 온갖 애로와 난관을 극복하고 반드시 완수 및 초과 완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올해 계획을 실행함에 있어서도 지난해와 같이 경제 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는 때에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나서고 있다. 올해 계획 실행에서의 어려운 문제들은 주로 로력 보충, 전력, 석탄과 강재를 비롯한 기타 물자들의 공급, 그리고 철도 운수와 상품 보장 문제들에서 표현되고 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보다 훨씬 많은 로력을 인민 경제의 각 부문에 보충하게 된다. 이 막대한 로력을 보충하기 위한 사업은 로력 수급 면에서나, 로력 원천 면에서나 그리고 국가적 부담 면에서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다. 더욱이 현 시기에 농촌으로부터 로력을 보충 받기는 어려움으로 그의 대부분을 도시 로력 인구의 장성과 부양 가족 로력에 의존하게 되는 바 여기에서 로력 보충 문제가 용이하지 않게 된다.

올해에는 석탄 생산이 지난해보다 약 145만 톤이나 증산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석탄을 많이 소비하는 야금 공업과 기타 부문의 급속히 발전하는 수요에는 따르지 못하고 있다. 석탄 사정의 긴장은 석탄 소비의 장성에 의하여서만 조성되는 것이 아니라 금년에 많은 부문에서 종전에 사용하여 오던 수입탄을 국내산 석탄으로 전환시키는 데서도 조성된다. 또한 아직 전력 장성은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화학 공업과 야금 공업의 발전에 상응하지 못하다. 올해에 예견된 인민 경제 각 부문의 급속한 장성은 수송 부문 일'군들의 보다 긴장된 투쟁을 요구하고 있다.

공업과 건설을 비롯한 인민 경제 각 분야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설비품, 섬유 원료 및 제품들 중 우리 나라에서 현재 생산되지 못하거나 적게 생산되는 것들을 계속 수입하게 되므로 올해에도 외화 형편은 의연히 완화되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상품 보장 문제는 올해에 기본적으로 해결된다. 그러나 주민들의 화폐 수입의 현저한 증대에 따라 주민들의 더욱 다양해지는 수요에 상품 구색(具色)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게 나선다.

올해의 방대한 계획의 완수와 그를 실행하기 위한 행정에서 제기되는 경제적 문제들의 성과적 해결은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당 중앙 위원회 12월 전원 회의 결정을 실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축적된 경험들은 우리에게 금년도 계획 과제들의 성과적인 수행의 방도를 가르쳐 주고 있다. 12월 전원 회의 결정 실행을 위한 투쟁에서 앙양된 근로 대중의 높은 로력적 열성과 적극성을 더욱 발전시킨다면 우리는 능히 올해의 계획 역시 빛나게 완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획을 초과 완수할 수 있다고 확신성 있게 말할 수 있다.

경험은 지도 일'군들과 당원들이 당 경제 정책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상적으로 적극 동원되여 근로 대중의 창발성을 옳게 조직 계발한다면 어떠한 어려운 문제들도 능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확증하고 있다.

그러므로 올해 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도 일'군들과 당원들이 금년도 인민 경제 계획의 기본 방향, 올해에 해결하여야 할 기본 고리들, 올해 계획의 실행에서 특히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경제적 문제들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당 정책 수행이 그러한 바와 같이 당 경제 정책에 대하여 전체 간부들과 당원들이 깊이 인식하는 것은 금년도 계획 과제의 실행을 위한 투쟁에서 그들의 사상적 동원, 당의 사상상 및 행동상 통일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조건으로 된다.

당 중앙으로부터 초급 당 단체에 이르기까지, 지도 간부들로부터 보통 당원들에 이르기까지, 전 당이 당 정책에 대한 통일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어느 때, 어떠한 조건과 장소에서도 의식적으로 당 정책의 집행에 참가하며 당 정책을 비방 외곡하는 어떠한 경향과도 견결히 투쟁하며 끝까지 당 정책을 옹호 관철시킬 수 있다.

때문에 우리들은 당원들에 대한 당 정책 교양을 더욱더 강화하여 그들이 당 정책에 담긴 계급적 본질과 그의 근저에 놓여 있는 현실적 및 리론적 기초를 깊이 파악케 함으로써 모든 곤난과 애로를 극복하고 당 정책을 옹호 관철시키려는 정치적 각오와 사상적 준비 정도를 높이는데 심중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 건설자들, 특히 로동 계급과 농민들 속에서 사회주의적 계급 교양 사업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하여 나라의 령도 계급으로서의 로동 계급의 자각성을 높여 그 대렬을 한층 강화하며 농촌의 사회주의적 개조에 농민들의 사상 의식의 개조가 뒤따르게 함으로써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 성과를 더 공고화할 수 있는 것이다.

올해 계획을 성과 있게 실행함에 있어 지도 일'군들과 당원들의 사업 작풍을 계속 개선하고 군중 관점을 확립하며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부단히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앞에 나서는 과업들이 어렵고 거대할 수록 그 과업의 해결에서 대중과 더불어 의논하며 그의 지혜와 력량에 의거하는 것이 더욱더 절실한 문제로 나서는 것이다.

오늘날 인민 경제 계획을 완수 및 초과 완수하기 위한 투쟁에서 전례 없이 앙양되고 있는 근로 대중의 로력적, 정치적 열성과 무궁무진한 창발성은 현실 속에 뛰여 들어가 보지 않고 사무실에 앉아서는 리해는커녕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되였다. 현실은 낡은 사업 작풍을 더는 지속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들은 아직도 극복되지 못한 관료주의, 보수주의 및 사무실적 사업 작풍과 형식주의를 결정적으로 청산하는 데 주의를 돌려야 한다. 지도 일'군들과 전체 당원들의 중요한 일상적 과업은 직접 생산자들 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들에게 당 경제 정책의 기본 내용을 침투시키면서 그들에게서 배우며 그들과의 산 련계를 맺고 그들의 창발적 발기와 무궁무진한 력량을 지지 집결하여 동원할 줄 아는 사업 작풍을 체득 수립하는 그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사업 작풍을 계속 개선하여 대중의 창발성을 옳게 조직 동원한다면 지난 해와 같이 금년에도 공업과 농업 및 문화 발전에서 더욱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예비를 찾아 낼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앙양된 근로 대중의 창발성에 지도를 따라 세우며 12월 전원 회의가 호소한 《증산과 절약》의 구호를 인민 경제의 각 분야에서 더욱 철저히 관철시키는 데 있다. 바로 여기에 금년도 계획 실행과 경제적 문제들의 해결의 중요 고리가 있다.

《증산과 절약》의 예비가 이미 남김 없이 동원되였다고 누구도 말할 수 없다. 우리들은 《증산과 절약》의 구호 밑에 근로자들과 더불어 증산 절약의 온갖 예비와 가능성들을 부단히 탐구하여 내야 한다. 우리들은 모든 인민 경제 부문에서 설비 리용률의 최대한의 제고와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 온갖 물자와 자재, 재정, 외화 특히 로력의 지출과 소비 기준에서의 절약 예비들을 탐색해 내는 데 근로자들의 주되는 주의가 돌려지도록 하여야 한다. 동시에 우리들은 인민 경제의 각 분야에서 기술 발전을 위한 방책들을 세밀히 강구하며 근로자들의 창의 고안 합리화 운동을 더욱 정력적으로 추진시키는 데 커다란 주의를 돌리는 것이 극히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들은 금년도에 증산되는 공업 생산액의 70% 이상이 새로 조업을 개시하는 공장들에 의하여 보장되느니만큼 기본 건설의 조업 개시 날자의 단축에 근로 대중의 력량을 효과적으로 동원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기본 건설의 조업 개시 기일을 단축한다면 그만치 증산의 예비를 얻어 내여 생산의 증대를 보장하게 될 것이며 그렇지 못할 때에는 커다란 증산 예비를 잃게 될 것이다. 금년도에는 또한 경공업과 화학 공업 부문을 비롯한 각 분야에서 생산되는 신 제품들의 종류가 수다한바 그것들의 품종별 생산의 보장 및 질과 규격의 보장에 특별한 관심이 돌려져야 할

것이다.

우리들은 우리 나라 인민 경제에서 제일 락후한 수매, 상품 류통 분야의 사업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켜 생산과 소비와의 련계를 결정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원쑤들은 우리의 성과를 증오하며 북반부에 파괴 암해 분자 등을 계속 잠입시키고 있는바 우리들은 항상 경각성 있게 우리의 평화적 로력과 고귀한 전취물들을 보위하는데 동원되여 있어야 한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인민 경제의 새로운 발전에 대한 거대한 전망은 우리의 힘을 한층 고무하여 주고 있다. 그러나 원쑤들은 새해에도 여전히 침울하며 그들의 전망은 쇠퇴와 몰락의 암영으로 흐려지고 있다.

희망에 찬 새해의 승리는 우리 당과 인민 대중과의 단합된 힘과 긴장된 로력 투쟁에 의하여서만 빛나게 달성될 수 있다.

이 장엄한 투쟁에서 우리들은 조선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고무자인 우리 당 대렬의 강철같은 통일과 그 주위에의 전체 인민들의 한결같은 단결을 보장함으로써 거대한 승리를 쟁취할 것이다.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 주위에의 조선 인민의 통일 단결은 그의 모든 승리의 확고한 기초이다.

새 해를 맞는 전체 인민들은 자기의 보다 광명한 래일을 약속하는 금년도 계획을 어떠한 난관이라도 능히 극복하고 기어이 완수 및 초과 완수하려는 열의로 충만되여 있다.

맑스—레닌주의의 세계사적 승리에서의 새로운 전환

리 일 경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 40주년 경축 행사와 각국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모쓰크바 회의들은 맑스—레닌주의의 위력을 시위하였으며 사회주의 력량의 통일과 단결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전 세계 근로자들과 그의 전위대들의 투쟁을 보다 높은 승리적 단계에로 발전시킴에 있어서 력사적인 전환점으로 된다.

모쓰크바에서 진행된 경축 행사는 인류 력사에서 처음으로 승리한 사회주의 10월 혁명 후 40 년간의 쏘련의 총화인 동시에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총화이며 현 국제 정세 발전에 대한 전면적인 총화이다. 40 년간의 위대한 력사를 총화한 이 경축 행사는 제국주의 이데올로그들이 맑스—레닌주의를 말살하여 보려고 온갖 중상, 비방에 골몰하며 수정주의자들이 맑스—레닌주의 명제들이 《낡았다》고 하면서 수정하려고 획책하는 이때에 맑스—레닌주의가 사회 발전 법칙을 반영한 위대한 과학이며 그가 필승 불패의 위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재삼 장엄하게 실증하였다는 데 더욱 큰 의의가 있다.

100 년 전에 맑스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의 유령이 구라파를 배회하고 있다》고 하였던 공산주의 사상은 위대한 10월 혁명에 의하여 지구의 6분의 1의 광대한 지역에서 승리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후 반 세기도 못 되는 40 년간에 근 10억의 인구를 망라한 13개 국가에서 사회주의가 건설되고 있으며 맑스—레닌주의는 구라파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절대 다수의 인민들의 심장을 파악하고 물질적 력량으로 전변되고 있다.

모쓰크바에서 진행된 경축 행사가 보여 준 바와 같이 사회주의는 합법칙성에 립각하였으므로 하여 보다 넓게, 보다 깊게, 보다 강대하게 발전하고 있으며 자본주의는 력사의 필연성에 따라 침체와 쇠퇴와 멸망의 운명에서 허덕이고 있다. 따라서 이 위대한 경축 행사는 자본주의의 멸망과 사회주의 승리의 필연성을 아직도 부인해 보려고 광분하는 제국주의자들과 맑스—레닌주의를 수정해 보려고 획책하는 수정주의자들에게 치명적 타격을 주었다.

이 경축 행사의 력사적 의의는 사회주의 제도가 자본주의 제도보다 우월하며 사회주의는 평화적인 경쟁에서 자본주의를 따라 잡으며 그를 릉가할 뿐만 아니라 종국적 승리는 사회주의 편에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 주었다는 데 있다. 쏘련의 공업 총생산량은 1913년에 비하여 1957년에는 33 배로, 그중 생산 수단 생산은 74 배로 증가하였다. 공업 생산량을 대략 30 배로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미국, 독일 및 영국과 같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80 년—150 년간이 요구되였다.

제2차 대전 후 12 년간에 사회주의 진영 제 국가들에서 공업 생산이 4 배로 증가되였다면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겨우 2 배가 증가되였을 따름이다.

자본주의 제도에 대한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은 정치, 경제 면에서만 증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 기술의 발전 면에서도 놀랍게 증시되고 있다.

쏘련은 세계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였으며 대륙간 탄도 로케트를 완성하였으며

인공 지구 위성을 발사하였고 원자 쇄빙선을 만들었다. 쏘련이 일련의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 미국을 포함한 가장 발전한 자본주의 국가들을 앞서는 돌파구를 개척하였다는 사실은 력사적 의의를 가지는 대사변이다. 이 돌파구는 바로 인민 경제의 어느 한 부분적 생산품에서가 아니라 모든 경제, 문화의 전반에 걸쳐 그의 전면적 발전의 기초인 과학 부문이라는 데 더욱 커다란 의의가 있다.

쏘련 인민이 전취한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의 위대한 성과에 아연 실색한 미 제국주의자들은 지금 《쏘련을 따라 잡으며 앞서자》는 구호를 제창하면서 아우성치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겠지만 제국주의자들은 자본주의 제도의 로후성으로 말미암아 이 가련한 《구호》가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며 헛된 《구호》를 웨치는 것으로써 그의 수치스러운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시대는 벌써 대립되는 두 개의 사회 제도의 경쟁에 있어서 사회주의 체계의 결정적 우월성의 작용에 의하여 세계 발전이 규정되며 세계 정치가 규정된다. 이리하여 우리의 시대는 미제를 괴수로 하는 자본주의의 붕괴의 시대이며 사회주의 확립의 시대이며 전 세계적 규모에서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개선 행진의 시대로 되고 있다.

세계에서 일어 나고 있는 모든 거대한 변천으로 말미암아 국제 로동 운동 및 공산주의 운동은 더욱 휘황한 승리를 전망하게 된다.

이러한 환경에서 소집된 금번 각국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모쓰크바 회의들은 실로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점으로 된다. 이 회의들에는 공산주의 운동의 력사상 일찌기 볼 수 없었던 많은 대표들 즉 64개 국가 당들의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제2차 대전 전에 구라파를 주로 하여 43개 국에서 4백 20만 당원이 활동하던 때로부터 오래지 않은 동안에 벌써 전 세계적 범위인 75개 국에서 3천 3백만 당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것은 공산주의 운동이 제2차 대전 후 사회주의가 세계적 체계로 장성된 데 기초하여 급속한 템포로, 가속도적으로 발전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있어서 특히 지적해야 할 것은 위대한 쏘련이 국내적으로나 국제적 규모에서 수행한 위대한 역할이다.

쏘련은 탄생 첫날부터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향도적 고무적 력량이였으며 제2차 대전 후 사회주의가 세계적 체계로 된 후에는 위대한 사회주의 진영의 선두에 서고 있다.

쏘련이 수행하고 있는 이 위대한 역할은 쏘련 공산당이 맑스—레닌주의 원칙들과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들에 충실하였으며 그의 실천을 위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한 것과 관련되여 있다. 쏘련은 세계사적 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10월의 새 기원을 열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자국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승리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국제적 규모에서 맑스—레닌주의의 필승 불패성을 실증하며 맑스—레닌주의 당들의 위신을 제고하며 자본주의 국가들의 로동 계급으로 하여금 필승의 신심을 확고히 함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쏘련은 그의 과학, 기술, 경제 및 군사적 위력으로 하여 오늘 세계 정치의 중심 문제인 평화 옹호 투쟁의 선두에 서서 평화를 교란하려는 제국주의 침략자들에게 부단한 타격을 가하면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형제적 국가들에게 막대한 원조를 주며 국가적 자립성을 달성한 나라들이 경제적 독립을 위하여, 사회적 진보를 위하여 투쟁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쏘련은 그의 40 년간의 위대한 경험의 축적으로 하여 사회주의 국가들과 모든 나라 근로자들에게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택하는 데 귀중한 방조를 주고 있다. 쏘련은 식민지 및 예속 국가들에서의 민족 해방 운동과의 련계를 확장하며 그 나라들의 일체 반제국주의적 력량에 백방의 지지를 주며 근로자들의 리익과 민주주의 및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 정신적 지지를 아끼지 않는다.

쏘련 공산당은 세계 공산당 및 로동당들과의 련계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평화의 옹호와 제국주의 반동에 대한 반격을 위하여 로동 운동의 력량을 결속시키면서 사회 민주당들 및 로동 조합들과의 련계를 확대하기에 진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들에 대한 쏘련 공산당의 충실성을 의미하며 최근 년간에 전 세계 로동 운동과 공산주의 운동 발전에서 쏘련이 놀고 있는 위대한 역할을 말하여 준다.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대렬은 량적으로 급속히 장성할 뿐만 아니라 위대한 쏘련을 중심으로 통일되여 있으며 위대한 사회주의 대가정은 쏘련을 선두로 하여 굳게 단결되여 있다. 이 위대한 통일과 단결은 프로레타리아트의 혁명적 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었으며 부단히 확대되는 승리의 과정은 이 위대한 통일과 단결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각국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회의들은 자기 대렬의 량적 장성과 통일 단결의 강대성만을 보여 준 것이 아니다. 회의들은 맑스—레닌주의의 공통적 합법칙성들을 다시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이 원칙들의 창조적 적용을 위하여 집체적 지혜의 현명성을 발휘하였다는 데 더욱 큰 의의가 있다. 이 회의들에서 작성된 문헌들인 모쓰크바 선언들은 김 일성 동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국제 로동 운동과 사회주의 건설 경험을 일반화하고 현 국제 정세를 분석함으로써 각국 당들의 강령적 과업을 천명한, 참으로 력사적인 문헌들이다. 따라서 이 문헌들을 심오히 연구하는 것은 조선 로동당원들에게 부과된 당적 임무이며 그것은 곧 우리 당의 승리적 활동의 힘 있는 원천으로 되는 것이다.

모쓰크바 선언은 《현 정세하에서 사회주의 제 국가와 모든 나라의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통일과 형제적 협조를 강화하는 것과 국제 로동 운동, 민족 해방 운동 및 민주주의 운동을 단합시키는 것이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지적하였다. 계속하여 이러한 통일과 협조와 단합이 생활에 의하여 검열된 맑스—레닌주의 원칙들과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원칙들에 기초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회주의 제 국가들 간의 형제적 관계와 친선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맑스—레닌주의적 국제주의적 정책이 필요하며 국제주의를 애국주의와 결합시키는 정신에서 전체 근로자들을 교양함이 필요하며 부르죠아 민족주의와 배타주의의 잔재를 극복하기 위한 결정적인 투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우리 나라에 조성된 현 정세와 관련하여 이 문제에 대한 옳바른 교양은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공화국 남반부를 강점하고 있는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의 이데올로그들이 총동원되여 한사코 꼬쓰모뽈리찌즘을 설교하면서 위대한 사회주의 진영의 단결된 대가정을 비방 중상하게에 광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더욱 그러하다.

모쓰크바 선언은 우리의 통일과 협조와 단합의 기초를 이루는 맑스—레닌주의의 정당성과 그의 필승 불패의 생활력을 엄숙히 재삼 확증하였으며 따라서 꼬쓰모뽈리찌즘의 기치하에 《반쏘 반공》을 고창하면서 부르죠아 민족주의, 배타주의, 미제에 대한 굴종 등을 설교하는 온갖 반맑스—레닌주의적 제국주의 이데올로그들과 또는 그러한 잔재들에게 결정적 타격을 주었다.

사회주의 진영 제 국가들과 모든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호상 관계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들이다.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이는 맑스—레닌주의에 기초한 전 세계 로동 계급을 비롯한 피압박, 피착취 대중의 해방을 위한 공동 투쟁의 무기로서의 친선 단결의 사상인바 오늘 사회주의 진영 제 인민들 간에는 그것이 형제적 호상 원조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기초한 사회주의 진영 대가정의 단결이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호상 관계에서 매개 나라들의 자주성과 주권의 존중을 무시함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반대로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1956년 10월 30일부 쏘련 정부의 성명, 1956년 11월 1일부 중국 정부의 성명, 그리고 금번 모쓰크바 선언들에서 재천명된 바와 같이 사회주의 국가들은 완전한 평등, 령토 완정과 국가적 자주성과 주권의 존중, 호상간의 내정 불간섭의 제 원칙에 립각하여 자기들의 호상 관계들을 수립하고 있다.

우리들은 우리 나라의 수천 년래의 력사를

통하여 오늘의 독립된 조국—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처럼 당당한 독립국의 자격으로 국제 무대에 진출한 전례를 알지 못하고 있으며 오늘과 같이 독립된 나라의 인민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떳떳이 살며 호상 원조하는 대가정에서 살아 본적이 없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자본주의 세계에는 이와 같은 국제 관계가 없으며 또 그의 략탈적 본질로 말미암아 있을 수도 없다. 그들에게는 《약육 강식》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으며 《인간은 인간에 대하여 승냥이》라는 자본주의 철학이 지배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이 말하는 《원조》는 그의 침략적 대외 정책의 표현이다. 력사는 제국주의자들의 《원조》가 미치는 어떤 나라, 어떤 지역을 막론하고 거기에서는 민족 경제의 전면적인 파탄과 기아와 실업의 증대, 테로와 탄압에 의한 인민 대중의 공포가 전 사회를 휩쓸며 정치, 경제, 문화 및 군사적 모든 분야에 걸쳐 제국주의자들의 지배가 수립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우리 조국 남반부의 오늘의 참상은 바로 그 실증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오늘 근로자들 속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정책과 그의 반동적 이데올로기를 부단히 폭로하는 것은 중요한 과업이다. 이와 함께 우리는 천추에 용납 못할 매국노인 리 승만 역도들이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 정책과 코쓰모뽈리찌즘의 선전에 영합하여 매국 배족을 설교하는 반동 선전의 본질을 폭로 분쇄하여야 한다. 남조선에서 떠들고 있는 리 승만 역도들의 매국적 설교도 개체의 영달을 위해서는 조국도 서슴치 않고 팔아 먹으며 민족을 배반하는 탐욕 탐위 분자들이나, 미국은 《대국》이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서 비굴하게 무릎을 꿇고 《성경》을 중얼거리면서 미제 침략자들의 탁찌꺼기를 얻어 먹는 것을 《큰 행복》으로 아는 분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복음》처럼 매력을 가진다. 물론 이러한 반동 선전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한줌도 못 되는 소수이기는 하나 그들은 이러한 자들을 규합하면서 조국의 통일을 방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반동 선전을 위하여 모든 수단들을 총동원하고 있으니 만큼 이는 우리에게 어떠한 형태로나 침습되지 않으리라고 단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오늘 《조국》이니 《동포》니 《애국》이니 하는 구호를 도용하면서 《강자》에게 먹히우는 《행복》을 설교하는 리 승만 역도들의 반동 선전의 본질을 폭로 분쇄하는 문제는 우리 나라의 근로자들 속에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립각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교양을 위하여 결정적 의의를 가진다.

이와 함께 우리는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들을 외곡 수정하려는 경향들과도 투쟁하여야 한다.

현대의 수정주의자들은 마치 사회주의 국가들 간에 그 어떤 《불평등》이 있다는 듯이 묘사하면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가 《현 조건하에서 적합치 않으며》 국제주의를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공존》으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괴상 망칙한 론거를 들고 나오고 있다.

현 시기에 있어서 이 모든 사상적 독소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계급 의식을 제고하며 사회주의 진영 제 국가들과 모든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단결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모쓰크바 선언은 맑스—레닌주의의 공통적 합법칙성들을 명시하면서 수정주의와 교조주의는 용납되여서는 안될 혁명에 해로운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모쓰크바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한 천명은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맑스—레닌주의 기본 원칙들을 수정, 외곡하려는 수정주의자들에 대한, 또는 사회주의 진영을 반대하는 투쟁에 있어서 이들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강력한 타격으로 되기 때문이다.

모쓰크바 선언은 《생활의 경험에 의하여 검열된 사회주의 건설의 합법칙성의 창조적 적용과 각국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각이한 형태와 방법은 맑스—레닌주의 리론에 대한 집체적 공헌으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이것은 맑스—레닌주의의 리론적 기초가 변증법적 유물론이므로 맑스—레닌주의의 공통적 합법칙성이 각국의 구체적인 력사적 조건에 창조적으로 적용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것은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수정과는 아무런 공통성도 없다.

과거의 수정주의도 그러했거니와 현대 수정주의는 우선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있어서 첨예한 계급 투쟁의 불가피성에 관한 레닌의 학설을 무시하면서 정치와 사상 분야에서 반사회주의적 력량앞에 굴복하며 허위적인 부르죠아 민족주의를 선전하며 사회주의 제도와 그 성과를 비방, 모욕하며 프로레타리아 독재와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지도적 역할에 대한 청산주의적 태도에서 나타나고 있다.

김 일성 동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국제적으로 대두한 이러한 수정주의가 우리 나라에서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

8월 전원 회의에서 폭로된 반당 종파 분자들인 최 창익, 박 창옥, 윤 공흠, 서 휘, 리 필규, 리 상조, 김 승화 등은 자기들의 반당 종파 음모를 음폐하며 근로자들 속에서 또는 일부 락후한 당원들 속에서 자기들에 대한 환상을 조성할 목적으로 일련의 수정주의적 《구호》들을 들고 반당, 반혁명 행동을 감행하였다.

이 반당 종파 분자들은 자기들의 해독적인 사상적 《무기》의 예봉을 우선 계급 투쟁의 말살에 돌렸다. 이에 있어서 그들은 혁명적 독재의 무기인 우리의 사법 기관 및 단속 기관 내의 일부 견실치 못한 일'군들에게 자기들의 영향을 침투시키며 국가의 법 질서를 고의적으로 위반하여 반혁명 분자들과 반국가적 범죄자들을 비법적으로 《무죄》 석방하게 하였다.

반당·종파 분자들은 이러한 저주로운 행동을 감행하면서 일방으로는 독재의 무기를 무디게 하고 타방으로는 《준법성의 위반》의 《재료》를 날조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석방된 자들은 도처에서 분초를 다투면서 반혁명 활동을 감행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인민 대중들 속에서 그러한 현상들을 보고 《우리 나라에서는 법이 무르다》는 정당한 항의가 제기되여 석방된 자들은 다시 인민 재판에 넘어 가지 않을 수 없게 되였다.

뿐만 아니라 반당 종파 분자들은 로농 동맹에 기초한 통일 전선 강화에 대한 당의 정책을 파탄시키기 위하여 과거 엄중한 반국가적 범죄를 범하였던자들, 과거의 토호 렬신들, 기타 불건전한 분자들을 소위 《유지》요, 《믿을만한 계층》이라 하면서 이들을 추켜 세우면서 우리 당과 혁명의 기본 군중들을 억제하였으며 지어 이들은 《리 승만을 증오하지 말며 욕하지 말라》고 하면서 투항주의를 로골적으로 설교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이 반당 종파 분자들이 얼마나 맑스—레닌주의 원칙을 배반한 길을 걸었는가 하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최 창익, 박 창옥 등 반당 종파 분자들은 자기들의 반당적 시도에 있어서 당 건설의 레닌적 원칙들, 우선 무엇보다도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 원칙을 거부해 나섰다. 제3차 당 대회에서 그들도 포함한 전 당 대표들이 만장 일치로 채택한 결정을 그 후 두달도 안되여 반대하며, 《종파의 유익성》을 떠들며 당은 어떠한 종파도 용납하지 않는 의지의 통일체라는 레닌적 조직 원칙을 파괴하려는 그들의 행동이 바로 그것이다. 그들은 소위 《민주주의 확대》의 《구호》를 들고 당의 통일과 단결을 훼방하며 부르죠아 민주주의를 주장하여 나섰다.

이들은 당은 로동 계급의 계급적 조직의 최고 형태이며 지도적 향도적 력량이란 맑스—레닌주의 학설을 반대하면서 직업 동맹을 당의 우에 올려 세울려고 시도하였다. 《당과 인민 정권과 직맹의 3각 관계》이니 《직맹은 당보다 더 많은 맹원을 망라하고 있으므로 그 권위는 더 큰 것》이니 하는 소위 《리론》으로 당의 지도적 역할, 당과 직맹 및 기타 대중 단체의 호상 관계에 대한 맑스—레닌주의 학설을 수정하려 하였다. 그들의 이러한 구호는 한 때 무정부주의 쌴지카리스트들에 의하여 제창되였으며 오래 전에 벌써 혁명적 맑스—레닌주의자들에 의하여 규탄되여 쓰레기통에 들어 간 오물인 것이다.

이 반당 종파 분자들은 대중 속에서 당의 높은 위신과 신임을 헐어 보려고 우리 나라에서 이미 달성한 혁혁한 성과들과 나아가서는 사

회주의를 비방하여 나섰던 것이다. 이에 있어서도 이들은 특히 우리 당의 경제 정책—중공업의 우선적 발전 정책을 비방 중상하였다.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과 경공업과 농업의 동시적 발전을 보장할 데 대한 우리 당 경제 정책의 결과에 달성된 경탄할 만한 성과들은 반당 종파 분자들의 비방 중상이 얼마나 후안 무치한 것인가를 잘 반박해 주고 있다.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을 보장하는 조건하에서 경공업과 농업의 동시적 발전에 대한 우리 당의 경제 정책의 결과에 농촌 경리는 전후 짧은 기간에 협동화를 성과적으로 완성하고 있으며 류례 없는 농산물의 증산을 달성하였으며 경공업 특히 방직 공업은 해방 당시에 비하여 66 배로 장성하였으며 주택 건설은 전후 년간에 국가 투자에 의한 것만도 550만 여 평방메터에 달하고 있으며 인민 생활은 일층 향상되였다. 이러한 놀라운 성과들은 오직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을 보장함으로써만 가능하였다.

반당 종파 분자들이 들고 나온 이와 같은 모든 《구호》들은 그것이 국제 수정주의자들의 목소리와 너무나도 류사하지 않는가.

반당 종파 분자들이 일부 불건실한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자기들에 대한 환상을 조성하며 당을 반대하기 위하여 들고 나섰던 《구호》가 수정주의였다는 거기에만 엄중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을 반대하여 범한 그들의 반당적 죄악이 더욱 엄중한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반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배타적 민족주의자들까지 함께 춤추게 하였으며 심지어 적대적 요소들과까지 결탁하거나 또 그들에게 리용 당하는 참을 수 없는 비계급적 현상까지 발로시켰다.

당 중앙 위원회 8월 전원 회의를 전후하여 폭로 비판된 반당 종파 분자들 중에는 반당, 반혁명 행위를 의식적으로 조직한 반혁명 분자들도 있고, 가족주의, 동향, 동창, 한작장에서 같이 일하고 한감옥에 같이 있었던 것 등등에 사로 잡혀 종파에 인입된 자도 있고, 탐위주의, 영웅주의, 출세주의로 인하여 《한자리》 받기로 하고 인입된 종파 잔재가 골수에 꽉 백인 자들도 있고, 맑스—레닌주의 원칙들과 당의 정책들을 깊이 연구하지 못했던 관계로 반당 종파 분자들이 던진 《구호》를 분석할 능력이 없어서 《일리》가 있다고 하면서 그들의 《구호》에 매혹 당하였던 자들도 있으며, 일방으로는 당성 단련이 부족하여 자본주의 잔재를 완전히 극복 못 하고 타방으로는 반당 종파 분자들이 고창하던 《국제 사조》병에 걸려서 풍선처럼 동요하던 자들도 있는 것이다. 이러하였던 사실들은 우리의 사상 사업 앞에 많은 과업들을 제기하는 것이다.

우리 당은 항상 모든 문제를 고찰함에 있어서 변증법과 유물론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결국 일면성과 주관주의에 빠지며 사물의 현상에 대하여 옳게 분석할 능력을 상실하며 수정주의 또는 교조주의를 범하게 된다는 데로부터 출발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변증법적 유물론의 정신으로 교양하며 당이 매 계단에 제기한 구체적 정책들을 심오하게 연구하며 그를 실천함에 있어서 조성된 현실에 적응하여 해당한 방법과 형태가 취하여져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하고 있다.

모쓰크바 회의 선언은 맑스—레닌주의 원칙과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들을 고수하기 위해서는 교조주의와도 투쟁하여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레닌이 루차 지적한 바와 같이 공산주의의 기본 원칙들은 소여의 민족, 소여의 민족 국가의 특수성에 적응하여 창조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다른 나라 공산당들의 정책과 전술이 기계적으로 모방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때 우리 당 사상 사업 분야에서는 교조주의가 존재하였으므로 하여 제3차 당 대회는 그것을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과업을 제기하였다.

우리 당 사상 사업 분야에 끼친 교조주의, 형식주의적 해독은 반당 종파 분자 박 창옥의 이름과 많이 관련되여 있다.

박 창옥은 조국의 력사, 문화, 인민들의 정치, 경제, 문화적면 등의 발전 정도, 그들의 생활 풍습 등을 잘 알지도 못 하면서 연구도 하지 않으며 동지들과 진지한 사업 토의도 잘

하지 않으며, 자기가 이미 소유하였던 얼마 안되는 지식을 굉장한 것으로 떠벌리면서 결론을 경솔히 하는 등 방약 무인격으로, 독선적으로, 관료주의적으로 당 사상 사업을 지도하였던 것이다. 그는 자기가 아는 것은 《옳고》 모르는 것은 연구해 보려고도 하지 않고 《옳지 않다》는 태도를 취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나라 실정에 부합 여부를 고려함이 없이 남의 것을 함부로 모방하는 것이였다. 그리하여 그것이 우리의 사상 사업에서 엄중한 후과를 가져 오게 하였다.

교조주의는 우리의 력사, 과학, 문화, 예술 발전에서와 당 교양망 운영에 손실을 끼쳤으며 특히 엄중한 것은 남의 것은 다 옳고 자기의 것은 무엇이나 보잘것 없다는 사상 경향을 조장함으로써 인민들의 민족적 긍지를 제고함에 저애를 준 그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는 과거 조선의 봉건 통치자들도 민족적 긍지를 높이는 방향에서 우리 인민들을 교양하지 않았고 또 20세기 초엽에 이르러서는 우리 나라가 일제에게 침략 당하여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말미암아 민족적 긍지가 높이 교양될 환경을 가지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력사적 조건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의 일부 인민들 속에는 남의 것은 다 좋고 우리 것은 보잘것 없다는 낡은 사상 잔재가 없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이 항상 강조하는 바와 같이 인민들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한 사상 교양은 지극히 중대한 과업의 하나로 제기되였으며 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 형제 당들의 경험을 연구하며 거기에서 배워야 하는바 이에 있어서 그 경험들이 어떠한 력사적 발전 단계와 구체적인 사회 계급적 관계에서 창조되였으며 그를 적용할 구체적인 실정은 어떠한가에 대하여 심중한 주의를 돌리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모쓰크바 선언이 지적한 바와 같이 교조주의를 반대한다고 하면서 민족적 특수성의 역할을 과대 평가하며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 관한 맑스—레닌주의의 보편적 진리로부터 물러 서는 것은 역시 사회주의 위업에 불피코 손실을 주게 되는 것이다.

맑스—레닌주의의 공통적 합법칙성은 모든 나라의 력사적 조건에서 의무적으로 적용되여야 하며 반복되여야 할 일반적 원칙인 것이다.

그러한 공통적 합법칙성들은 즉 이런 또는 저런 형태의 프로레타리아 혁명을 진행하며 이런 또는 저런 형태의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수립함에 있어서 맑스—레닌주의 당을 그 핵심으로 하는 로동 계급에 의한 근로 대중에 대한 령도, 농민 대중 및 기타 근로자층들과의 로동 계급의 동맹, 자본주의적 소유의 청산과 기본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의 수립, 농촌 경리의 점차적인 사회주의적 개조,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건설과 근로자들의 생활 수준의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인민 경제의 계획적 발전, 사상 및 문화 분야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의 수행, 로동 계급과 근로 인민과 사회주의 위업에 충직한 많은 인테리의 육성, 민족적 억압의 청산, 제 인민간의 평등과 형제적 친선의 수립, 국내외 원쑤들의 파괴 음모로부터의 사회주의 전취물의 수호, 소여의 나라 로동 계급과 다른 나라 로동 계급과의 련대성, 즉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등이다.

바로 이러한 맑스—레닌주의의 공통적 합법칙성들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그것을 자기 나라의 구체적인 력사적 조건에 적응하게 창조적으로 적용하는 데 맑스—레닌주의 당의 집체적 령도의 현명성이 있는 것에다.

우리 당은 창건 첫날부터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칙에 충실하였으며, 혁명을 령도하면서 걸어 온 우리 당의 전 력사는 우리 나라의 구체적 현실에 대한 맑스—레닌주의의 보편적 진리의 창조적 적용을 위한 투쟁으로 일관되였으며 되고 있다.

누구나 맑스—레닌주의의 이 일반적 원칙으로부터 리탈한다면 그는 기필코 수정주의 또는 교조주의를 범하게 될 것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 집행에서 오유를 면치 못 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특히 간부들 속에서 맑스—레닌주의의 공통적 합법칙성을 심오하게 학습하도록 하는 것은

현 시기 사상 사업에 있어서 제1차적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모쓰크바 회의에서 작성한 평화 선언은 평화적 공존을 위한 투쟁은 오늘날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가장 광범한 대중의 요구이며 모든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제1차적 과업》이라고 지적하면서 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일체 력량을 단합할 것을 호소하였다. 선언은 공산주의자들이야말로 평화의 진정한 기수라는 것을 다시한번 전 세계에 똑똑히 보여 주었다. 평화——이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숙망이며 한결같은 념원이다.

그러나 과거에는 공산주의자들이 이 념원을 실현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전쟁을 방지하며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물질적 력량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오늘의 형편은 벌써 과거와 같지 않다.

지금에 와서 평화——이것은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함부로 교란되는 것이 아니며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확보되고 수호되고 있다.

현 시기 조선에서의 평화를 고수하며 우리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시킬 데 대한 우리 당의 시종일관한 로선을 실천하기 위한 투쟁은 곧 모쓰크바 선언들의 정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으로 된다.

조선에서의 평화의 유지와 평화적 통일의 실현은 조선 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이며 그들의 사활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아세아와 나아가서는 전 세계에서의 평화의 유지 공고화에 중요한 기여로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조선에서의 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키며 모든 외국 군대를 철거하게 하고 긴장 상태를 완화하며 남북의 군대를 각각 10만 또는 그 이하로 축소시키며 남조선에서도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며 호상 래왕, 호상 접촉하며 조선 문제를 어떠한 외국의 간섭도 없이 민주주의적 기초 우에서 조선 인민 자신이 자기의 의사에 따라 자기 손으로 해결할 데 대한 일관한 로선을 견지하고 있다.

조선에서의 평화 유지와 우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투쟁이 없이 달성될 수는 없는 것이다. 조국의 남반부를 미 제국주의자들이 강점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조국 통일을 위한 우리의 투쟁이 간고성과 장기성과 복잡성을 띠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기다릴 것이 아니라 투쟁으로써 쟁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 시기에 있어서 우리 혁명 수행의 강력한 물질적 정신적 담보로 되는 우리 당의 통일 단결과 북반부의 민주 기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그들을 열렬한 계급 투쟁의 투사로, 로동 계급을 핵심으로 하여 평화적 통일을 념원하는 일체 반제 반봉건적 력량을 단결하는 정신으로, 민주 기지의 정치적, 경제적 기초를 강화하는 정신으로, 사회주의 전취물들을 고수하는 정신으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충실한 전사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자로 교양하는 것은 사상 전선의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 일성 동지는 당 중앙 위원회 확대 전원 회의에서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교양 사업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는 우리 근로 인민이 투쟁에서 쟁취한 사회주의적 전취물들,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를 무엇보다도 사랑하며 소중하게 지키며 온갖 종류의 착취와 압박을 반대하여 투쟁한다. 우리는 우리 나라의 과거와 현재의 모든 진보적인 것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우리 나라의 아름답고 훌륭한 모든 것이 인민의 소유로 되고 인민의 행복한 생활에 복무되도록 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우리는 사회주의 진영의 대가정 속에서 형제 국가 인민들과 국제주의적 친선 단결을 강화하면서 번영하고 있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 인민이 주인으로 되고 있는 자기 조국을 사랑한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이다》.

모쓰크바 선언들이 제기한 거대한 력사적 의의를 가지는 모든 중요한 문제들은 우리 당의 지도하에 우리 나라에 있어서도 성과적으로 수행되리라는 것은 명백하다. 우리 당은 이미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온갖 기회주의, 종파주의와 비타협적 투쟁으로써 자기 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확고히 보장하고 있으며 그 본질에 있어서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인 인민 민주주의 독재를 강화하고 인민 경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키면서 농업 협동화를 승리적으로 완성하고 있으며 사상 및 문화 분야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쏘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대가정의 일원으로서 당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세계를 개조하는 진보적 인류의 위업의 일부를 감당하고 그를 영예롭게 수행》(김 일성)하였으며 하고 있다.

우리 당은 쏘련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사회주의 진영과 세계 평화 애호 력량의 지지 성원에 튼튼히 의거하며 북반부의 사회주의 력량과 남조선의 모든 애국적 력량을 단합하여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동원함으로써 반드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할 것이다. 금번 모쓰크바에서 진행된 10월 혁명 40주년 경축 행사와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회의들과 그의 선언들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우리의 위업의 승리에 대한 새로운 고무적 힘으로 되고 있다.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모쓰크바 회의는 이 당들 간의 호상 경험 교환과 단결의 강화에 있어서 새로운 형태로 된다.

사회주의와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더욱 풍부하고 새로운 경험들이 축적되고 당들 간에 그 경험을 수시로 호상 교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시기, 제국주의 반동 세력과 수정주의자들이 사회주의 력량을 분렬시키려고 어리석은 획책을 다하고 있는 시기에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그와 같은 회의들은 평화와 사회주의 리익에 절실히 부합되며 극히 유익한 것으로 되였으며 되고 있다.

금번 모쓰크바에서 진행된 10월 혁명 40주년 경축 행사와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회의들은 맑스—레닌주의의 위대한 세계사적 승리의 시위이며 그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로동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모쓰크바 회의들과 그 문헌들을 절대 지지, 연구하며 맑스—레닌주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한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더욱 튼튼히 단결하여 자기의 위업의 승리에로 더욱 자신 있게 전진하고 있다.

최근의 정세 발전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투쟁

홍 중 식

조국 해방 전쟁이 우리 인민의 력사적 승리로써 끝난 이후 우리 당은 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화시킬 가능성을 확신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더욱 강력하게 주장하여 왔으며 전체 인민들과 함께 이를 위하여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오늘날 국내 국외의 모든 정세의 발전은 우리 당의 평화적 조국 통일 방책의 정확성을 증명해 주고 있으며 그 실현의 가능성을 더욱 확고히 하여 주고 있다.

쏘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 인민들을 위해서는 물론, 전 세계 인민들을 위해서도 거대한 력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 쏘련 공산당 제20차 대회는 객관적으로 조성된 당시의 세계 정세에 기초하여 전쟁 방지의 가능성을 선포하였으며 두 제도간의 평화적 공존을 더욱 소리 높이 주장하였던 것이다. 력사적인 우리 당 제3차 대회는 쏘련 공산당 제20차 대회의 정신에 확고히 서서 우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방침을 더욱 힘차게 천명하였으며 그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명확히 제시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미 제국주의자들과 전 세계 제국주의 침략 계층들은 평화적 공존을 접수하려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쏘련과 공산주의와 전체 사회주의 진영을 반대하는 발광적인 깜빠니야를 전개하였었다. 그들은 애급에 대한 강도적인 침략 전쟁을 개시하였으며 웽그리야에서 반혁명 폭동을 조작하였다. 국제 공산주의 운동 내부에서는 우경 기회주의적, 수정주의적 분자들이 머리를 추켜 들고 제국주의자들의 물방아에 물을 대여 주었다.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은 우리 나라에서 부단히 긴장 상태를 조성하려고 시도하였으며 지어는 북반부에서까지도 웽그리야에서와 같은 폭동을 조작하려 하였으며 정전 협정을 란폭하게 위반하고 남조선에 신형 무기들을 반입하며 소위 유엔군 사령부를 서울로 끌어 들이는 등 소동을 일으켰다. 바로 이러한 때에 또 최창익을 비롯한 당내의 종파 분자들은 자기들의 추악한 종파적 야욕을 위하여 반당적 반국가적 책동을 감행하였다. 미제 침략자들은 애급에서도 실패하고 웽그리야에서도 실패하자 다음은 씨리아에 대하여 터문없는 압박을 가하면서 중근동에서 전쟁을 도발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제국주의 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이 모든 책동은 결과로서 무엇을 보여 주었는가? 애급에 대한 침략 전쟁은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의 한결같은 지지를 받는 애급 인민들의 견결한 항전과 쏘련의 단호한 경고 앞에서 좌절되고 영불의 보잘것 없는 《위신》은 더욱 진흙탕에 떨어지고 말았으며 웽그리야에서의 원쑤들의 도발은 쏘련 군대의 형제적 원조를 받은 웽그리야 인민의 애국적 력량에 의하여 분쇄되고 말았으며 씨리아에 대한 《아이젠하워주의》는 역시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의 지원을 받는 씨리아 인민들과 쏘련의 단호한 태도에 부닥쳐 수치스럽게 파탄되고 말았다.

이 모든 사태 발전은 전쟁 방지의 가능성에 관한 쏘련 공산당 20차 대회의 명제가 정확하였다는 것을 립증하고 있다.

단합된 사회주의와 평화의 력량, 민족 해방 투쟁 력량은 쏘련에서 대륙간 탄도 로케트와 인공 지구 위성들이 출현하기 이전에도 이미 애급에서의 전쟁을 능히 정지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하물며 오늘날에는 조건이 더욱 결정적으로 달라졌다. 쏘련에서는 대륙간 탄도 로케트가 나타났으며 인공 지구 위성들이 성과적으로 발사되였다. 반 톤이 넘는 쏘련의 인공 위성이 쏘베트 과학 기술과 사회주의의 위력을 전 세계에 시위하면서 몇달째 지구를 돌고 있는데 1.5 키로그람의 미국의 《뱅가드》는 제자리에 떨어져 폭발하고 말았다. 오늘날 대륙간 탄도탄을 막을 수단이란 없다.

쏘련에서의 로케트 무기와 이에 따르는 새로운 군사 기술의 발전은 폭격기들을 무용지물로 만들었으며 쏘련을 포위하고 있다고 떠드는 세계 도처에서의 미국의 군사 기지들과 미국의 세계 전략 계획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것은 물론 쏘련의 과학 기술, 군사 기술의 우월성만을 말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또한 쏘련의 사회주의적 공업, 사회주의적 경제의 위력도 말해 주고 있다. 이러한 쏘련의 물질적, 군사 기술적 우세가 갑자기 조성된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쏘련의 탄도 로케트와 인공 지구 위성이 세상에 알려지기 전에는 미국은 자기들이 쏘련으로써는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과학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는 바로 그 미국이 쏘련의 과학 기술을 따라 잡자는 구호를 내세우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이것은 망상이다.

오늘 쏘련을 선두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이 세계 정세 발전에서의 결정적 요인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게 되였다.

최근 국제 무대에서의 력량 관계의 결정적 변동은 비단 군사 기술적, 물질적 령역에서뿐만 아니라 그만 못지 않게 사상—정치적 령역에서도 일어 났다. 인류 력사에서 새 기원을 열어 놓은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 40주년을 기념하는 쏘련 최고 쏘베트의 경축 식전과 이를 계기로 한 세계의 공산당, 로동당 대표들의 모쓰크바 회의는 국제 공산주의 운동 및 세계 혁명 발전의 력사에서의 거대한 사변으로 되였다. 3,300만 당원들을 가진 전 세계 75개국 공산당, 로동당들 중 64개 당들의 대표가 참가한 이 식전과 회의들, 특히 12개 사회주의 국가 공산당, 로동당 대표들의 회의 및 이 회의들에서 채택된 선언들은 전 세계 사회주의 력량의 위대한 단결을 유감 없이 시위하였으며 세계 평화와 사회주의의 위업을 위하여 더욱 통일 단결하며 일치하게 투쟁할 공동의 결의를 천명하였다. 이것은 공산주의 운동의 력사, 인류의 력사에서 일찌기 없었던 일이다.

오늘 세계는 10월 혁명 이후 우리 시대의 기본 내용으로 되는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에 있어서 사회주의가 결정적으로 승리하는 위대한 력사적 전환의 시기에 처해 있다.

《국제 정세의 근본적인 전환은 우리 나라 정세에도 반영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여 주고 있다》(김 일성《모쓰크바에서 진행된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 40주년 경축 행사와 각국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 회의들에 참가한 우리 당 및 정부 대표단의 사업에 관하여》).

오늘 국제적 령역에서의 전쟁 방지의 확고한 가능성은 우리 나라에서의 적들의 전쟁 재도발 방지의 가능성으로도 되며 세계에서의 사회주의와 평화 력량의 결정적 우세는 우리 조국의 평화적 통일 달성을 위한 믿음직한 담보로 되고 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우리 당의 방침의 정확성은 이것으로써도 립증된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나라 내부에서의 정세 발전이다.

력사적인 우리 당 제3차 대회 이후 특히 당 중앙 위원회 12월 전원 회의 이후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경제 및 정치 생활에서 미증유의

앙양과 전변이 일어났으며 또 일어나고 있다. 《우리 나라 현 정세의 특징은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사회주의 력량이 급속히 장성 강화되는 반면에 남조선에서는 미제 침략자들의 식민지 통치가 파탄되여 가며 미제와 광범한 인민 대중과의 모순이 날로 격화되고 있는 그것이다》(김 일성, 동상).

전후 3개년 계획의 성과적 수행의 결과로 전쟁전 1949년에 비하여 1956년 말에는 우리 나라 공업 생산은 1.8 배, 알곡 생산은 108%로 장성되였고 협동 경리에 망라된 농호수는 전체 농호수의 80.9%, 수리 안전답은 전체 논면적의 74%였다. 그런데 12월 전원 회의 결정 집행을 위한 미증유의 긴장되고 앙양된 투쟁의 1 년이 경과한 오늘날에 와서는 공업 생산액은 전년에 비하여 근 40%라는 경이적 장성 템포로써 1949년 수준을 2.8 배로 릉가하였으며 알곡 생산은 작년의 287만 톤으로부터 실로 320 여 만 톤으로 비약적 장성을 보여 주었다. 또 이 1년 동안에 협동 조합에 망라된 농호수는 80.9%로부터 90% 이상으로 장성하였으며 현재 수리 안전답은 총논면적의 76%에 달한다. 오늘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는 이미 결정적으로 승리하였다. 오늘 우리의 사회주의적 농업은 나라의 식량 수요를 기본적으로 충족시키고 있다. 3개년 계획의 성과적 완수의 결과로서 기본적으로 구축된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는 오늘날 더욱 튼튼히 되였는바 공업은 식민지적 편파성을 현저히 퇴치하고 현저한 정도로 새로운 선진 기술로 장비되였으며 이리하여 우리 나라 인민 경제에서 다량으로 요구되는 중 소 기계 설비들과 각종 부속품들을 생산 공급할 수 있게 되였다.

우리 나라는 바야흐로 농업국으로부터 공업국으로의 력사적인 전환의 과정에 처해 있다. 공화국 북반부 혁명의 기지는 조국의 통일 독립 완수를 위한 강력한 물질적 담보로 되여 있으며 또 통일 후에는 남반부의 인민 경제 복구 건설과 인민 생활의 급속한 개선 향상을 위한 위력한 물질적 토대로 될 것이다.

거대한 전변은 경제적, 물질적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사상적 분야에서도 일어났다. 농업의 협동화가 기본적으로 완성되였다는 이 사실은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거대한 획기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우리 인민 주권은 오늘 도시에서나 농촌에서나 확고한 사회주의적 토대 우에 서게 되였으며 로농 동맹은 사회주의적 두 계급간의 경제적 및 정치—사상적으로 훨씬 강화된 동맹으로 장성되였다. 당과 정부와 인민 대중과의 련계는 특히 12월 전원 회의 결정 실천을 위한 투쟁 행정에서 가일층 긴밀하게 되였으며 당 정책의 정당성과 정확성은 더욱 명백히 증시되였으며 그에 대한 인민 대중의 신뢰와 지지는 더 한층 확고히 되였으며 새 사회의 건설자로서의 우리 인민의 민족적 자부심은 더 한층 제고되였다. 자기들의 탐위주의적 목적을 위하여 우리 당 정책을 비방 중상하고 당과 대중과의 사이에 간격을 조성하려던 반당 종파 분자들의 죄악은 지나간 1 년 동안 당 정책의 관철을 위한 근로 대중의 비상한 로력적 정치적 앙양 속에서 더욱 철저히 폭로되고 우리 당 대렬의 통일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되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 주위에 철옹성같이 단결되여 있으며 로농 동맹을 핵심으로 하는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은 불패의 력량을 이루고 있다. 이 통일 단결의 위력은 지나간 최고 인민 회의 선거 및 지방 주권 기관 선거들에서, 그리고 상술한바 사회주의 건설의 혁혁한 성과들에서 명백히 표현되고 있다. 공화국 북반부 인민들에게는 지금 미증유의 보람찬 로력과 희망에 넘치는 행복한 생활이 전개되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북반부 인민들은 이와 같은 성과와 보람찬 생활을 아직도 남반부 동포들과 나누지 못하고 있다. 위대한 쏘련 군대에 의하여 한날 한시에 해방된 우리 겨레가 남북으로 분리된지 이미 12 성상이 지나갔건만 겨레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남반부 인민들은 아직도 일제 통치하에서 보다도 몇배나 심한 학대와 기아와 무권리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미제 강점자들의 식민지 략탈 정책과 전쟁 준비 정책, 리 승만 역도들의 매국 정책은 남조선 경제를 혹심한 파탄 상태에 몰아 넣고 있으며 경제의 군사화와 인민에 대한 략탈과 폭압은 날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

민족 산업은 파멸의 일로를 걷고 있는바 금년 초에 종업원 200 명 이하의 중 소 기업체 수는 1955년 말에 비하여 1,200 여 개나 감소되였으며 남아 있는 기업소들도 약 80%가 휴업 또는 조업 단축의 상태에 빠졌다. 알곡 생산은 일제 말기에 비하여 근 30%나 감소되였다. 일제 시기에는 북조선에 비하여 2 배나 더 많은 알곡을 생산하던 남반부가 오늘날에는 알곡 생산이 북반부와 거의 동일한 형편에 이르렀다.

금년 5월에 남조선의 소매 물가 지수는 해방 직전인 1945년 6월에 비하여 약 4만 3천 배에 달하였고 1954년에 비해서도 2.7 배로 높아졌다. 현재 남조선 로동자들의 실질 임금은 일제하의 기아 임금 수준에 비해서도 3분의 2 밖에 안된다. 실업자는 계속 증가하여 1956년 말에는 완전 실업자만 하여도 113만 여 명에 달하며 반 실업자 수는 수백만에 달하니 상술한바 량곡 생산 형편을 고려한다면 남반부 인민들의 대다수가 기아 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조선 청년 장정들은 대량적으로 괴뢰군에 강제로 징소집되고 있는바 병역 기피자들 중에서 괴뢰 경찰이 잡지 못하고 숨어 다니는 청년들만 하여도 8만 여 명에 달한다고 한다. 남조선 인민들을 함부로 쏘아 죽이는 미군의 만행과 파주 사건과 같은 대 소의 략탈 폭행 사건은 남조선의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다. 남조선의 한 작가는 잡지 《신태양》 10월호에서 《지금 바로 한국은 절망 지대다. 한국의 현실은 온통 절망이라고 하는 마귀의 그림자로 뒤덮인 골짜기다》라고 썼다.

이상의 모든 것은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에 대한 남반부 인민들의 증오와 분노의 불'길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다. 이리하여 원쑤들은 인민 대중으로부터 더욱더 고립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반영하여 지배층 내부에서도 여당인 자유당과 야당들 간의 모순 갈등은 점점 더 격화되여 리 승만 도당의 고립을 촉진시키고 있다. 일례로 리 승만은 자기 사후의 대통령 계승권을 가진 민주당 출신 부통령 장 면의 암살을 기도하면서 하수인의 생명은 구원해 주기로 약속하였으나 괴뢰 정부 재판기관은 3심에 이르기까지 피소자에게 사형을 언도하였다고 남조선 신문은 보도하고 있다.

오늘 북반부 민주 기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혁혁한 성과들, 인민의 복리 수준의 급격한 향상은 미제—리 승만 암흑 통치하에서 출로를 찾는 남반부 인민들에게 유일한 등대로 되며 강력한 혁명적 고무로 되고 있다. 또 오늘날 사회주의의 결정적 승리를 말해 주는 국제 정세에서의 심각한 변동이 남반부 인민들의 가슴 속에 파동을 일으키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다. 남반부 인민들은 미제의 식민지 통치를 패기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함으로써만 참을 수 없는 고난으로부터 벗어 날 수 있으며 또 이것은 이렇게 되고야 말리라는 인식을 더욱 깊이 하고 있다.

최근 특히 우심해 지고 있는 부패 타락한 미제 고용병들의 민족적 멸시와 식인종적 만행들과 관련하여 팽배하게 일어나고 있는 남반부 인민들의 애국주의적 반미 감정과 투쟁은 그들의 참을 수 없는 기아 상태와 결부되여 앞으로 반드시 전 인민적 혁명적 앙양으로 전변될 것이다.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의 그 어떠한 흉책과 발악도 남반부에서 객관적으로 성숙되여 가는 혁명적 정세, 조국의 북반부를 고무적 모범으로 삼는 남반부 인민들의 구국 투쟁을 막아 낼 수는 없으며 더구나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력량을 중심으로 민족 통일 전선에 결속된 남북 조선 전체 애국적 인민들의 혁명적 진출을 막아 낼 수는 없다.

오늘 모든 사태는 우리 나라에서의 정세 발전의 주도적, 결정적 요인은 북반부 민주 기지에서의 혁명 력량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 주고 있다. 이 력량이야말로 조국의 통일 독립 완수, 우리 혁명 완수의 기본 력량이다.

과거에 세계에서 사회주의 국가가 쏘련 하나 밖에 없었고 우리 나라에는 인민의 전위대로

서의 맑스주의 당도 없었던 그러한 조건하에서도 일제는 불과 36 년만에 조선에서 몰려 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 만약 그렇다면 하물며 오늘날에는 쏘련이 몇 배나 더 강대해졌고 쏘련을 중심으로 하는 13개 사회주의 국가들의 세계적 체계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 진영이 이제는 제국주의 진영보다 결정적으로 우세하고, 우리 나라 내부에는 민주 기지가 있고 인민 주권이 있고 인민의 지도적 향도적 력량인 당이 있고 당과 정부와 인민 대중과의 불패의 통일이 있고 남반부 인민들이 일제하에서 보다 몇 배나 더 참담한 처지에 놓여 있으며 그들이 제국주의의 본성을 입에서 신물이 나도록 체험하고 있으며 더구나 미제의 《강대성》에 관한 신화가 여지 없이 깨여지고 있는 오늘날의 조건하에서 미 제국주의자들이 얼마나 더 배겨낼 수 있을 것이며 조국의 통일이 어찌 평화적으로 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 조국의 통일, 그리고 평화적인 통일이 멀지 않아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그러나 흐루쑈브 동지가 적절하게 지적한 바와 같이 미친 사람을 가만이 붙들어 두기는 어려운 일이다. 제국주의자들은 발악하고 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 결코 저절로 실현될 수는 없다. 전쟁 방지의 가능성, 우리 나라에서 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화시킬 가능성도 반드시 사회주의 력량, 평화 력량의 적극적이고 꾸준한 투쟁을 통해서만 현실로 전변될 수 있다. 조국의 통일을 반드시 평화적으로 실현하느냐 못 하느냐, 얼마나 조속히 실현하느냐 하는 문제는 오직 우리 인민, 우리 혁명 세력의 투쟁 여하에 달려 있다.

오늘 조성된 국내외 정세는 두 제도의 평화적 공존, 우리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확고한 전망을 주고 있다. 따라서 원쑤들의 저항도 더욱 발악적으로 될 것이다. 실지로 미제 침략 계층은 쏘련의 과학 기술적 우세를 자기들의 군비 확장과 대중에 대한 세금 인상의 구실로 리용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제국주의 침략자들의 동맹인 나토 리사회는 쏘련의 대륙간 탄도 로케트에 대항하여 나토 성원국들에 미국의 원자 무기 (중거리 로케트) 기지를 설정할 데 대하여 토의하였다.

오늘 조성된 국내 국외의 정세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촉진을 위하여 전체 인민들이 더욱 완강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

우리 당 제3차 대회가 제시한 조국의 평화적 통일 실현을 위한 방안들은 이를 위한 투쟁에서의 가장 정확하고 합리적인 행동 강령으로 된다.

전체 인민들,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모든 정당, 사회 단체들과 애국적 인사들은 무엇보다도 평화를 위하여, 우리 조국과 아세아와 그리고 전 세계에서의 평화의 공고화를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평화가 없이는 창조적 로력도 행복도 없다. 전쟁은 파멸을 가져 온다. 그러나 인민의 원쑤들은 오직 자기들의 략탈과 예속화의 범죄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인민들에게 전쟁을 강요하려 한다. 미제와 리 승만 역도는 남조선 인민들에게서 모든 것을 긁어 모아 70만 이상의 괴뢰 군대를 보유하고 유엔군 사령부와 신형 무기들을 남조선에 끌어 들임으로써 《북진》 전쟁을 고취하면서 우리 인민을 위협하려 한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정전 협정 위반을 중지시켜야 하며 모쓰크바에서의 공산당, 로동당 대표들의 회의의 《평화 선언》과 전국 동포들에게 고하는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제2차 대회 호소문은 반드시 실천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 인민에게는 평화, 그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하다. 우리에게는 평화와 함께 통일이 달성되여야 한다. 이 통일을 방해하며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오직 미 제국주의자들이며 미국 군대의 남조선 강점이다. 미군의 철퇴 없이는 조국의 통일을 생각할 수 없다. 우리 인민은 모든 외국 군대의 동시적 철거를 요구한다. 우리 인민의 보위를 협조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 온 중국 인민 지원군은 우리 인민의 요구에 의하여 언제든지 철거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문제는 오직 미군에 있다. 그러나 제국주의 침략자들의 군대가 자진하여 물러 가는 법은 없었다. 반드시 물러 가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들을 조선 땅에서 물러 가게 하는 길은 무엇보다도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 리 승만 역도를 전체 우리 인민으로부터 철저히 고립시켜 발붙일 곳이 없게 하며 우리의 혁명 력량의 결속, 남북에서의 민족 통일 전선의 결속을 최대한으로 확대 강화하는 그것이다.

때문에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지금 미제와 리 승만 역도를 반대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려 하는 사람이라면 정견, 신앙의 차이 여하를 불문하고 또 그가 과거에 무엇을 했는가를 묻지 않고 손을 잡을 것이며 그들의 장래도 보장할 것이라는 진실로 타당하고 애국적인 립장을 재삼 강조하고 있다. 과거에 비록 민족 앞에 죄를 지은 자라 할지라도 그가 만약 회개하고 인민의 편으로 넘어와 인민의 원쑤를 반대하여 싸울 것을 원한다면, 민족 앞에서 속죄하고 갱생할 것을 원한다면 그 누가 이것을 거부할 것인가. 하물며 지금까지 다만 생계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원쑤들의 기관에서 복무했다고 해서 조국을 위하여 싸우는 마당에서 누가 그것을 허물로 삼을 것인가! 조국의 통일 독립을 위한 정의의 투쟁에서 자기의 과거를 돌아다 보고 주저할 필요는 아무에게도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또 외래 침략 세력을 물러 가게 하고 조국의 통일 독립을 평화적으로 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의 하나는 남북간의 인공적 장벽을 우리 인민 자체의 힘으로 허물어 뜨리기 위한 투쟁이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며 또 가능한 일이다.

미제와 리 승만 역도는 인민 민주주의 제도하에서의 북반부 인민들의 보람찬 생활과 사회주의 건설의 우렁찬 모습을 남반부 인민들이 보고 듣는 것을 무서워 하며 남북간의 인민들의 접촉이 결국 평화적 통일에 대한 억제할 수 없는 요구에로 전변되리라는 것을 무서워한다. 때문에 미제와 리 승만 역도는 남북간의 접촉과 련계의 설정, 물자 교역 등의 조치를 취할 데 대한 공화국 정부의 루차의 제의도 완강히 거부하고 있으며 지어는 남반부의 리재 동포들과 절량 농가들에 대한 원호의 제의까지도 묵살하는 반인민적 죄악을 감행하고 있다.

우리는 반드시 남북간의 접촉과 련계를 위하여, 물자 교류를 위하여 투쟁하여야 할 것이다. 남북간에 분포된 자연 부원들과 공업 제품들 기타 경제적 가능성들이 민족 경제의 발전과 인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교류 리용되도록 투쟁하여야 할 것이다. 북조선의 풍부한 전력, 석탄, 세멘트, 화학 비료 기타 많은 제품들을 남반부 인민들이 리용할 수 있고 고기 잡이도 남북의 바다에서 호상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투쟁하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남북 조선의 정당, 사회 단체 및 개별적 인사들간의 접촉과 협상의 길을 열어 놓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우선 남조선에서 정치 생활이 민주화되여야 하며 모든 정당, 사회 단체들의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여야 한다. 우리 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모든 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1948년 남북 련석 회의와 같은 정당, 사회 단체들의 협의회의 소집이나 개별적인 정당, 사회 단체 대표들과 애국 인사들의 초보적 접촉도 환영하고 있다. 우리 당은 또 건설적이며 실무적인 목적 밑에 북반부에 들어 오기를 희망하는 남조선의 모든 대표단과 개별적 인사들에게 문을 열어 놓고 북반부에 들어 와서 그들이 정당, 사회 단체를 조직하며 대중들 앞에서 연설할 수 있게 하며 그 대신 북조선의 정당, 사회 단체 대표들도 남조선에 나가서 당과 사회 단체를 조직하며 로동자, 농민들 앞에서 연설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자유로운 활동을 호상간 보장하자는 것을 주장한다.

우리의 이 모든 제의들이 실현된다면 그것은 남북 조선 인민들의 리익에 완전히 부합되는 것이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현저히 촉진시킬 것이다. 남북간의 접촉과 련계를 위하여 우리 인민들이 한결같이 투쟁한다면 미제 강점군과 괴뢰군의 총칼에 의하여 유

지되고 있는 남북간의 인공적 장벽은 반드시 허물어지고야 말 것이다.

조선 문제의 정당한 해결을 위하여 반드시 남북 조선의 대표가 참가하는 유관 국가들의 국제 회의를 소집하자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주장의 하나이다. 그러나 미국 지배층은 조선 문제의 정당한 해결을 방해하며 조선 인민을 반대하는 자기들의 범죄적인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유엔 총회 12차 회의에서는 조선 인민의 대표의 참가도 없이 또 다시 《유엔 감시하의》 선거를 운운하며 남북간의 접촉을 반대하는 비법적인 결정을 강요하였다. 우리 인민과 공화국 정부는 이러한 책동을 단호히 배격하여 왔으며 또 배격할 것이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 달성을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 요인들로 되는 것은 남반부에서의 로동 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혁명 력량의 장성이며 북반부 민주 기지의 백방으로의 강화이며 쏘련을 비롯한 형제 국가 인민들과의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친선 단결이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에는 남조선 로동자, 농민을 중심으로 하는 각당 각파 애국적 인민들과 정당, 사회 단체들이 총망라되여야 한다. 남조선을 지배하고 있는 미국 자본의 리익은 극소수의 지주, 매속 자본가들의 리익을 제외하고는 로동자와 농민의 리익 뿐만 아니라 도시 소부르죠아지와 민족 부르죠아지에 이르기까지의 광범한 계층의 리익과 첨예한 모순을 이루고 있다. 오늘 정세는 남조선에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하여 가장 광범한 계층들을 망라하는 모든 애국적 력량의 통일 전선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더 성숙되여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사회주의 제 국가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모쓰크바 회의 선언에는 《수 많은 사실들은 각종 애국주의적 및 민주주의적 력량의 결속이 광범하고 견고하면 할수록 공동 투쟁에서 승리가 더욱 잘 보장된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남반부의 로동운동은 광범한 근로 농민들과의 튼튼한 동맹하에 독점 자본의 압박에 의하여 파산되여 가는 소부르죠아지, 과학의 자유와 학원의 민주화를 위하여 투쟁하는 인테리, 청년 학생들, 미제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과 리 승만의 개인 독재에 불만을 품는 민족 부르죠아들까지 망라하는 각계 각층의 구국 투쟁과 긴밀히 련결되여야 하며 사소한 민주주의적 권리와 생활 보장을 위한 투쟁에까지 광범한 인민층을 망라시켜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남북 조선에서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을 일층 확대 강화하는 것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한 담보의 하나로 된다.

다음으로 우리는 북반부 민주 기지의 경제적 정치적 강화를 위하여 이미 달성한 성과들에 기초하여 얻어진 경험 교훈을 백방으로 리용하면서 새로운 1958년도 인민 경제 계획의 더욱 성과적 수행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며 농촌의 사회주의적 개조와 개인 상공업에 대한 사회주의적 개조를 더욱 완성함으로써 로농 동맹과 조국 통일 전선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조선 인민은 쏘련을 비롯한 형제 국가 인민들과의 친선 단결에 사활적 리해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자기의 생활과 투쟁을 통하여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힘을 가장 절실하게 체험하고 있다.

우리 인민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 당 중앙 위원회 확대 전원 회의 결정 정신에 튼튼히 립각하여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와 애국주의 의식을 더욱 제고할 것이며 부르죠아 민족주의, 배타주의, 종파주의 기타 부르죠아 사상 잔재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전개할 것이다.

우리 전체 당원들과 근로 대중은 애국주의적 열성으로 우리 나라 자체의 혁명 과업을 성과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투쟁에 자각적으로 동원됨으로써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의무에 더욱 충실할 것이다.

*　　*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모쓰크바 회의의 강령적 문헌들과 우리 당 중앙 위원회 확대 전원 회의에서 진술한 김 일성 동지의 보고는 전체 우리 인민에게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위업을 성취할 확고한 결의와 신심을 더욱 굳게 하여 준다.

전체 당원들과 조선 인민들은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쏘련을 비롯한 강력한 사회주의 진영과 세계 평화 애호 력량의 지지 성원에 튼튼히 의거하며 북반부의 사회주의 력량과 남반부의 모든 애국적 력량을 단합하여 미제와 리 승만 역도를 반대하는 투쟁에 궐기한다면 우리 나라의 평화적 통일은 반드시 달성되고야 말 것이다.

전 세계 평화 유지 공고화를 위한 몇 가지 문제

리 동 전

전 세계 평화의 유지 공고화——이것은 현시기 전체 인류 앞에 나선 가장 중대한 문제이다. 두 차례에 걸친 참혹한 세계 대전에서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체험한 전 세계 인민들이 오늘 평화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다. 특히 원자 수소 무기를 포함한 대량적 살륙 무기의 출현은 전·세계 인민들 앞에 전쟁을 방지하며 평화를 유지 공고화할 데 대한 문제를 절실하게 제기하고 있다.

현대의 고도로 발달된 과학 기술은 전 세계 인민들에게 무한한 행복과 번영에 대한 광활한 전망을 열어 주고 있다. 그러나 평화가 유지되는 조건하에서만 과학 기술의 가장 거대한 성과들 즉 핵 에네르기의 리용, 대륙간 탄도 로케트 및 인공 지구 위성 등이 완전히 인류의 복리를 위하여 복무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 독점체 특히 미국 침략 계층은 평화와 평화적 공존을 두려워하며 전쟁 준비와 침략적 책동을 더욱더 발악적으로 감행하고 있다. 이것은 현 국제 긴장 상태의 근원으로 되며 전 세계 평화 유지 공고화의 위업에 큰 위험으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철저한 평화 투사들인 공산주의자들은 전 세계의 평화 유지 공고화를 위하여 꾸준히 싸워 왔으며 또 싸우고 있다.

이러한 평화 수호의 투지와 결의는 1957년 11월 모쓰크바에서 진행된 각국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 회의들에서 다시 한번 표명되였다. 《우리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은 인민들의 운명에 대한 자기들의 책임을 완전히 인식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전쟁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며 전쟁은 방지할 수 있으며 평화는 수호될 수 있고 공고화될 수 있다》(평화 선언).

각국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이 평화에 대한 이러한 엄숙한 선언을 표명하게 된 것은 우연한 사실이 아니다. 지금 세계의 정세는 달라졌으며 력량 관계도 달라졌다. 력사는 일찌기 오늘과 같은 그러한 강력한 평화 세력을 알지 못하였다. 오늘날 전쟁 방지의 실제적 력량과 가능성은 나날이 증대되고 있다.

오늘 세계 정세는 제국주의가 몰락의 일로를 걷고 있는 반면에 사회주의는 더욱더 장성 강화되고 있으며 세계적 범위에서 결정적으로 승리하는 위대한 력사적 전환기에 들어섰음을 보여 주고 있다.

사회주의는 일국의 범위를 벗어나 세계적 체계로 전환되였다. 쏘련을 선두로 하는 강력한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은 불패의 것으로 장성 강화되였다.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와 민족 문제에 대한 레닌적 원칙에 립각하여 호상 원조하며 호상 존중하면서 친선 협조의 뉴대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의 통일 단결과 위력은 모쓰크바에서 진행된 사회주의 국가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대표 회의와 거기에서 채택된 선언에서 더욱 뚜렷하게 표현되였다.

쏘련을 선두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의 존재와 그의 가일층 강화되여 가는 통일 단결은 전 세계 평화 유지 공고화를 위한 결정적 담보로 된다. 강력한 사회주의 진영 특히 위대한 쏘련이 존재함으로 하여 전후 12년간 그렇게도 발악적으로 책동한 제국주의자들의 전쟁 음모가 파탄의 일로를 걷고 있으며 오늘날까지 평화가 유지되고 공고화되여 가고 있는 것이다. 력사적 경험은 쏘련을 선두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이 평화의 강력한 성새이라는 것을 확증하여 주었다.

쏘련을 선두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은 그의 령토, 인구상으로 보나 정치, 경제, 군사적 모든 방면에서 보나 제국주의 진영보다 훨씬 우세하다. 특히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의 담보는 그의 강력한 통일 단결에 있다. 또한 쏘련이 달성한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의 특출한 제 성과 즉 세계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의 조업, 대륙간 탄도 로케트의 완성, 두 차례에 걸친 인공 지구 위성의 성과적 발사 및 원자 쇄빙선의 건조 등은 쏘련이 과학 기술 분야에서 세계 제1국의 자리를 확고하게 차지하였다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다. 이것은 또한 전 세계 평화 유지 공고화를 위한 새로운 강유력한 담보로 된다.

쏘련을 선두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은 평화 력량에서 주도적 역할을 놀 뿐만 아니라 평화 세력의 증대를 가져 오는 유리한 조건으로도 되여 있다.

전후 시기에 있어서 사회주의 진영의 형성과 그의 정치, 경제적 성과들에 고무되면서 식민지 략탈자들로부터 해방되여 새로 독립을 달성한 아세아 및 아프리카의 수 많은 평화 애호 국가들이 또한 우리와 함께 제국주의 침략을 반대하며 세계 평화를 위한 공동 전선에 확고히 들어 섰으며 세계의 광대한 지역에 평화 지대를 이루고 있다.

국제 무대에서의 력량 관계는 사회주의에 유리하게 전변되였다. 제국주의는 오늘 전반적 위기에 봉착하여 허덕이고 있으며 심각한 곤경의 궁지에 빠지고 있다. 제국주의 국가들 간에는 최근에 있은 나토 리사회 회의가 단적으로 보여 준 바와 같은 그러한 심각한 모순과 충돌이 심화되고 있다.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는 붕괴의 최후 단계에 들어 섰으며 멀지 않아 완전히 청산될 것이다.

제국주의 국가들의 정치, 경제적 형편은 불안정하며 뒤흔들리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들에서의 로자간의 모순 특히 로동 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주민의 각 계층과 독점체들 간의 모순은 더욱더 첨예화되고 있다. 현재 자본주의 제국에서는 평화 력량이 장성 강화되여 가고 있으며 그에 의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전쟁 모험 정책은 강력한 반대에 봉착하고 있다.

이리하여 현 시기 전 세계의 평화 력량은 전쟁 세력보다 훨씬 강대하여졌으며 제국주의자들이 감히 전쟁을 도발할 수 없게끔 정세는 변화되였다. 이것은 오늘 국제 생활에서 새로운 발전 계단이 도래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러면 국제 생활에서 위대한 전환을 특징짓는 중요한 요인들은 어떠한 것들인가? 그것은,

첫째로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보다 훨씬 우월하며 위력하고 현재 세계적 범위에서 결정적으로 승리하는 위대한 력사적 전환기에 처하여 있다는 데 있다. 정세가 이렇게 사회주의에 유리하도록 전변된 것은 력사 발전의 합법칙적 결과에 이루어진 것이다. 최근 시기에 위대한 쏘련에 의하여 달성된 과학 기술적 제 성과는 사회주의가 어떠한 사회 제도보다도 우월하며 위력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충분히 과시하였다.

반면에 자본주의 제도는 자기 시대를 다 살았으며 림종기에 들어 섰다. 제국주의자들과 그의 어용 학자, 신문 기자들이 그렇게도 광포하여 온 《미국식 생활 양식》의 우월성에 대한 신화는 여지 없이 깨여졌다. 오늘에 와서 미국의 일부 지배층까지도 이것을 공공연히 시인하고 있는 형편이다.

둘째로 오늘의 정세는 국제 생활에서의 주도권이 쏘련을 선두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에 장악되였다는 것을 확증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이것은 평화를 수호할 수 있는 결정적 력량이 사회주의 진영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

냐 하면 평화 애호 정책을 철저히 견지하고 있는 쏘련을 선두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이 굳게 단결되여 있으며 또 쏘련이 대륙간 탄도 로케트를 비롯한 모든 강력한 수단들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국가들은 전쟁을 방지할 수 있으며 평화를 고수할 수 있다는 신념을 표명할 수 있었던 것이다.

언제나 변함 없이 쏘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은 평화를 념원하여, 평화적 공존 원칙의 준수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그의 튼튼한 보장을 위하여 자기가 달성한 모든 물질—기술적 성과들을 리용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 진영이 존재하는 한 평화의 유지 공고화는 확고히 보장될 수 있다.

세째로 최근 시기에 발생한 모든 사변들은 미국 침략 계층이 집요하게 견지하고 있는 《힘의 립장에 선》 정책 (덜레스의 발언을 빌어서 표현한다면 《전쟁 접경》의 정책)이 파탄되였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미국의 《최강》에 대한 신화 우에 서 있는 이 정책은 위대한 쏘련에 의한 대륙간 탄도 로케트와 두 차례에 걸친 인공 지구 위성의 성공적인 발사로써 파탄의 궁지에 빠지고 있다.

지난 기간에는 미제를 두목으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감행되여 온 《힘의 립장에 선》 정책이 무력하다는 것이 명백히 폭로되지 않았다면 현재에 와서는 그것이 더욱 뚜렷하게 발로되였으며 이 정책의 파탄을 그의 창시자들과 고창자들까지도 인정하게끔 되였다.

네째로 제국주의자들의 대외 선전이 완전히 실패하였으며 그들의 선전의 허위성이 완전히 폭로되였다. 그들은 장기간에 걸쳐 쏘베트 제도를 비난하면서 얼마 안되여 몰락할 것이라고 허위 선전을 해왔으며 《공산주의의 위기》를 고창하는데 광분하였으나 쏘련이 달성한 제 성과에 의하여 그들의 허위 선전은 완전히 파탄되고 말았다. 광범한 인민 대중은 물론이거니와 일부 동요 분자들까지도 미국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였으며 쏘련 및 사회주의 국가들의 전진 운동에 마음을 쏠리게 되였다.

쏘련을 선두로 하는 세계 사회주의 진영이 제국주의 진영보다 훨씬 강대하며 또한 그가 철저한 평화의 수호자이며 평화의 성새라는 것을 목격한 전 세계 선량한 모든 사람들이 쏘련을 선두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을 옹호하며 그의 평화적 대외 정책을 지지하여 나설 것은 자명한 일이다. 현 시기에 일어 나고 있는 모든 사변들은 세계의 광범한 대중들이 반전(反戰) 운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으며 제국주의자들 특히 미제의 침략적 책동을 증오하는 반제, 반미 감정이 폭발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인민 대중들 뿐만 아니라 미제의 추종 국가들의 지배층까지도 미국의 침략적 대외 정책을 반대하는 원심적(遠心的) 경향이 농후해지고 있는 것도 현 시기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미군의 주둔 국가와 미제를 두목으로 하는 침략적 군사 뿔럭 참가국들에서 발로되고 있으며 더욱이 작년 12 월에 있은 나또 리사회 회의를 전후하여 더욱 로골화되였던 것이다.

이러한 모든 사실들은 국제 생활에서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하며 위대한 전환기가 도래하였다는 것을 확증하여 주고 있다.

위대한 전환기는 항상 위대한 투쟁을 요구한다. 정세 발전은 현 시기에 제국주의자들의 전쟁 방화를 위한 어떠한 도발적 행동도 저지할 수 있으며 평화를 고수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동시에 또한 전 세계 인민들 앞에 전쟁을 방지하며 평화를 고수할 위대한 력사적 투쟁 과업을 제기하고 있다.

* *

사회주의 국가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모쓰크바 회의 선언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전쟁이냐 평화적 공존이냐 하는 것은 세계 정치의 근본 문제로 되였다. 현 시기 전 세계 평화 유지 공고화의 중요한 담보는 각이한 사회 제도를 가진 나라들의 평화적 공존 원칙의 준수이다.

쏘련을 선두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은 조성된 유리한 정세를 리용하면서 평화를 위한 적극적인 투쟁을 계속 전개하고 있으며 평화적 공존 원칙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침략 계층은 이러한 평화 애호 정책을 《자유 세계에 대한 도전》으로 묘사하면서 더욱더 발광적으로 전쟁 준비에 날뛰고 있다. 오늘 그들은 이데올로기적 수단으로써 전쟁 히스테리를 야기시키고 있으며 《로씨야의 위협》과 《쏘련의 침략》을 떠벌리고 있다. 실지에 있어서 그들은 쏘련으로부터의 전쟁 위협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쏘련과 사회주의 국가들이 실시하는 평화와 평화적 공존 정책이 무서운 것이다. 왜냐 하면 그들은 전쟁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전쟁에서 큰 치부를 얻게 됨으로서이다. 미국 부대통령 닉슨은 모쓰크바에서 《평화 선언》이 채택되고 공포되자 곧 《경제적 희생이 필요하다》라고 비명을 올린 것도 우연한 사실이 아니다. 군비 확장을 위하여 《경제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그들의 의도는 가히 알 수 있다.

미국 침략 계층은 세계 제패의 야망을 버리지 않으면서 《자유 세계》니 《평화적 분위기 속에서 살아야겠다》는 등 기만적 선전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전쟁에서 막대한 치부를 얻으며 사회주의와의 평화적 경쟁에서 패배를 당하고 있는 제국주의자들은 평화와 평화적 공존 정책을 가장 철저히 실시하고 있는 쏘련을 반대하며 사회주의를 말살하려고 갖은 발악을 다 하였으며 또 하고 있다.

력사적 경험은 제국주의 침략 계층들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것을 거부하면서 전쟁의 방법으로 사회주의 제도를 말살하려고 시도하였을 때 더욱 큰 참패를 면치 못하였다는 것을 똑똑히 증명하여 주고 있다. 특히 오늘날 현실적으로 조성된 정세는 만일 그들이 새 전쟁을 도발한다면 자본주의는 영원히 멸망하게 되리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멸망의 길을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국가들 간의 평화적 공존과 협조의 길로 가느냐, 바로 미국 정부와 기타 서방 정부들 앞에는 문제가 이렇게 서고 있다. 유엔 총회 제12차 회의에서 채택된 국가들 간의 평화적 공존에 관한 결의는 전 세계 평화 애호 력량의 강대성을 보여 주고 있다. 때문에 서부 렬강은 조성된 현 정세와 특히 사회주의 진영과 제국주의 진영간의 력량 관계를 객관적으로 인정하며 자기들의 비현실적인 《힘의 립장》에 선 정책을 포기하고 평화적 공존의 원칙을 접수, 준수하며 모든 국제적 분쟁 문제들을 회담의 방법으로 해결할 데 대하여 동의하여야 한다. 그리함으로써만이 전 세계의 공고한 평화는 유지될 수 있다.

평화를 유지 공고히 하며 각이한 사회 제도를 가진 나라들이 평화적으로 공존하기 위하여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군비 경쟁에 종지부를 찍으며 각국의 군비를 축소하며 원자 및 수소 무기의 생산 및 사용을 금지하며 핵무기 시험을 즉시 중지하는 그것이다.

군비 경쟁이 계속되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국가들 간의 국제 관계에 있어서 좋은 분위기가 조성될 수 없으며 세계의 공고한 평화를 확신성 있게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군비 축소 문제는 전 세계 인민들의 가장 절실한 관심사로 되고 있으며 각국들 간의 평화적 공존의 중요한 조건으로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유엔의 테두리 안에서와 또는 기타 각종 국제적 회합들에서의 렬강들 간의 오랜 군비 축소 문제의 토의는 오늘날까지 하등의 성과도 가져 오지 못하였는바 이것은 전적으로 미국을 두목으로 하는 제국주의 침략 계층들의 파렴치한 침략적 책동에 기인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쏘련을 선두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은 군비 축소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원칙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들은 군비를 전반적으로 대폭 축소하며 원자 및 수소 무기를 포함한 대량 살륙 무기의 생산과 사용을 금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동시에 쏘련은 서부 렬강이 이에 동의하지 않은 실정을 고려하여 서부 렬강에 접수될 수 있는 최소 한도의 부분적인 조치들을 예견하는 방안들을 루차 제기하여 왔다.

지난 12월에 전체 나토 성원국들에 보낸 불가닌의 서한들과 유엔 성원국들에 보낸 쏘련 정부의 각서들은 이를 단적으로 증명하여 준다. 쏘련 정부는 미국과 영국 정부와 공동으로 당분간은 핵 무기를 사용하지 말데 대한 의무만이라도 지며 처음에는 2 년 내지 3 년 동안이라도 좋으니 우선 1958년 1월 1일부터 각종 핵 무기의 시험 폭발을 중지할 것을 선포하자는 제안을 제기하였다.

미제를 두목으로 하는 제국주의 침략 계층은 쏘련의 이러한 진지한 념원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시기에 더욱 발광적으로 침략적 책동을 하고 있으며 군비 경쟁을 확장할 데 대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나토 리사회 회의의 과정이 이것을 잘 말해 준다.

그러나 오늘의 정세는 어떠한 침략적 책동과 군비 경쟁의 발광이 있더라도 이것을 저지하며 평화를 공고히 할 모든 조건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바 군비 축소 문제는 해결되여야 하며 해결할 수 있다.

군비 축소 문제와 아울러 현 시기 세계 평화의 유지 공고화를 위하여 중요한 문제는 타국 령토상에 있는 제국주의자들의 군사 기지들과 미국을 두목으로 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 군사 쁠럭들을 철페하며 아세아와 구라파에 집단 안전 체계를 수립하는 그것이다.

세계 각국에 있는 미국의 군사 기지들과 나토, 세아토 및 바그다드 조약 등 침략적 군사 쁠럭들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위험으로 되며 이는 또한 유엔 헌장의 정신에 대한 가장 란폭한 위반으로 된다.

그러나 오늘의 정세는 근본적으로 달라졌으며 쏘련을 선두로 하는 사회주의 국가들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하에 굳게 단결되고 있으며 그들의 위력은 불패의 것으로 되고 있다. 특히 최근 쏘련에서의 대륙간 탄도 로케트의 완성은 군사 쁠럭들과 군사 기지들에 의거하고 있는 미국의 침략 계획에 결정적 타격을 주었으며 그들의 군사 기지들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었다. 동시에 쏘련을 선두로 하는 사회주의 국가들은 조성된 정세를 옳게 타산 리용하여 계속적인 평화적 이니샤티브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미제를 두목으로 하는 제국주의 침략 계층들은 쏘련의 루차에 걸친 이니샤티브를 무시하고 더욱더 악랄한 침략적 책동을 감행하고 있다. 파리 나토 리사회 회의에서는 침략적 계획과 군사 쁠럭 강화에 광분하였다. 미제는 구라파에서 뿐만 아니라 아세아 지역에서도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 쁠럭 정책을 추구하며 군사 기지의 원자 무기 장비에 갖은 애를 다 쓰고 있다. 특히 미제가 남조선과 오끼나와, 대만 등지에 원자 무기를 반입하는 흉모를 꾸미고 있으며 일본에서 군국주의를 재생시키는 책동을 하고 있는 사태는 아세아와 전 세계의 평화에 큰 위험으로 되고 있다.

세계 평화를 유지 공고화 하기 위해서는 군사 쁠럭 정책을 포기하고 군사 기지를 철페하며 구라파에서와 아세아에서 집단적 안전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 조치이며 중요한 조건이다. 때문에 쏘련을 선두로 하는 사회주의 국가들은 이의 실현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 왔으며 또 노력하고 있다.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금번 당 중앙 위원회 확대 전원 회의에서 김 일성 동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각이한 사회 제도를 가진 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평화적 공존 원칙을 준수할 것을 자기의 대외 정책의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군비의 축소와 구라파와 특히 아세아에 있어서의 집단적 안전 체계의 창설을 위하여 일관하게 노력하고 있다. 특히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공동 전선에서 아세아 및 아프리카 제 국가들과의 련대성을 강화하며 이 나라 인민들과의 친선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　　*

현 시기 전쟁을 방지하며 전 세계의 평화를 유지 공고화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조건의 하나는 쏘련을 선두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과 전 세계 평화 애호 력량을 단합하며 공동적으로 제국주의의 전쟁 세력과 전쟁 위험을 반대하는 문제이다.

사회주의 국가들, 그와 함께 광대한 평화 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아세아 및 아프리카 평화 애호 국가들, 국제 로동 계급과 우선 그의 전위대인 공산당과 로동당들, 민족 해방 투쟁에 궐기한 식민지 및 반식민지 인민들, 그리고 자본주의 제국의 수억만 평화 애호 인민들의 조직되고 단결된 힘은 현대의 강력한 평화 력량으로 되고 있다.

오늘 국제 생활에서 특징적인 것은 평화 력량을 구성하고 있는 광범한 인민 대중이 국제 무대에서 거대한 역할을 놀고 있는 사실이다.

광범한 인민 대중의 정치적 각성과 더욱이 정치적 투쟁에로의 진출은 사회의 각 방면에서와 또한 국제 관계에서 거대한 전변을 초래하였다. 오늘 국제 관계에 주는 인민 대중의 영향과 압력으로 말미암아 제국주의 지배 계층들은 침략 정책과 비밀 외교의 실현이 더욱 곤난하게 되였다.

현 시기에 있어서의 전쟁은 제국주의 침략 계층이 날조하고 있는 바와 같은 《지역적 전쟁》으로 될 수는 없다. 지구의 각이한 부분에 있는 수십개의 국가들을 망라하는 군사 집단들이 서로 대립하여 세계에 존재하며 현대 무기의 작용력의 지리적 한계를 알지 못하는 우리 시대의 전쟁을 《지역화》할 가능성은 있을 수 없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전 세계 인민들에게 가장 큰 재난과 불행을 가져 오는 가장 참혹한 전쟁으로 밖에 될 수 없다. 여기로부터 출발하여 오늘 전 세계 인민들은 각국 대외 정책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으며 자국의 대외 정책에 영향을 주기에 노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모든 근로자들, 정치 활동가들, 과학 문화 대표들과 의회 및 정부들에 보내는 쏘련 최고 쏘베트의 호소문》과 세계 64개국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회의에서 채택된 《평화 선언》은 평화를 유지하려는 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을 표명하면서 전 세계 인민들이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투쟁할 것을 호소하였던 것이다.

《우리는 당신들 모두에게 호소한다.

자국 정부가 유엔에서 평화 정책을 실시하며 랭전 정책을 반대하도록 요구하라.

우리는 전 세계 모든 선량한 사람들에게 호소한다.

1, 원자 및 수소 무기 시험의 즉시 중지를 위하여
2, 이 무기의 생산 및 사용의 최단 기일 내의 무조건 금지를 위하여 하나로 뭉쳐 투쟁하라.》

실로 금번 이 선언은 전체 평화 애호 인민들의 신심과 투지를 북돋아 주는 동시에 이는 평화 투쟁을 위한 위대한 전투적 강령으로 된다.

현 시기 몰락과 멸망의 운명에 직면하고 있는 제국주의자들이 더욱더 발악하고 있으며 음흉한 책동을 다하고 있는 이때 평화 옹호 력량 앞에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는 그들의 조직성과 적극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평화 애호 력량의 국제적 및 국내적 단합은 전쟁 모험자들에게 주는 가장 큰 타격으로 된다.

각국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평화 선언에도 지적되여 있는 바와 같이 평화 력량의 조직성과 적극성의 제고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 역할을 놀고 있는 것은 가장 열렬한 평화 투사 대렬인 각국 공산당 및 로동당들이다. 자본주의 국가들의 로동 계급과 그의 전위대인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자유와 민주와 사회주의를 위한 자기들의 투쟁을 세계의 전반적 평화 운동과 밀접히 결부시키면서 강력한 힘으로 진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들의 수억만의 평화 애호 인민들로 하여금 자국의 반동적 지배층들의 전쟁 방화 정책을 반대하며 전 세계의 평화 유지 공고화를 위한 투쟁에 적극 참가하도록 고무 추동하고 있다.

현재 각국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노력에 의하여 평화 력량은 점차로 장성 강화되고 있으며 더욱더 조직성을 띠게 되였다. 《이 강력한 력량들의 단합은 전쟁의 발발을 방지할 수 있게 하는바 제국주의적 전쟁 광신자들이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전쟁을 감히 도발하는 경우에는 제국주의는 사멸할 운명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 제 국가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회의의 선언)

평화는 인민들의 수중에 있으며 그들의 단합과 적극성에 달려 있다. 앞으로 평화 력량은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더욱 단합되여야 한다. 단합된 힘은 불패이다. 력사는 더욱더 평화 옹호 인민들의 단합된 력량의 위대성과 평화 위업의 거대한 승리를 보여 줄 것이며 동시에 전 세계 인민들이 자기 마음에 들며 전쟁과 빈궁이 없는 그러한 사회 제도를 수립하는 위대한 시대를 보여 줄 것이다.

※ ※

전 세계 평화의 유지 공고화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궐기한 조선 인민의 리익에 전'적으로 부합된다. 또한 조선에서 평화가 유지되며 평화적으로 조선이 통일된다는 것은 조선 인민의 민족적 숙망의 달성일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 유지에 극히 귀중한 기여로 된다.

조선 인민은 조선에서의 평화 유지를 보장하며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하여 오늘날까지 꾸준히 싸워 왔다. 그러나 아직도 조국은 분렬되여 있다.

이 책임은 전'적으로 미제와 리 승만 도당에게 있다. 그들은 조국의 통일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최근에 와서는 정전 협정의 기본적 조항을 페기할 것을 일방적으로 성명하였으며 남조선을 미국의 원자 기지로 전변시키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 국제 국내 정세는 그들의 침략적 음모의 실현에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조성되고 있다.

정세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실제적 가능성을 더욱 증대케 하여 주고 있다.

물론 이것은 전쟁의 위험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한 전쟁의 지반도 남아 있다. 더욱이 조선 인민은 제국주의 침략자들의 원흉인 미제와 직접 대치하고 있다.

이러한 정형은 우리의 간고한 투쟁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김 일성 동지는 우리 당 중앙 위원회 확대 전원 회의에서 진술한 자기의 보고에서 조선에서 평화를 유지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것은 전체 조선 인민 앞에 나선 가장 중요하고 선차적인 혁명적 과업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력사적 과업을 실천하기 위하여 최근에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제2차 회의가 진행되였으며 거기에서 전체 조선 인민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하였다. 여기에는 모쓰크바의 평화 선언의 기본 정신과 또한 평화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념원하는 조선 인민의 결의로써 충만되여 있다.

조선 인민은 김 일성 동지가 제시한 과업과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의 호소문을 높이 받들고 쏘련을 선두로 한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과의 련대성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조선에서 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키며 미국 군대를 남조선에서 철퇴시키고 현 계단에서 우리 혁명의 기본 과업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고야 말 것이다. 그리함으로써 조선 인민은 세계의 평화 유지 공고화에 극히 귀중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쏘베트 과학의 위력

도 상 록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이 승리한 이후 쏘련 인민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투쟁 행정에서 세계사적 의의를 가지는 수다한 업적들을 쌓았다. 그중의 하나는 지난 40년간 쏘련 인민이 이룩한 세계 력사에서 그 류례를 볼 수 없는 과학 기술의 발전이다.

오늘 쏘베트 과학은 세계 과학의 최고 절정으로서 비단 쏘련 인민에게 뿐만 아니라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에게 무한한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었으며 또 가져다 주고 있다.

쏘련에서의 과학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 불가분적으로 련결되여, 인민 경제 건설과 사회주의 국가의 방위 및 사회주의 문화 건설의 모든 절실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력량과 수단들이 계획적, 합목적적으로 리용되도록 하고 있다. 쏘련에서의 과학 연구 사업은 사회주의 건설의 현실적 요구와의 긴밀한 련계하에서 발전하고 있다. 공업과 농업의 발전은 과학 발전에, 그리고 과학의 발전은 공업과 농업, 체신, 운수의 발전에 유기적으로 호상 작용하고 있다.

례하면 오늘 쏘련에서는 전자 공학이 비상히 발전되고 있는바 오늘 무전 송신국 건설 분야에 있어서 쏘련은 세계의 제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분자의 고유 진동을 리용한 분자 발전기가 쏘련에서 처음으로 제작되여 무전 통신에 새로운 국면을 열어 주고 있다. 일찌기 요페가 발기한 반 도체에 관한 연구는 오늘날 커다란 성과를 거두어 라지오 수신기와 무전 공학에 특별한 의의를 부여하는 고성능의 열전기 기구들과 농촌 경리에 막대한 기여를 하는 보온 열전기 기구들을 제작하게 하였다. 거리를 측정함에 있어서 높은 정확도를 보장해 주는 라지오 원거리 측정기의 제작도 쏘련 기술자들의 특출한 공훈에 속한다.

매질 내에서의 광선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서 같은 매질 속을 움직이는 전자에 관한 체렌꼬브의 연구와 핵 공학 분야에 있어서의 수소 기포함의 제작은 세계 과학계에 큰 흥미를 자아 내였다.

쏘련 과학자들은 평화적 목적에 원자 에네르기를 리용하는 분야에 있어서 특출한 위훈을 세웠다. 이 성과들은 결코 비전문가들이 왕왕 생각하는 바와 같은 하나의 발견이나 하나의 비밀의 해득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자연 과학에서의 지배적 고소를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과학 부문에서 이루어진 거대한 전변으로 되는 것이다.

웨끄쓰례르의 연구에 기초하여 쏘련 두브나시에는 세계 최대의 소립자 가속 장치가 설치 완공되였는데 이 가속 장치에 의하여 백억 전자 볼트의 에네르기를 가지는 프로톤을 얻게 되였다. (프로톤에 5백억 전자 볼트의 에네르기를 줄 가속 장치가 현재 설계 중에 있다) 이것은 현대 과학에 있어서 최대의 난관으로 되는 소립자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며 인류 과학사에 있어서 두번째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오늘날 쏘베트 과학 기술의 류례 없는 위력한 발전은 무엇보다도 로케트 기술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 있는바 여기에서는 찌올꼬브쓰끼를 위시해서 쮸꼬브쓰끼와 챠쁠릐긴의 공적이 컸다. 쏘련에서는 뚜 104호와 뚜 114호를 비롯한 새로운 형의 로케트 비행

거들이 제작되였으며 대륙간 탄도 로케트와 인공 지구 위성들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훌륭히 발사되였다. 오늘 전 세계는 2차에 걸친 쏘련 인공 지구 위성 발사의 성공이 인류 과학사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 놓았다는 것을 깊이 감득하고 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세계에서 류례를 볼 수 없는 쏘베트 과학의 위대한 면모를 몇 개 분야에서 살펴 보기로 하자.

인간의 지혜의 가장 고귀한 산물 가운데 하나인 원자력의 평화적 리용은 쏘련 공산당의 지도하에 수다한 쏘베트 과학자들과 쏘베트 근로자들의 체계적이고 집단적인 투쟁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었다.

이것의 정확한 리해를 위하여 잠시 우라눔 핵의 분렬 현상이 발견되던 당시를 회고해 보기로 하자.

1939년 전후에 우라눔--235의 핵 분렬 현상이 발견되였다. 즉 뉴트론 한 개로써 우라눔—235의 핵을 충격하면 핵 한 개가 쪼개져서 두 개의 가벼운 핵 (다른 원소의 핵)으로 전변함과 동시에 2억 전자 볼트의 에네르기가 방출되며 새로 2--3개의 뉴트론이 방사된다. 그러므로 우라눔—235의 덩어리가 있으면 공기 중의 뉴트론에 의하여 최초의 핵 분렬이 일어나고 거기서 튀여 나온 뉴트론들이 다시 그 부근에 있는 다른 우라눔—235의 핵들을 분렬시켜서 이 작용은 련쇄적으로 잇대여 급속히 진행될 수 있고 여기에서 거대한 량의 에네르기가 방출될 수 있다. 이런 분렬 현상은 플루토눔—239와 우라눔—233에도 있다.

의심할 여지도 없이 우라눔 핵의 분렬 현상은 전 세계 인민들의 무한한 복리를 상징하고 등장한 것이였으나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현상이 인민들의 대량적 학살을 가능케 하는 핵 무기 제조에 리용되는 것으로 되였다. 한편 쏘베트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우라눔 핵의 분렬 현상이 알려지자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자기들의 선진적 과학과 기술의 힘으로써 원자 무기 생산에서의 제국주의자들의 독점을 방지하는 동시에 핵 분렬 현상을 인류의 복리를 위하여 리용하는 데 있어서 위대한 노력을 경주하여 드디여 세계에서 처음으로 되는 산업용 원자력 발전소를 창설하였으며 최근에는 원자력 쇄빙선 《레닌호》를 진수시켰다.

이것은 그렇게도 난제(難題)였던 세계의 동력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된다. 지구상에 매장되여 있는 석탄과 석유의 자원은 그리 멀지 않은 장래에 고갈될 것이 확실하며 이것을 대신할 연료로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하여 인류가 속수 무책으로 남아 있을 때 쏘베트 과학자들은 석탄과 석유의 리용 가치를 수천만 배로 증가하며 금후 수천 세기 동안 전 세계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핵 연료》를 발견하였고 그것을 리용하는 확실하고도 간편한 방법을 성공적으로 해결하여 인류의 전도에 거대한 광명을 비추어 주었다. 이것은 두브나시에서 정상적인 조업을 계속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립증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은 열핵 반응이 발견되던 당시에도 있었던 것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1950년에 수소 원소들이 참여하는 열핵 반응이 발견되였다. 즉 중 수소 핵과 삼중 수소 핵이 백만도의 고온하에서 결합하여 헬리움 핵이되는데 이 때에 1천 7백만 전자 볼트 이상의 에네르기가 방출되고 뉴트론 한 개가 튀여 나온다. 이것은 최초에 알려진 열핵 반응이고 그 뒤 여러 종류의 열핵 반응들이 알려졌다.

그중에는 보다 더 효과적인 것이 있어서 오늘날 열핵 반응은 전 세계의 최대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로 되여 있다. 그것은 생산비가 몹씨 높은 삼중 수소를 사용하지 않고도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중 수소만으로써 일으킬 수 있는 열핵 반응과 관련되여 있다.

어떤 열핵 반응이든지 1회의 반응에 의하여 방출되는 에네르기의 량은 우라눔—235의 1회의 핵 분렬에 의하여 유리되는 그것보다 적으나 핵 분렬 현상에는 극복할 수 없는 제한성이 있는데 열핵 반응에는 그것이 없으며 또 가벼운 원소들이 관여하는 현상이므로 실질상 열핵 반응의 리용 가치가 핵 분렬 현상의 그것의 수천 배에 달한다.

그러나 미 제국주의자들은 핵 분렬 현상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또다시 열핵 반응을 핵 무기 제조에 리용하는 흉악한 길에 들어섰으며 1952년 11월에는 최초의 수소탄 시험을 감행하였다. 이것은 인류의 대량적 학살을 더욱 가능케 하는 멸망의 길로 돌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 평화의 가치를 알고 있으며 평화 옹호 사업을 자기들의 손에 틀어 잡고 있는 쏘련 인민을 선두로 하는 전 세계의 선진적 인민들이 인류의 복리와 평화를 위하여 핵 무기의 생산과 사용을 금지할 것을 더욱 견결히 요구하여 한결같이 궐기한 리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세계 평화를 위한 투쟁의 선두에 서 있는 위대한 쏘베트 인민들은 수소탄 시험에서의 제국주의자들의 수준을 훨씬 릉가하여 평화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에 위대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더욱 나아가서 열핵 반응을 평화적 목적에 리용할 데 대한 경탄할 만한 노력을 성과적으로 계속하고 있다. 이미 이 연구는 기본적인 단계를 경과하였는바 이것은 순간적인 방전 현상에 의하여 열핵 반응을 조정할 수 있는 원칙이 립증된 것을 의미한다.

우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핵 분렬 현상을 조종하는 문제는 오늘날 훌륭히 해결되였다. 앞으로 남은 문제는 수력 전기보다 더 값싼 전기를 원자력 발전소가 제공해야 하며 초 고속도의 원자력 항공기가 공중을 날아야 하는 그것이다.

오늘 이 문제들은 쏘베트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에 의하여 성과적으로 연구되고 있는바 급속한 시일 내에 전 세계의 동력 문제와 교통 문제가 완전히 또한 새롭게 해결될 것이다.

열핵 반응을 평화적 목적에 리용할 데 대한 쏘베트 과학의 위대한 전진을 반드시 재삼 강조하여야 하겠다. 열핵 반응은 원자탄을 사용하여야만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여 왔으나 이 생각은 이미 청산되였다. 태양에서는 거대한 중력 작용으로 열핵 반응을 일으키는 플라즈마 (수소 원소의 핵과 전자가 서로 분리되여 단순한 혼합물의 상태로 존재하는 것)를 중심부에 집결시키고 거기에 동반되여 있는 고열로써 열핵 반응을 장기간에 걸쳐 정상적으로 실연(實演)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태양의 발열 기구이니, 이를테면 열핵 반응의 평화적 리용이 태양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지면 우에서 태양에서와 같은 반응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요구될 것인가? 첫째로 거대한 중력을 대신할 것이 있어야 하고, 둘째로 수백만도의 고온을 얻는 장치가 요구되는 것이다. 이 난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쏘련 과학원 원사들인 아르찌모위츠, 레온또위츠, 싸하로브 및 땀이 진력하였다. 그들은, 거대한 중력 마당을 대신하는 것이 강한 자기(磁氣)마당이고 수백만도의 고온은 짧은 시간 동안에만 요구되는 것이므로 순간적인 방전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증하였다. 이 방전은 용량이 수백 미크로파라드이고 전압이 2—5만 볼트를 보이도록 충전한 축전기로써 실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하여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 열핵 반응을 조종하는 기본 고리가 실험실적으로 해결되였다. 가까운 시일 내에 열핵 반응의 평화적 리용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이고 세계 인민들의 무한한 행복을 위해서 쏘베트 과학이 더욱 위대한 복무를 하게 될 것이다.

방사성 동위 원소를 평화적 목적에 리용하여 쏘베트 과학이 거둔 성과가 역시 거대하다. 례하면 방사성 동위 원소를 야금 공업, 기계 공업, 계량 공학, 화학 공업 및 식료품 공업에 도입하여 생산 능률과 제품의 질을 비약적으로 제고시켰으며 유용 광물 탐사와 화학 분석에 리용하여 효과적인 새 분야를 개척하였으며 식물 재배와 농촌 경리에 리용하여 수확고와 농산물 저장 기간을 대폭적으로 증대시켰으며 의학에 리용하여 인간의 평균 수명을 훨씬 연장시킬 수 있게 하였다.

원자력의 평화적 리용 분야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며 보다더 큰 성과들이 우리를 놀라게 할 것이다.

다음으로 로케트 기술 발전을 통해서 본 쏘

베트 과학의 위대한 면모는 실로 과학 발전의 최고봉으로서 전 세계 과학자들과 전 인류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얼마 전에 쏘련에서 대륙간 탄도 로케트의 시험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여서 전 세계를 경탄케 하였다. 오늘날 수소탄을 나르는 대륙간 탄도 로케트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은 존재하지 않는만큼 이는 무기로서의 최고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여서 10월 4일에는 인류 력사에서 새 페지를 장식하는 인공 지구 위성이 쏘련에서 발사되여 벌써 1천회 이상 지구를 공전하였다. 그런데 지난 11월 3일에는 개를 실은 제2의 인공 지구 위성이 다시 쏘련에서 발사되여 이미 수백회 지구를 공전하였다. 앞으로 인공 지구 위성은 더 큰 규모로써 쏘련에서 몇 차례 더 발사될 것이 예견되고 있다. 중량은 제1 위성이 83.6 키로그람이요, 제2 위성이 508.3 키로그람이다. 최대의 고도와 초기의 공전 주기는 제1 위성이 900 키로메터와 1시간 36분이고 제2 위성이 1,700 키로메터와 1시간 43분 42초이다. 운동 방향은 서로 반대이고 제2위성이 발사될 때의 중량은 500 톤 정도라고 생각된다. 제1 위성은 3개월 정도의 수명을 가질 것이며 제2 위성의 수명은 이보다 훨씬 더 길 것이 예견된다.

대륙간 탄도 로케트와 인공 지구 위성은 원리적으로 같은 것이여서 로씨야의 탁월한 과학자 찌올꼬브쓰끼가 20세기 초에 제시한 다계단 로케트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여 발사된 것이다.

다계단 로케트의 첫째번 로케트는 대기층의 하층을 쉽게 돌파하기 위하여 지면에 수직으로 추진하게 되고 마지막 로케트는 인공 위성이 궤도 운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면에 평행인 초속도를 제공하게 된다. 인공 위성이 지구 주위에서 궤도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은 중력과 원심력의 균형에 의거하는바 제1 위성과 같이 대기의 저항을 다소 받아서 주기가 점점 감소될 때에는 인공 위성은 지면에 점점 가까워지면서 속도가 더욱더 빨라지게 된다. 이것은 지구의 질량에 비해서 인공위성의 질량을 무시할 수 있어서 주기의 2승이 평균 거리의 3승에 비례한다는 케플라의 법칙이 유효한 것과 속도의 2승이 평균 거리에 역비례한다는 관계에서 리해할 수 있다. 인공 지구 위성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게 되면 공기와의 마찰에 의하여 연소될 수 있다.

쏘련에서의 로케트 기술의 경탄할만한 발전, 인간에 의한 우주권 정복의 첫 걸음으로 되는 쏘련의 인공 지구 위성의 발사는 실로 거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사회주의 진영의 선두에 서 있는 위대한 쏘련의 과학 기술 발전, 따라서 군사 기술적 방면에 있어서도 자본주의 국가들, 특히 미국보다 훨씬 멀리 앞서 있다는 것,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평화적 경쟁에서 쏘련이 결정적 승리자로 되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 사실로써 보여 주는 것이며 국제 무대에서의 력량 관계의 근본적 변화 즉 평화와 사회주의의 력량의 결정적 우세를 힘차게 과시하는 것이며 미국의 강대성에 관한 신화를 다시 한번 여지 없이 분쇄하는 것이다.

이는 쏘련의 국제적 위신을 더욱더 제고시키고 평화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전 세계 인민들을 고무하며 그들에게 승리의 확신을 더욱 굳게 하여 주며 그들을 가일층 강력하게 단합시키고 있다.

과학 발전에서의 자기들의 《우위》를 요란스럽게 떠들어 왔고 그것으로써 위성 국가들을 끌어 붙이는 수단의 하나로 삼던 미국은 500 키로그람이 넘는 쏘련의 인공 지구 위성 앞에서 한 키로그람 반의 《뱅가드》의 발사로써 자기들의 땅에 떨어진 위신을 구원해 보려고 애썼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상 이미 뱅가드(선구자)가 아니였음은 물론 그의 실패는 오히려 쏘베트 과학 기술의 우위성과 자기들의 과학 기술의 락후성을 실증해 주는 더 없이 좋은 재료로 되였으며 자기들의 위신을 더욱 여지 없이 추락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다. 바로 미국의 어용 통신인 유피 통신조차도 미국의 이 실패를 《전 세계적으로 과학적, 군사적 및

랭전 심리적인 충격을 자아낸 참담한 실패》로 묘사하였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그들의 력사에서 처음으로 쏘련을 따라 잡자는 구호가 나왔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제2차 대전 이후 미 제국주의자들은 쏘련을 선두로 하는 사회주의 국가들을 반대하는 침략 전쟁의 준비로서 나토, 세아토, 바그다드 조약 등 각종 침략적 군사 뿔럭들을 조작하여 군사 기지망으로써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을 포위하였으며 이로부터 《대량적인 원자 타격》을 가함으로써 미국 본토는 대응 타격을 받음이 없이 사회주의 국가들을 타격할 수 있으리라는 망상적 타산을 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나 쏘련에서 대륙간 탄도 로케트가 출현하고 쏘련의 인공 위성들이 임의로 지구의 주위를 돌게 된 오늘 이러한 미 제국주의자들의 전략 계획은 어떠한 현실적 의의도 가질 수 없는 것으로 되여 버렸으며 미국 침략자들의 새 전쟁 도발의 기도는 더욱 희망 없는 것으로 되고 있다. 전쟁이냐 평화적 공존이냐, 제3의 길은 있을 수 없다.

실로 과학 및 군사 기술 방면에 있어서 쏘련이 압도적 우세를 차지하게 되고 세계 무대에서 력량 관계가 사회주의 진영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변화된 이때에 제국주의 침략 계층이 《힘의 립장에 선》 정책을 계속 추구한다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재촉한다는 것 이외의 아무 것도 의미할 수 없는 것이다. 때문에 《지금 우리들 공산주의자들은 이제는 전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한다》(《평화 선언》).

쏘련 인민에 의하여 달성된 과학, 기술의 위대성은 제국주의 호전 분자들, 《힘의 립장》의 지지자들을 제압하고 세계에 평화를 확보하며 전쟁의 악몽(惡夢)으로부터 인류를 영원히 해방하는 위업에 이바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으로 인류의 무궁무진한 복리를 창조하며 인류로 하여금 처음으로 우주를 정복할 수 있게 하는 거대한 세계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쏘련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된 인공 지구 위성들에 의하여 인류의 우주 려행이 공상으로부터 현실적 가능성에로 전변되였다. 일본의 학자들은 쏘련의 인공 위성들에 의하여 우주 려행 문제의 90%는 해결되였다는 견해를 발표하였다.

앞으로 로케트 기술에 열핵 반응이 도입될 때 우주 려행, 특히 달과 화성에의 려행이 원만히 준비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쏘련 과학원 유성간 교통 위원회 위원인 쓰따뉴꼬비치 교수는 최초의 달에로의 비행 또는 달 우회 비행이 1 년 반 내지 2 년 후에는 진행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발표하였다. 이것은 확실히 과학에서의 일대 혁명으로 되는 것이다.

인공 지구 위성은 물질의 상호 작용의 기본 법칙 가운데 중요한 하나를 해명해 줄 것이다. 즉 만유 인력의 전달이 시간을 요하는 것이 사실인데 뉴톤의 인력 법칙에는 이것이 무시되여 있다. 이 결함을 수정한 것이 일반 상대성 리론, 다시 말해서 중력론인데 이 리론은 아직 결정적 확증을 얻지 못하였다. 종래에는 례하면 수성의 근일점의 이동을 관측하는 것이 중요한 수단으로 되여 있었는데 너무 더디여서 백년쯤 경과해야 관측할 만한 움직임이 나타난다. 그러나 인공 지구 위성의 공전 주기는 2시간 정도이여서 몇 달쯤 경과하면 수성의 근일점에 해당하는 인공 지구 위성의 근지점(近地點)의 이동이 상당한 정도로 되여 수성의 경우의 백년 정도에 필적한다. 그러므로 인공 지구 위성에 의하여 일반 상대성 리론의 정확 여부를 세밀히 검증할 수 있다. 근지점의 이동 이외에도 인공 지구 위성에 의하여 일반 상대성 리론을 검증할 방법은 물론 있다. 이것들은 아주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것이다. 또한 인공 지구 위성은 대기가 없는 혹은 거의 없는 상공을 돌고 있으므로 태양 방사 특히 단파 자외선 방사에 대한 연구, 우주선의 제1차 성분에 대한 연구 및 은하계에 대한 연구에 새로운 진전을 재촉할 것이다. 우주선의 제1차 성분에 대한 해명은 현

대 물리학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된다. 은하계는 태양계가 속해 있는 우주의 일부분인데 심히 원거리에 있으므로 거기서 오는 빛이 약하고 따라서 지면 우에서 은하계의 구조를 연구하려면 대기층에 의한 빛의 흡수로 인하여 많은 지장을 받게 되는데 인공 지구 위성에 의하면 이것이 해소된다. 은하계의 구조가 판명되면 우주에 대한 지식도 훨씬 풍부하게 된다. 인공 지구 위성에 의하여 지구 표면의 4분의 1정도를 단번에 촬영할 수 있으므로 그것은 지형학과 지도학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며 대기층에 대한 연구에도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 오게 할 것인바 특히 일기 예보를 보다더 정확하게 할 것이며 천기 조절을 어느 정도 가능케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인공 지구 위성의 성공으로 말미암아 공중 텔레비죤 방송의 가능성까지도 예견되고 있다.

이상에서 우리는 쏘베트 과학의 위대한 면모들을 대표적인 몇개 분야에 걸쳐서 살펴 보았다.

현대 과학과 기술 발전의 총화이며 쏘베트 과학 문화의 가장 찬란한 승리의 상징으로 되는 이 모든 거대한 성과들은 임의의 조건하에서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오직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에 기초하여서만 가능한 것이다.

사회주의 제도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를 근절함으로써 생산력의 무한한 발전의 길, 광범한 로동자, 농민, 인테리 대중이 무궁무진한 지혜와 총명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쏘련은 지난 기간 두 차례의 세계 대전과 다년간의 국내 전쟁 및 외국 무력 간섭의 막대한 피해와 복구 건설의 난관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20 년밖에 안되는 평화적 건설의 짧은 기간에 자본주의 나라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빠른 경제, 문화의 발전 속도로써 혁명전 짜리 로씨야로부터 물려 받은 락후성을 청산하고 오늘날 일등급의 과학 기술로 장비된 대공업, 농업을 소유한 최대의 사회주의 강국으로 전변될 수 있었다.

위대한 쏘베트 국가의 과학은 그의 사회적 성격, 그가 담당하는 력사적 사명에 있어서 자본주의 제도하에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사회주의 제도하에서의 과학의 목적과 사명은 인민의 행복과 번영을 위하여 복무하는 데 있다.

쏘베트 과학은 공업, 농업 및 교통 운수에서 근로자들의 로력을 경감시키고 로동 생산 능률을 증진시키며 자연을 개조하며 인간을 위하여 자연을 정복하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위업에 충실히 복무하여 왔으며 또 복무하고 있다. 최신의 과학 기술의 리용을 떠나서 사회주의 건설이란 생각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레닌은 한두번만 강조하지 않았다.

그러나 자본주의 제도하에서의 과학은 오늘날 미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치배들의 자본의 축적을 증대시키는 수단으로, 침략 전쟁과 인간 도살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제도하에서는 과학과 과학 일'군들이 사회적 존경과 전 인민적 사랑을 받고 있는 반면에 자본주의 제도하에서는 과학은 독점 자본의 소유로, 상품으로 되고 있으며 과학자들은 그들의 종복으로 침략 전쟁과 인간 도살의 방조자로 복무하고 있다.

판이한 두 제도는 판이한 과학의 사명과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과학 기술 발전을 위한 상이한 조건들을 규정하는바 쏘베트 과학 기술의 발전 속도는 사회주의 제도의 생활력의 표징으로 된다. 사회주의 제도하에서는 과학 발전을 위한 모든 장애물들이 완전히 제거되고 이를 위한 무한한 가능성이 조성된다. 여기서는 과학 발전을 위한 조직적 대책 즉 전국적 과학 발전의 계획화, 집체화, 국가 자금에 의한 과학 시설들의 운영, 광범한 대중의 지혜의 인입, 과학의 대중화 등 대책들이 취해진다.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의 조건하에서는 문화 혁명의 결과로 전체 주민들의 문화 교양 수준이 현저히 제고되는만큼 또 과학 발전을 위한 아주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

자본주의 조건하에서의 과학과 기술은 상품화하지 않을 수 없다. 거기서는 자유 경쟁에 기초한 분산성과 수공업적 방법, 자연 생장성, 무정부성, 개인주의, 고립성이 지배하며 과학의 새로운 발견은 특허 또는 전매의 형식으로 자본가 개인의 독점물로, 상품으로 되며 어떤 새로운 발견 또는 발명이 독점가들의 리해와 모순될 때 그것은 말살 매장되고 만다. 로후한 자본주의 제도하에서 생산 관계는 과학 기술의 발전도 저애한다.

지난 40 년간 쏘베트 과학이 달성한 거대한 성과들은 또한 과학 발전을 위한 쏘련 공산당과 쏘베트 정부의 시책과 그의 정확한 령도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쏘련 공산당은 맑스—레닌주의적 세계관으로써 과학을 무장시켰으며 특히 변증법적 방법을 과학 발전을 위한 강유력한 리론적 무기로 되게 하였다. 쏘련 공산당과 쏘베트 정부는 과학 기관의 창설 및 과학 간부 양성 등 과학 문화 사업을 전국적 범위에서 계획적 체계적으로 진행하였으며 또 하고 있다. 과거 짜리 시대의 과학 연구 사업은 몇 개의 대학에 국한되여 있었다. 그러나 10월 혁명 후 쏘베트 국가의 창건자인 위대한 레닌은 쏘베트 주권이 수립된 첫날부터 과학 발전을 위한 결정적 대책들을 취하여 쏘베트 과학 발전을 위한 토대를 축성하여 놓았다.

과학 문화 발전을 위한 당과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쏘련 각지에는 과학 연구 기관들이 광범히 설치되였다. 당과 정부는 인민 경제 분야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과학 기관들을 모쓰크바나 레닌그라드 뿐만 아니라 각 가맹 공화국 또는 중요 산업 지대에 설치하여 그 지방의 특수성과 요구에 따라 다방면적인 과학 연구 사업을 발전시켰다. 쏘련 과학원을 비롯하여 각 가맹 공화국들에는 13개의 과학원이 창설되였으며 이것들은 쏘련 과학 연구 사업의 중추부를 이루고 있다. 이외에도 각 산업 부문들 및 각 대학들에서 많은 과학 연구 기관들을 가지고 있는바 의학, 농학, 교육학 등 방면에는 독립적인 연구소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지난 40 년간 과학 사업에 종사하는 인원 수는 100 배로, 과학 발전을 위한 국가 예산은 1천배로 장성하였다. 현재 쏘련에서 과학 사업에 종사하는 인원은 무려 400만에 달하고 있으며 그 질과 량에 있어서 세계 어느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류례를 볼 수 없는 쏘베트 과학 대렬의 위력을 과시하고 있다. 오늘 쏘련은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이며 1등가는 과학의 나라이다.

쏘베트 과학의 위력의 원천은 실천, 생활과의 그의 불가분적 련계에 있으며 광범한 과학 분야들의 유기적 통일과 연구 사업의 집체성에 있다. 인공 지구 위성들의 성공적 발사에서 표현된 쏘베트 과학의 위력과 승리는 어떤 개별적 연구의 우연적 결과인 것이 아니며 웅대하고 치밀한 계획하에서의 수다한 과학 부문들의 유기적 협조와 집체적 연구의 산물이며 1등급의 사회주의적 공업과의 련계의 산물인 것이다. 여기에 바로 쏘베트 과학과 쏘베트 제도 자체의 우월성이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자본주의와의 평화적 경쟁에서 그를 훌륭하게 타승하고 있는 사회주의는 전 세계 모든 선량한 인민들을 포옹하면서 인류의 념원을 실현하며 세계의 면모를 변혁시키는 위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오늘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이 압도적 우세를 차지하고 세계에서 사회주의가 결정적으로 승리하는 전환을 이룩함에 있어서 쏘련의 위력은 결정적 요인으로 되고 있다.

이러한 력사적 전환기에 처한 현 국제 정세는 우리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우리 조선 인민을 무한히 고무하여 주고 있으며 우리 나라의 내부 정세의 발전을 우리에게 더욱 유리하게 하는 거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실로 쏘련의 위력의 장성, 그리고 그를 선두로 한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의 장성은 우리 조선 인민의 승리를 촉진하는 강력한 담보로 된다.

농업국으로부터 공업—농업국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리 석 심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경제적 토대를 공고히 구축하는 데 있어서 나라의 사회주의적 공업화는 중심적 과업으로 된다. 우리 나라를 강력한 사회주의적 공업을 가진 나라로 전변시키지 않고는 사회주의 건설의 과업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나라의 사회주의적 공업화가 없이는 국가의 경제적 자립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의 향상을 달성할 수 없다. 나라의 사회주의적 공업화가 없이는 농업까지도 포함하여 전체 인민 경제를 현대적 기술의 기초 우에 올려 세울 수 없으며 사회주의의 종국적 승리를 보장할 수 없다. 나라의 사회주의적 공업화가 없이는 또한 현대적 국방력을 보장할 수 없다.

이리하여 나라를 공업화하며 현대적인 대규모 공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의 승리를 위하여 필수적인 조건으로 된다.

식량과 경공업 원료들을 공급하는 농촌 경리는 인민 경제에서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된다. 특히 우리 조국이 량단되여 주되는 농업 생산 지대인 공화국 남반부가 분리되여 있는 조건하에서 농촌 경리의 급속한 발전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농촌 경리의 발전은 인민 경제의 모든 다른 부문들과 마찬가지로 공업 생산의 발전에 기초하여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공화국 남반부에서 리 승만 괴뢰 도당은 나라를 미제의 상품 시장으로, 농업—원료 공급지로 전환시키면서 《농본주의》를 말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농업이 인민 경제의 기본적 부문으로 되는 것은 노예 사회나 봉건 사회에서의 일이다. 《농본주의》는 리 승만 괴뢰 도당이 미제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을 충실히 집행하면서 공업을 발전시키려고 하지도 않으며 또 발전시킬 수도 없는 데서 나오는 파렴치한 기만에 불과하다. 미제의 식민지로 전환되고 있는 조건하에서는 공업의 발전이 불가능한 동시에 농업도 역시 발전할 수 없다. 오늘 남조선의 민족 산업은 여지 없이 파탄되였을 뿐만 아니라 농업 생산 역시 감퇴의 일로를 걷고 있으며 해마다 수백만의 농촌 주민이 절량으로 인하여 기아선상에서 헤매이고 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 공업화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리론과 쏘련에서의 력사적 경험을 창조적으로 적용하면서 일제 식민지 통치하에서 락후한 농업국의 범주에 속하던 우리 나라를 현대적 공업을 가진 나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계속 투쟁하여 왔다.

발전된 공업 국가로 되는 것을 종국적 목표로 하는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공업화는 극히 락후한 농업 국가의 형편으로부터 출발하였던 것이다.

일제는 해방전 우리 나라에서 주로 본국 산업에 원료,반 제품을 공급하는 부문들과 일부 화학 공업, 군수 공업 등 약간의 중공업 부문들을 편파하게 발전시켰다. 례를 들면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 일제 산업에 원료,반 제품을 공급하던 광석 채굴업 및 야금 공업은 1944년에 공업 총생산액 중 29%를 차지하였는데 중공업 부문들 중 핵심적 부문으로 되는 기계 제작 공업은 기타 금속 가공 공업을 합쳐서도 공업 총생산액의 1.6%(1944년도에)밖에 차지하지 못하였다. 화학 공업은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 가공 공업 총생산액의 약 절반을 차지하였다. 화학 공업은 현대 공업에서 물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나라에서 이렇게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다른 공업 부문들의 혹심한 락후성 때문이였다.

일제하 우리 나라에서 경공업은 특히 미약하게 발전되였다. 압도적 대다수의 인민 소비품들이 일본 본토로부터 수입되고 약간의 부문들에서만 소규모적인 생산이 발전하였다. 인민 생활에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경공업 부문의 하나인 방직 공업은 북반부에서 1944년에 전체 공업 생산의 6%를 차지하였을 뿐이며 중요한 일용품들, 례컨대 신발, 내의류, 양말, 문방구, 의약품, 판유리 등의 생산은 거의 발전되지 않았다.

해방전 우리 나라 공업에서의 중공업 부문과 경공업 부문간의 호상 관계를 보면 중공업 부문이 공업 생산액 중에서 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1944년에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 공업 생산액 중 중공업과 경공업의 비중은 각각 70.4% 및 29.6%로 되여 있었다. 이것은 얼핏 보기에는 공업이 발전한 나라들에서의 공업의 두 부류간 호상 관계와 류사하지만 (례컨대 쏘련에서는 1955년에 두 부류간 호상 관계가 70.6 대 29.4였고 이 해에 중공업,경공업간의 호상 관계가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에서는 65.6 대 34.4, 체코슬로바키야에서는 60 대 40으로 되여 있었다) 그것은 해방전 우리 나라 공업의 높은 발전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공업 부문의 혹심한 락후성을 반영하는 것이며 또 중공업 부문 내부에서의 혹심한 불균형성을 내포하는 수'자였다.

해방전 우리 나라에서의 공업 생산액과 농업 생산액의 대비를 보여 주는 수'자들도 그것들이 내포하는 내용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농업 생산액과 공업 생산액의 대비는 1938년에 48 대 52, 1940년에 52.3 대 47.7로 되여 있었다.

이리하여 해방전 우리 나라에서는 공업 생산액과 농업 생산액이 대체로 비등한 형편에 있었다. 그러나 이미 본 바와 같이 해방전 우리 나라에서는 공업이 편파하게 발전하여 원료, 반 제품 생산에 치우쳤고 인민 생활에 가장 필요한 소비품들을 거의 공급하지 못하는 형편에 있은만큼 해방전 우리 나라는 기본적으로 농업 국가라고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해방 후 우리 조국의 량단은 남반부를 더욱 락후한 농업 지대로 만드는 동시에 북반부를 식량과 기타 농산물이 부족한 지대로 만들었다. 그리하여 해방 직후 우리 나라는 공업이 락후하고 편파적인 동시에 농업 역시 극히 락후한 형편에 처해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나라에서 나라의 사회주의적 공업화가 극히 락후한 농업 국가의 형편으로부터 그나마 농업 생산도 극히 부족한 형편으로부터 출발하였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와 같은 조건하에서 당과 정부는 해방 후 국유화된 공업을 급속히 복구 발전시키는 동시에 락후한 농업 생산의 급속한 발전을 위하여 거대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토지 개혁의 결과 농업 생산력의 발전을 구속하던 낡은 생산 관계가 철폐되고 농민의 생산에 대한 열성이 제고된 것과 당과 정부의 정확한 시책들에 의하여 전쟁전 시기에 경지 면적이 급속히 확대되고 단위 면적당 수확고가 점차 제고되여 북반부는 식량이 부족하던 지대로부터 식량이 여유 있는 지대로 전변되였다. 농작물 파종 면적은 1946년을 100으로 하여 1948년에는 122, 1950년에는 125로 증가되였으며 농작물 수확고는 1946년을 100으로 하여 1947년 109, 1948년 141, 1949년 140으로 급속히 증가되였다.

이러한 농업 생산의 급속한 장성은 공업 인구에 식량을 보장하며 경공업 원료의 공급을 증대시키면서 공업 발전에 필요한 하나의 조건을 충족시켰다.

전쟁전 평화적 건설 시기에 달성된 농촌 경리 복구 발전에서의 성과는 우리 농업이 전시의 시련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였으며 전후 시기에 당과 정부가 취한 대책들에 의하여 농촌 경리를 더욱 급속히 발전시킬 수 있게 하는 토대로 되였다. 전후 시기에 당과 정부의

정확한 농업 정책에 의하여 우리 나라 농촌 경리는 급속히 협동화되였으며 관개 면적의 확장, 화학 비료 공급의 증대, 옥수수 파종 면적의 확장, 선진적 영농 방법의 적극적 도입 등 대책으로 농업 생산은 급속히 증가되여 1956년에는 알곡 생산량이 1949년에 비하여 108%로 장성하였고 1957년도에는 1949년의 119%에 해당하는 320만 톤 이상의 알곡을 수확하였다.

이와 같이 당과 정부는 우리 나라에서 인민 경제를 발전시키며 나라를 공업화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커다란 장애로 되는 농업 생산의 락후성을 성과적으로 퇴치하여 왔으며 나라의 경제 발전과 로농 동맹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지어 놓았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적 공업화를 위한 당과 정부의 노력은 이와 같이 긴절하게 제기된 농업 생산 장성의 과제를 해결하는 투쟁과 밀접히 결부되여 있었다.

당과 정부는 공업을 복구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일제로부터 물려 받은 인민 경제의 실정을 타산하며 사회주의적 공업화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창조적으로 적용하면서 우리 나라의 형편에 가장 적합한 방침을 택하였다.

당과 정부는 우리의 공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결함인 식민지적 편파성을 점차 퇴치하면서 중공업 내부의 부문 구조를 점차 개선하면서 그것을 급속히 발전시키며 그 기초 우에 경공업 부문들을 동시에 급속히 발전시키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나라의 사회주의적 공업화에 있어서 생산 수단들을 생산하는 중공업 부문의 우선적 장성은 생산 확대의 필수적 조건이다. 그러므로 당과 정부는 우리 나라에서 과거에 편파하게나마 어느 정도 발전한 중공업 부문들을 토대로 하여 우리 경제의 자립적 발전에 가장 긴절한 부문들을 중심으로 중공업 부문들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우리 나라에서 특히 락후하였던 경공업 부문들을 일정하게 급속히 발전시키는 방침을 취하였다.

이와 같이 공업 부문의 구조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관심을 돌리면서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과 동시에 경공업 및 농업의 일정하게 급속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원래 우리 나라 인민 경제에 일제로부터 물려 받은 혹심한 락후성과 편파성이 있었고 남반부 농업 지대와 북반부가 분리됨으로써 해방 후 농산물 증산에 특별한 주의를 돌릴 필요가 있었고 전후 시기에는 또 전쟁으로 인하여 령락된 인민 생활을 급속히 향상시켜야 할 긴절한 과업이 제기된 조건하에서 유일하게 정확한 로선으로 된다.

따라서 이러한 로선은 사실상 전쟁전 시기에도 실시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물론 전쟁전 평화적 건설 시기와 전후 복구 건설 시기와의 사이에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 공업 분야만 두고 보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다 같이 복구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전 시기에는 공업화의 자금 원천이 충분히 개발되지 못하고 공업화를 위한 기술 인재의 준비가 극히 부족했고 따라서 아직 공업화의 과업이 제기되지 못하였었다. 그러나 전후 복구 건설 시기에는 전쟁에서 고통 받은 인민 생활을 급속히 향상시켜야 할 과업과 동시에 반드시 나라의 장래 공업화의 기초를 축성하여야 할 과업이 또한 제기되였던만큼 공업의 복구 건설이 단순한 복구로 되지 않고 공업화의 과업과 직접적으로 결부되여 있었으며 또 이러한 과업들은 쏘련을 비롯한 형제 나라 인민들의 자금, 자재 및 기술상의 거대한 방조가 보장됨으로써 능히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다.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과 경공업 및 농업의 동시적 발전의 방침에 따라 중공업 부문들에서의 락후성, 편파성을 퇴치하는 사업에 있어서 이미 거대한 성과가 달성되였다. 중공업의 핵심적 부문인 기계 제작 및 금속 가공업은 해방전 1944년에 공업 총생산액의 1.6%만을 차지하던 것이 1949년에는 그 비중이 8.1%로 제고되였고 1956년에는 17.3%에까지 제고되였다. 그리하여 기계 설비, 부속품들, 농기계 등에 대한 수요의 상당한 부분이 국내 생산으로 충족될 수 있게 되였다. 흑색 금속 공업 부문에서 선철 생산, 강철 생산, 압연재 생산 등 부문간의 혹심한 불균형이 현저하게 퇴치되였다. 전후 시기에 경공업 및 농업에 생산 수단을 공급하는 부문들이 특히 급속히 발전하였다. 그리하여 례컨대 건재 공업은 공업 총생산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44년에 2.5%이던 것이 1956년에는 4.8%로 장성하였다. 일반적으로 말하여 기계 제작업과 건재 공업의 급속한 발전은 확대 재생산의 높은 템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1차적인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견지로 보아도 우리 나라에서 전후 시기에 중공업의 발전은 인민의 의식주 문제 해결에 기여하면서 인민 경제의 급속한 발전을 위한 토대를 성과적으로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가공 공업 부문들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채취 공업에 속하는 일부 생산 수단 생산 부문들은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축소되게 되였다. 광석 채굴업은 1944년에 공업 총생산액 중에서 그 비중이 15.7%이던 것이 1956년에 6.1%로 저하되였으며 림업은 1944년에 그 비중이 20%이던 것이 1955년에는 그 비중이 7.1%로 저하되였다.

이와 같이 하여 우리 나라의 중공업은 그 부문 구조를 현저하게 개선하면서 총체적으로는 그 생산이 급속히 장성하였다. 우리 나라 중공업 생산은 1946년부터 1949년간에 3.7 배로 장성하였으며 1949—1956년간에는 1.7 배로 장성하였다. 이것은 중공업 생산이 1946—1956년간에 약 6.3 배로 장성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공업 부문들을 급속히 발전시키며 특히 인민 생활에 긴절한 소비품 생산 부문들을 발전시키는 사업에서 해방 후 오늘에 이르는 기간에 이미 거대한 성과들이 달성되였다. 해방전 1944년에 공업 총생산액 중에서 6%의 비중만을 차지하고 있었던 방직 공업은 1956년에 18.4%의 비중을 차지하게 되였다. 그리하여 면직물 생산은 1955년에는 1944년에 비하여 46 배로 장성하였고 견직물 생산은 8.3 배로 장성하였다. 1955년에 1944년과 대비하여 내의류는 26 배로, 양말류는 13 배로, 고무신은 155%로 각각 그 생산이 장성하였다. 기호품 및 식료품 가공 공업은 1944년에 그 비중이 7.8%이던 것이 1956년에 13.2%로 장성하였고 의약품 공업은 1944년에 그 비중이 0.2%이던 것이 1955년에는 1.8%로 장성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경공업 부문 역시 그 부문 구조가 현저히 개선되면서 총체적으로 그 생산이 급속히 장성하였다. 경공업 생산은 1946—1949년간에 2.9 배로 장성하였으며 1949—1956년간에 2.1 배로 장성하였다. 그리하여 경공업 생산은 1946—1956년간에 6 배 이상 장성한 것으로 된다.

이상과 같이 해방 후 오늘날까지 사이에 중공업과 경공업은 식민지적 편파성을 현저하게 퇴치하면서 급속한 발전을 달성하였다. 공업 전체로 볼 때 그 총생산액은 1956년에 1949년 수준을 1.8 배, 1946년 수준을 약 6 배 그리고 해방전 1944년 수준을 2.2 배로 릉가하였다. 그리하여 공업 및 농업 총생산액 중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해방 후 농업 생산이 급속히 장성한 조건하에서도 일정하게 증대되여 1956년에는 60%로 되였다.

전쟁전 시기에 인민 경제의 복구 발전에서 달성된 성과와 전후 시기에 달성된 경제 건설에서의 성과들로 말미암아 우리 인민 경제는 오늘날 8. 15 해방 직후 내지는 해방전 형편과 질적으로 상이한 면모를 가지게 되였다.

즉 공업에서 부문 구조가 현저하게 개선되여 식민지적 편파성이 상당한 정도로 퇴치되였다. 공업 생산의 수준은 해방 직후에 비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해방전 1944년 수준을 수배로 릉가하게 되였다. 농업 생산이 식량에 대한 수요를 능히 충족시킬 수 있게 되였다. 농업 생산이 급속히 증대된 조건하에서도 공업 생산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하여 인민 경제에서의 공업 생산액의 비중이 일정하게 제고되였다.

그리하여 1956년도에 공업 및 농업 생산액 중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60%이라는 비중은 해방전 시기에 있어서의 표면상 이와 비슷한 공업 생산액의 비중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을 의미한다. 해방전 시기에 있어서의 공업 생산액의 표면상 높은 비중은 농업의 혹심한 락

후성, 공업 내부에서의 경공업 부문의 기형적인 락후성과 중공업 내에서의 본질적 결함을 가진 편파적인 부문 구조를 반영하는 것이라면 1956년에서의 공업 생산액의 상기한 바와 같은 비중은 그 내용에 있어서 훨씬 더 균형적으로 발전한 공업과 농업의 발전 수준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공업 및 농업 생산액의 대비는 그것으로 우리 인민 경제의 총체적 발전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의 자격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이상과 같은 데로부터 전후 인민 경제 복구 건설 3개년 계획을 성과적으로 완수한 결과로 우리 나라는 과거의 락후한 농업 국가의 형편으로부터 벗어나 급속히 공업—농업 국가에로 전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 나라 근로자들은 우리 당 중앙 위원회 1956년 12월 전원 회의의 결정에 고무되면서 제1차 5개년 계획의 첫해인 1957년도 인민 경제 계획의 초과 완수를 위한 로력 투쟁에서 또다시 위대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인민 경제의 계획 과제는 물론 근로자들의 증산 과제가 성과적으로 달성되여 1957년에 공업 부문에서는 1956년에 비하여 약 40%라는 거대한 생산 증대가 예견된다. 농촌 경리 부문에서도 불리한 자연 조건을 극복하여 국가 계획보다 수십만 톤이 초과되는 320만 톤 이상의 알곡 생산을 보장하였다.

1957—1961년간의 우리 나라 제1차 5개년 계획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경제적 기초를 더욱 튼튼히 하며 인민의 의식주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그 기본 과업으로 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제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기계 제작 공업, 경공업 부문 등에 잔존하는 락후성을 퇴치하며 원료, 반 제품 생산을 완제품 생산에로 계속 발전시키며, 연료 동력 기지를 강화하며, 흑색 금속 공업, 건재 공업 등을 급속히 발전시킴으로써 우리 인민 경제의 식민지적 편파성과 락후성을 완전히 퇴치하고 앞으로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을 현대적 기술로써 장비하며 대규모적인 건설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토대를 닦아야 한다. 농촌 경리 부문에서는 사회주의적 집단화를 완성할 과업이 제기된다. 또한 인민의 의식주 문제의 기본적 해결을 위하여 공업의 발전과 농업 생산의 증대에 기초하여 인민 소비품 생산의 급속한 확장을 달성하여야 한다.

제1차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인 1961년에 가서 우리 인민 경제는 1 년간에 95억 키로와트시의 전력과 약 1천만 톤의 석탄, 200만 톤 이상의 쎄멘트, 60만 톤 이상의 화학 비료를 생산하는 중공업을 가지게 될 것이며 경공업 부문에서는 인구 1인당 17 메터 이상의 각종 직물을 생산하게 될 것이며 수산업은 년산 60만 톤 이상의 어획고를 보장하고 농촌 경리는 1 년에 알곡 370만 톤 이상을 생산하게 될 것이 예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생산량은 인구 1인당으로 볼 때 오늘날의 발전된 공업 국가들에서의 수준에서 아주 먼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장구한 일제 식민지 통치하에서 세기적으로 락후한 경제 형편에 처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오늘 우리는 인민 경제의 급속한 속도의 발전에 의하여 선진적 나라들과의 차이를 축소시키는 데 있어서 적지 않은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우리의 제1차 5개년 계획은 이 사업에서 더욱 거대한 전진으로 될 것이다.

공업 생산액과 농업 생산액의 대비는 제1차 5개년 계획 말까지에는 공업의 비중이 현저히 제고될 것이다. 식민지적 편파성과 락후성이 완전히 퇴치되는 조건하에서 농업 생산액에 대한 공업 생산액의 현저한 우세는 우리 나라를 당당한 공업—농업 국가로 전환되게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형편으로 보아 우리 나라는 지금 바야흐로 공업—농업 국가에로 전환되는 시기에 처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 나라가 공업—농업 국가로 전변된다는 것은 우리 나라 력사에서 획기적인 일로 된다. 공업—농업 국가라는 것은 이미 공업 국가의 범주에 드는 것이며 그리하여 우리는 수백년간에 걸친 우리의 세기적 락후성을 극

복하고 현대적으로 발전된 경제를 가진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다.

나라가 공업—농업 국가로 될 때 우리는 나라의 공업화의 기초를 튼튼히 구축한 것으로 되며 농업의 집단화를 완료하는 조건하에서 농촌 경리 역시 새로운 기술적 토대 우에서 발전하기 시작하여 우리 나라는 능히 자체의 힘으로 계속 빠른 속도로 생산을 확대해 나갈 수 있게 된다. 나라가 공업—농업 국가로 전변되는데 따라 우리는 인민의 생활에 필요한 소비품들과 식량을 자체의 힘으로 보장하여 인민의 의식주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는 동시에 인민 생활을 계속 개선 향상시킬 수 있는 공고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이 하여 우리가 공화국 북반부에서 민주 기지를 더욱 공고히 하며 공화국 북반부를 지상 락원으로 전화시키는 사업에서 거대한 전진이 이루어 지게 되며, 이것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하는 강력한 물질적 힘으로 될 것이다. 공화국 북반부가 현대적인, 발전된 공업과 농업을 가진, 인민 생활의 락원으로 전변됨에 따라, 미제의 식민지로서 산업과 농업이 여지 없이 피폐되여 가는 남조선의 현실은 전체 인민을 더욱 힘차게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을 반대하는 투쟁에로 궐기시킬 것이다.

해방 후 12 년간에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은 남조선 인민들에게 전고 미문의 폭압과 생활고를 가져다 주었을 뿐이였으며 앞으로도 미제와 리 승만 괴뢰 도당의 반인민적 통치가 계속되는 한 남조선 경제의 파탄과 인민 생활의 일층의 령락은 불가피하다.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적 추진, 이에 따르는 우리 나라의 락후한 농업국으로부터의 공업—농업 국가에로의 전환은 조선 인민과 그 적들 간의 력량 관계를 더욱 우리에게 유리하게 전변시킬 것이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우리의 투쟁을 더욱 성과적으로 추진시킬 수 있게 할 것이다.

우리 나라가 해방 후 오늘에 이르는 짧은 기간에 혹심하였던 식민지적 편파성과 락후성을 현저하게 퇴치하고 제1차 5개년 계획 기간 내에 공업—농업 국가로 전변할 수 있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당의 경제 정책이 정확하였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적 경제 토대를 더욱 튼튼히 구축하며 발전된 공업—농업국으로의 전환을 위하여서는 제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많은 경제적 과업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제1차 5개년 계획 기간의 우리 당 경제 정책에서 똑똑히 반영되고 있으며 이 계획 과제들의 성과적인 수행은 전 당적, 전 인민적 과업으로 제기된다.

우리 당은 제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있어서도 우리 인민 경제에 잔존하는 식민지적 편파성과 락후성을 퇴치하면서 인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그 기초 우에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방침을 계속 견지하게 될 것이다.

우리 당은 계속 인민의 의식주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절실히 필요한 부문들 례컨대 강재를 보장하기 위한 금속 공업, 화학 비료와 인조 섬유 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화학 공업, 쎄멘트를 비롯한 건재 공업 등과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 기계 설비와 부분품들을 보장하는 기계 제작업 등에 중점을 두면서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며 중공업의 발전에 기초하여 경공업과 농업을 급속히 발전시켜 소비품들의 생산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우리 당은 계속 원료, 반 제품 생산을 완제품 생산에로 전환시키면서 전반적으로 가공 공업을 더욱 발전시키며 기술적 장비를 강화하며 품종을 확대하고 제품의 질을 제고시키면서 우리 공업의 식민지적 편파성과 락후성을 완전히 퇴치하고 공업의 자립적 토대를 강화하는 방침을 견지할 것이다.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을 보장하면서 그 기초 우에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급속히 발전시키는 우리 당의 경제 정책 그리고 중공업의 발전에서 인민 생활의 안정 향상에 시급히 복무하는 부문들에 중점을 두면서 우리의 력량을 합리적,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우리 당의 공업 건설 방침은 당면한 인민 생활의 시급한

안정 향상을 달성하는 동시에 우리 자체의 힘으로 인민의 의식주 문제를 점차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물질—생산적 토대를 구축할 수 있게 하였다. 우리 당의 원칙적이며 동시에 창조적인 이러한 경제 정책은 앞으로도 우리 인민 경제의 성과적인 발전을 보장하며 제1차 5개년 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우리 당의 정확한 경제 건설의 기본 방향에 따라 인민 경제를 계속 발전시키며 제1차 5개년 계획의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 당 중앙 위원회 1956년 12월 전원 회의가 호소하였고 전체 근로자들이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최대한의 증산과 절약을 위한 전 인민적 운동을 더욱 가강하게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제1차 5개년 계획의 방대한 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서는 막대한 물자, 로력, 자금이 요구되는만큼 우리는 절약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절약하며 리용할 수 였는 모든 예비들을 동원 리용하여야 할 것이다.

김 일성 동지는 최고 인민 회의 제2기 제1차 회의에서 하신 연설에서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엄격한 절약 제도를 실현하며 내부 원천을 증가시키는 것은 전체 5개년 계획의 수행에 있어서 중심적인 문제로 제기됩니다. 일체 비경제적 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생산 원가와 건설 원가를 부단히 저하시키며 엄격한 경제적 타산에 기초하여 경제를 관리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라고 교시하였다.

제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공업 제품 원가 1%의 저하는 약 32억 원의 리익을, 건설 원가 1%의 저하는 약 10억 원의 리익을 주게 된다. 우리는 경제적 타산을 잘 하며 엄격한 절약 제도를 실시하여 생산 내부의 예비를 잘 리용하며 원가를 저하시키는 방도에 의하여 5개년 계획 기간에 실시할 공업 건설에 대한 투자액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자금을 얻어 내야 한다.

절약 투쟁에서 우리는 우선 원료, 자재, 연료, 전력 등 원단위 소비 기준을 계통적으로 저하시키며 온갖 랑비 현상을 근절하는 투쟁을 강화하여야 하며 더 나아가 기술적 발전에 기초하여 생산 방법을 개선하면서 추가적인 투자 없이 또는 적은 투자로써 생산을 확대할 수 있는 예비들의 리용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 인민 경제에서의 생산 내부의 예비 리용은 그 주요 방향과 그 리용에서의 방도가 과거에 비하여 일정하게 차이를 가지게 되였다. 우리 인민 경제에서는 원자재의 지출, 로동 시간의 리용 등에서의 예비가 계속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동시에 전후 인민 경제 복구 건설 기간에 확충된 고정 폰드의 리용에서의 예비 특히 그 질적인 리용 즉 설비 리용의 효률 제고에서의 예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되였다. 그리고 생산 내부의 예비 리용에서 규률과 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투쟁이 계속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동시에 선진적 작업 방법을 도입하며 기술적 발전을 달성하여 생산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예비 리용에서 더욱 중요한 방도로 되게 되였다.

그리하여 우리는 더욱 선진적 작업 방법을 도입하며 새로운 기술을 파악하기 위한 군중적 투쟁을 전개하여 형제 국가들에서 실시되고 있거나 우리 나라에서 창안된 선진적 작업 방법들을 보급하기 위한 군중적 기술 혁신 운동을 더욱 광범히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생산에서의 기술적 발전에 따라 리용될 수 있는 생산 내부의 예비들은 부단히 증대된다. 새로운 생산 방법, 작업 방법이 도입되는데 따라 과거보다 더 큰 생산 확대의 가능성이 조성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제1차 5개년 계획을 완수하기 위하여 우리 인민 경제에서의 기술적 발전을 촉진하여 생산 확대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 내고 리용하면서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 원가의 저하 등 생산 사업의 질적 지표들을 부단히 개선하여야 한다.

농촌 경리 부문에서는 협동 조합들을 더욱 조직—경제적으로 공고히 하며 협동 경리가 지배하게 된 새로운 조건에 적응하여 농촌 경리에 대한 지도 사업을 더욱 개선하며 단위 면

적당 수확고를 더욱 제고시키기 위한 투쟁을 일층 가강히 하며 농촌 경리의 기술적 개조를 추진시키기 위한 과업이 제기된다.

우리 당은 근로자들의 앙양된 애국적 로력 투쟁을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직 동원하기 위하여 인민 경제에 대한 지도를 하부에 더욱 접근시키며 경제 관리 사업을 개선하는 데 부단한 주의를 돌리고 있다. 1956년 12월 전원 회의 결정 실천을 위한 투쟁의 경험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인민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생산 예비들을 적극 탐구하며 근로자들의 창의 창발성을 적극 동원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 및 정권 기관들의 경제 조직 지도 수준을 제고하는 문제이다. 때문에 우리 당은 경제 조직 지도 사업 강화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 있으며 그의 지도 수준 제고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우리 당은 인민 경제 계획화 사업을 더욱 개선하며, 기본 투자의 분산성을 방지하고 건설 대상의 조업 기간을 단축시켜 기본 투자의 효과성을 제고시키며, 경제 관리 기관들의 생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를 보장하며 기업소들에서의 로동자들에 대한 중요한 작업 조건을 보장하는 등의 모든 부면에서 경제 사업에 대한 지도 관리 사업을 개선하는 방책들을 강구하고 있다.

당과 정부의 정확한 지도와 근로 대중의 애국적 로력 투쟁은 제1차 5개년 계획의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며 우리 나라를 공업—농업 국가로 전변시키고야 말 것이다.

우리에게는 제1차 5개년 계획을 성과적으로 완수하고 우리 나라를 공업—농업 국가로 전변시킬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존재한다.

우리에게는 조선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인,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 로동당의 정확한 지도가 있으며 당과 정부의 주위에 굳게 단결된 우리 인민의 앙양된 적극성과 무진장한 창의 창발성이 있다. 우리 인민은 전후 기간 인민 경제의 복구 건설에서 이미 거대한 경험을 축적하였으며 건설의 모든 사업들을 능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민족 간부들이 더욱더 많이 양성되고 있다.

우리는 쏘련을 비롯한 형제적 국가들과의 긴밀한 국제적 협조하에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의 풍부한 지하 자원은 우리 나라가 능히 자립적인 공업 국가로 전변될 수 있는 원료 기지와 동력 기지를 보장할 수 있다.

우리 당은 과거에 우리 나라가 편파적이나마 일정하게 발전된 중공업을 가지고 있었다는 유리한 조건을 극력 리용하면서 인민 생활의 안정 향상에 긴절히 필요한 부문들을 중심으로 공업을 적극 발전시켜 오늘까지에 이미 거대한 성과들을 달성하였으며 식민지적 편파성을 현저히 퇴치하였다. 그리하여 공업의 부문 구조가 현저히 개선되였으며 완제품 생산의 비중이 제고되였으며 공업 부문들 간의 생산적 련계가 더욱 긴밀하게 되였다. 이것은 우리 인민 경제가 앞으로 더욱 성과적으로 생산을 발전시킬 수 있는 조건으로 된다.

우리는 적지 않은 형제 국가들의 원조를 리용하면서 주로 복구의 과업을 수행하던 3개년 계획 기간으로부터 자력으로 주로 개건의 과업을 수행하는 5개년 계획에로의 이행기에 있어서 산생되는 난관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1957년도 계획 수행에서 실증되였다.

앞으로도 계속 난관들을 극복하기 위한 긴장된 투쟁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현재까지에 달성된 경제 건설의 성과들은 우리가 앞으로 난관들과 투쟁하는 데 있어서 믿을 수 있는 거점으로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지금까지 달성된 경제 건설에서의 거대한 성과들에 기초하여 당의 경제 정책 관철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전개한다면 제1차 5개년 계획의 거대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우리 나라를 더욱 부강한 공업—농업 국가로 전변시켜 우리의 세기적 락후성을 영원히 청산할 수 있다.

전체 인민들과 지도 일'군들은 당의 정확한 경제 정책을 사상적으로 접수하고 해당 부문에서 제기되는 긴절한 과업들과 그를 해결하는 주요 방도들에 대한 당의 지시, 방침을 정확히 실천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 공업 부문별 구조의 변화와 기계 제작 공업의 과업

방 호 식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는 해방 이후 10 여 년에 걸쳐 우리 나라 공업 부문별 구조의 식민지적 편파성을 퇴치하며 그의 자립적 및 균형적 발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 왔다.

민족 경제의 자립성을 보장하며 공업 부문별 구조의 개조와 그의 공고 발전을 위한 우리 당의 경제 정책은 시종일관 우리 나라 경제 발전의 구체적 현실로부터 출발하여 사회주의 경제 법칙들의 객관적 요구를 충분히 인식 리용한 기초 우에서 수립되였다.

당의 정확한 경제 정책의 결과 이미 우리 나라 공업 부문별 구조의 식민지적 편파성은 현저히 퇴치되였다. 우리는 지금 자립적 민족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구축하며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 기초를 축성하는 력사적인 위업의 수행기에 들어 섰다.

일제하 우리 나라 공업 부문별 구조는 일제에의 완전한 식민지적 예속성으로서 특징지어 진다.

일제하 우리 나라 공업 부문별 구조의 특성을 규정하는 식민지적 예속성 및 편파성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되였다.

우선 우리 나라 공업 부문별 구조의 형성 원칙과 방법에서 표현되였다.

공업의 부문별 구조는 사회적 생산 방식 즉 생산 관계와 생산력의 발전에 의하여 규정된다. 사회적 생산 관계의 성격은 공업 부문별 구조의 형성 원칙과 그의 방법을 규정한다. 따라서 자본주의하에서의 공업 부문별 구조는 사회주의적 생산 방식하에서의 공업 부문별 구조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특히 식민지 예속 국가에 있어서의 그것은 맹목적 및 자연 발생적인 자본주의 경제 법칙들의 작용에 의하여 지배되는 제국주의적 종주국의 자체 경제 발전의 력사적 특성에 의하여 조건지어 진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식민지 예속 국가들에서의 공업의 부문별 구조의 형성과 그의 발전은 자본주의 기본 경제 법칙과 경쟁 및 생산의 무정부성의 법칙의 작용에 의하여 규정되며 특수적으로는 종주국 자체와 해당 식민지 경제 발전의 구체적 실정에 의하여 규정된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부터 과거 일제하 우리 나라 공업 부문별 구조의 형성 및 그의 발전은 일방으로는 일제 독점 자본가들의 최대한의 리윤 추구와 결부되였으며 타방으로는 일제 자본주의 경제의 후진성과 20세기 초기에 있어서의 우리 나라 봉건적 생산 방식하에서의 령세한, 수공업적인 경제 토대와 관련되였다.

이렇게 과거 우리 나라의 공업 부문별 구조는 우리 나라의 민족 경제 발전의 객관적 요구에 의하여 조건지어진 것이 아니라 일본 경제 발전의 리익의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상술한 바의 공업 부문별 구조 형성의 원칙과 방법상에 있어서의 특성은 일제하 우리 나라 공업 부문별 구조 자체의 특성 즉 공업 부문 상호간에 있어서의 량적 비례 관계와 생산적 련관성을 규정하였다.

공업은 일정한 경제적 사명을 가진 제품을 생산하는 개별적 부문들의 단순한 산수적 총체가 아니며 개별적 공업 부문은 확대 재생산 과정에서 다른 공업 부문들과 유기적으로 련관되여 있다. 따라서 개별적 공업 부문은 사회의 물질적 부의 생산에서 고립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의 유기체의 한 구성 부문으로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유기적 관계는 로동 수단과 로동 대상의 확대 재생산 과정에서 표현된다. 사회적 확대 재생산 과정의 유기적인 생산적 련계는 개별적 공업 부문들 상호간 및 다른 기타 물질적 부의 생산 부문과의 일정한 조화된 량적 상호 관계의 보전을 필요로 한다. 자본주의하에서는 이러한 개별적 공업 부문들 상호간의 량적 비례 관계 및 생산적 련계는 경쟁과 생산의 무정부성의 법칙에 좌우되면서 자연 발생적으로 맺어진다.

일제하 우리 나라 공업의 부문별 구조는 전'적으로 일본 공업에 예속되여 있었다. 일제하의 우리 나라의 중공업과 경공업의 상호 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중공업과 경공업 비률

구분 \ 년도	1930	1937	1942
중 공 업	38.2%	57.8%	72.7%
경 공 업	61.8 〃	42.2 〃	27.3 〃

물론 1930년으로부터 1940년대에 이르기까지 중공업이 급진적으로 발전한 것은 우리 나라의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를 닦는 중공업이 발전되였음을 의미함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일제가 중국 대륙을 침략하면서 조선에서 주로 원료 채취 공업과 일련의 군수 공업을 발전시킨 것과 관련된다.

식민지 예속 국가에서 중공업은 로동 도구의 생산이 아니라 바로 로동 대상 즉 원료 반제품의 생산으로써 특징지어 진다. 따라서 일제하 우리 나라 중공업에서 공업 및 전체 인민 경제의 핵심적 부문인 로동 도구를 생산하는 공업 부문 특히 기계 제작 공업은 거의 결여된 상태에 놓여 있었다. 기계 기구 공업은 1943년에 가공 공업 총생산액에서 겨우 6%에 해당하였다.

또한 일제하 우리 나라 공업 부문별 구조의 예속성과 식민지적 편파성은 그의 기술적 기초의 락후성에서도 명백히 표현되였다.

인간 로동을 헐하게 하며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시키는 기계는 자본주의하에서 어느 때나 도입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기계는 오직 그가 자본가들에게 리윤을 조성하여 주는 때에라야만 생산에 도입된다.

일제는 조선에서 값싼 로동력을 비인간적으로 착취하여 높은 리윤을 획득할 수 있었던 만큼 생산에로의 새 기술의 도입에 관심을 돌리지 않았다.

또한 일제하 조선 공업의 기술적 취약성은 이러한 산 인간 로동에 대한 가혹한 식민지적 착취 체계에 기인할 뿐 아니라 일본 자체 내의 로동 도구 생산 부문의 후진성에도 기인하였다. 일본 기계 제작 공업은 금속 및 기타 일련의 중공업 부문에 비해 극히 락후하였던 바 이는 일제의 대륙 침략에 따르는 군수 공업의 발전과 더불어 1930년대 이후부터야 비로소 급진적 발전을 보게 되였던 것이다.

조선 공업의 기술적 락후성과 식민지적 편파성은 공장 규모에서도 여실히 표현되였다. 1939년 현재로 로동자 수에 의한 규모별 공장 통계에 의하면 가공 공업의 전체 공장 수의 98%는 로동자수 200 명 미만의 중 소 공장이 차지하였으며 전체 로동자 수의 60.7%가 중 소 공장에서 일하였다. 그러나 생산액 면으로 보면 공장 수의 2%에 불과한 대규모 공장이 가공 공업 총생산액의 61.8%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것은 조선 내의 대부분의 공장이 수공업적 령세 공장이였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하여 준다.

그중에서도 기계 제조 공장의 규모는 특히 령세하였다. 1939년 현재 로동자 30 명 미만의 소공장이 전체 기계 공장 수의 74%에 달하였고 200 명 이상의 로동자를 가진 대공장의 생산액은 기계 공장 총생산액의 52.7%로서 기계 기구 공업에서 대규모 공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인민 경제에서의 가공 공업 전반의 비중보다 훨씬 낮았다.

이러한 공업 부문 기업소들의 기술적 락후성과 규모의 령세성은 또한 생산 조직 및 기업소 내부 분업의 미약성을 규정하였다. 기술 갑

부에 있어서는 그의 절대 다수를 일본인이 차지하였다. 실례로 1944년에 전체 가공 공업 부문 기술자 총수 8,476명 중 조선인은 1,632 명으로서 총수의 20% 밖에 되지 않았다. 특히 금속 공업, 화학 공업, 기계 공업 등 핵심 공업에 있어서 조선인 기술자 수는 더욱 적었다.

일제하 조선 공업 부문별 구조의 식민지적 특성은 그의 지리적 배치의 불균형성과 결합되였다.

자본주의하에서 공업의 지리적 배치의 특성은 자본주의적 경제 법칙의 작용에 의하여 조건지어 진다. 그것은 공업 중심지와 농산지간, 또 생산지와 원료 원천지 및 소비지간, 채취 공업과 가공 공업간의 불합리한 배치, 경제적 지방의 종합적 발전의 결여 등으로 표현되였다.

과거 일제하 우리 나라에서의 생산력 배치는 상술한 자본주의하에서의 지리적 배치의 일반적 특성과 또한 가혹한 식민지적 특성을 내포한 극단한 불합리성과 불균형성을 반영하여 공업 중심지들이 주로 해안 지대에 배치되였으며 (서울, 인천, 평양—남포, 함흥, 청진, 부산, 신의주) 중공업(북조선)과 경공업 (남조선), 채취 공업(북조선)과 가공 공업 (남조선) 지역이 분리되였으며 따라서 경제적 지방 자체의 자연 경제적 특성에 기초한 종합적 발전이 결여되였으며 공업과 농업간의 지리적 및 생산적 련계가 미약하였다.

*　　　*

해방 후 우리 나라는 자립적 민족 경제 발전의 새로운 력사적 발전 단계에 들어 서게 되였다.

우리 나라의 해방과 더불어 우리가 급속히 해결하여야 할 과업은 우선 일제가 파괴한 공업을 전반적으로 급속히 복구 정리하며 과거 일제로부터 물려 받은 공업의 혹독한 식민지적 편파성을 퇴치하고 공업과 농업, 운수 등 인민 경제 각 부문간 및 공업 부문 자체 내에서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하는 것 등이였다. 특히 과거 우리 나라에 없었던 기계 제조 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키며 인민 생활의 급속한 향상을 위하여 식료품 공업과 기타 경공업 부문들을 발전시키는 것이 요구되였다.

이와 동시에 일제로부터 물려 받은 락후한 기술적 토대를 퇴치하고 나라의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를 구축하는 문제가 요구되였는바 이와 같이 중요한 과업들을 해결하는 문제는 쉬운 일이 아니였다. 공업 부문 앞에는 다음과 같은 커다란 난관들이 있었다.

즉 패망 당시 일제가 우리 나라에 극히 미약한 기술적 토대를 남겨 놓은 것인바 우리는 복구 건설에서 가장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기계 제조 공업, 건설 및 건재 공업 등을 거의 가지지 못하였었다.

이와 같이 미약한 기술 경제적 토대를 남겨 놓은 데다가 일제는 패망 당시 수다한 우리 나라 공업 기업소 및 탄광들을 혹심히 파괴하였다. 즉 그들은 64 개소의 탄광,광산을 파괴 침수시켰으며 178 개소의 탄광,광산들을 부분적으로 침수 또는 파괴하였다. 금속, 전기 부문의 4개 기업소가 완전히 파괴 당하였으며 기타 47 개의 기업소가 심대한 손실을 입었다. 이렇듯 당시 공업 복구 건설의 기초로 되는 연료 및 동력 기지의 완전한 파괴와 금속 공업 부문의 파괴는 공업 부문과 인민 경제 전체를 급속히 복구 발전시킴에 커다란 난관을 조성하였다.

또한 우리 조국이 남북으로 분리된 사실은 인민 경제 복구 사업에서 심각한 애로의 하나로 되였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의 공업 부문별 구조상 2중적 편파성이 조성되였으며 남북 공업간의 생산적 련계가 중단되였다. 우리는 공화국 북반부의 연료 동력 기지, 원료 기지 및 중공업 지대와 남조선의 가공 공업 (금속 가공 및 방직 공업) 및 농산지와의 생산적 련계에 기초한 인민 경제의 통일된 유기적 구성으로서의 공업 부문별 구조의 개편이 불가능하게 되였다.

인민 경제의 전반적 분야에 걸친 혹심한 파괴로 인한 원료 자재의 결핍과 함께 관리—기술 일'군들의 부족은 우리의 난관을 더욱 크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원쑤들과의 가혹한 계급 투쟁 속에서 공업과 전체 인민 경제를 복구 건설하여야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난관들은 인민 경제를 급속히 복구 정비하며 자립적 민족 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조선 인민의 영웅적 투쟁을 저지시킬 수 없었다.

우리는 극히 짧은 력사적 기간 내에 인민 경제를 복구 발전시키는 투쟁에서 이상과 같은 난관들을 극복하면서 거대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는바 이렇게 성과를 달성할 수 있게 한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인민의 주권이 수립되고 제반 민주 개혁이 성과적으로 수행됨으로써 우리 나라에 인민 민주주의 사회 경제 제도가 확립된 것이다.

산업 국유화가 실시되고 중요 생산 수단이 사회화됨과 함께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 기본 경제 법칙과 인민 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 법칙의 작용을 위한 객관적인 물질적 기초가 조성되였다.

사회화된 경제 분야에서의 사회주의적 경제 법칙들의 작용과 그의 객관적 요구에 대한 우리 당의 과학적 인식 및 리용에 기초한 경제 정책에 의하여 우리 나라 공업은 급속히 복구 발전되였으며 경제의 식민지적 편파성은 급속히 퇴치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인민 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 법칙의 작용은 공업의 부문별 구조 개편을 위한 계획화의 가능성을 조성하였다. 동시에 생산 수단의 사회화는 공업 부문별 구조의 개선을 계획화할 수 있는 가능성 뿐만 아니라 그의 객관적 필연성을 조성하였다.

중요 생산 수단이 사회화된 조건하에서 우리 나라에서의 공업 부문 상호간의 생산적 련계와 균형은 사회주의 기본 경제 법칙과 인민 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 법칙의 객관적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작성된 인민 경제 계획에 의하여 설정되였다.

다음으로 지적할 것은 우리 나라가 쏘련과 그리고 형제적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국제적 련계의 우월성을 리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해방 직후 쏘련이 준 거대한 물질—기술적 방조는 우리 나라 공업 발전에서 거대한 역할을 놀았다. 특히 인민 경제의 평화적 복구 건설 시기인 1949년 3월에 체결된 조쏘 량국간의 경제 문화 협조에 관한 협정은 량국간의 경제적 련계를 강화하며 우리 나라 인민 경제의 가일층의 복구 발전을 위한 결정적 요인으로 되였다.

공화국 북반부에 강력한 동력 기지와 원료 기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도 지적하여야 하겠는바 즉 공화국 북반부에는 해방 직전 수력 발전 설비 능력의 96%, 금속 공업은 90%, 광업은 76%가 각각 분포되여 있었다(1940년).

뿐만 아니라 조선 인민은,자기의 정확한 경제 정책과 조직 지도 사업으로써 인민의 투쟁을 반드시 승리에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당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 인민은 상술한 바와 같은 거대한 정치적 경제적 조건들을 충분히 리용하는 기초 우에서 공업 부문들을 급속히 복구하며 식민지적 편파성을 퇴치함으로써 나라의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를 구축하는 길에 들어 섰다.

우리 인민이 해방 후 평화적 복구 건설 시기에 있어서 두 차례에 걸친 단일 년도 계획과 2개년 인민 경제 발전 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나라 공업의 부문별 구조는 크게 변하였던 것이다.

우선 공업 총생산액 중에서 중공업과 경공업 부문의 상호 비중 관계를 보면, 중공업 부문은 1946년의 52.1%로부터 1949년에는 58.6%로 상승하였으며 경공업 부문은 동 기간에 47.9%로부터 41.4%로 저하되였다. 이 기간에 있어서의 중공업 전체의 년평균 장성 템포는 약 50%이며 경공업 전체의 그것은 42% 이상이였다. 이것은 우리 당이 맑스—레닌주의적 확대 재생산에 대한 과학적 리론에 엄격히 립각하면서 우리 나라에서 자립적

인 민족 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토대로서의 중공업의 선차적 발전에 중요한 주의를 돌린 정확한 경제 정책의 결과이다.

이와 함께 우리 당은 인민 생활을 급속히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공업의 급속한 발전에도 큰 주의를 돌리였다.

김 일성 동지는 이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어떤 사람은 지금 당장부터 중공업주의로 나가야 한다고 그릇된 주장을 한다. 물론 중공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공업 부문에 있어서 인민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으로부터 대량 제조 생산하여 인민의 생활을 안정 향상시키며 또는 이 조건 우에서 점차적으로 국가의 중공업을 발전시키며 확대하여야 한다》 (김 일성, 《조국의 통일 독립과 민주화를 위하여》 제2권 19—20 페지).

다음으로 개별적 공업 부문의 장성 템포 및 부문별 구조의 변화를 본다면 아래와 같다.

구분 \ 년도	1946	1949
기계 제작 및 금속 가공	100	510
야금 공업	100	390
광석 채굴업	100	400
건설 공업	100	800
방직 공업	100	680

이와 같이 공업이 발전한 결과 중요 공업 부문 상호간의 비중은 다음과 같이 변하였다.

구분 \ 년도	1944	1949
발전 공업	1.4	1.6
연료 공업	3.8	4.1
광석 채굴업	15.7	8.1
야금 공업	13.3	11.0
기계 제작 및 금속 가공 공업	1.6	8.1
화학 공업	10.1	9.4
방직 공업	6.0	11.3
식류품 및 기호품 공업	7.8	19.4

이렇듯 당과 정부의 옳바른 경제 정책의 결과 평화적 복구 건설 기간에 공업 부문별 구조에서의 식민지적 편파성은 현저히 퇴치되고 균형성 있는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 구축에서 거대한 성과가 달성되였다.

※ ※

조국 해방 전쟁의 개시와 함께 공업 앞에는 새로운 중대한 과업이 제기되였다. 우선 국가 공업 기업소들을 급속히 군수 생산에로 이전하여야 하였으며 생산을 계속 보장하며 전선과 후방의 수요를 부단히 충족시키기 위하여 기업소들을 안전 지대에 이설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동시에 전시하 인민 생활의 안정 향상을 위해 경공업품 및 식료품 생산을 계속 보장하여야 하였다.

전쟁과 관련하여 우리 공업은 혹심한 파괴를 당하였다. 그 결과 국영 및 협동 단체 공업 생산액은 1949년에 비해 1951년에는 46.6%로 저하되였다. 특히 그중에서도 중공업의 파괴는 혹심하였다. 같은 기간에 발전 공업은 31.3%, 연료 공업은 8.7%, 야금 공업은 8.4%, 화학 공업은 7.7%로 각각 생산이 축감되였다. 그러나 기계 공업 생산은 전전 수준을 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를 104%로 증가하였다.

당은 전시 생산과 전후 복구 건설의 성과적 보장을 위하여 우선 주요 력량을 기계 제조 공업 부문에 돌리였다. 그리하여 공장 이설 사업을 보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안전 지대에 기계 공장, 자동차 부속품 공장을 비롯한 일련의 공장을 건설하는 사업에 착수하였다.

당과 정부는 전시의 곤난한 조건하에서도 앞으로 전쟁 승리 이후 인민 경제의 복구 발전을 예견하는 전망적인 견지에서 경제 체계를 개편하였으며 그를 위한 제반 대책을 강구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전국적인 범위에 걸쳐 유색, 희유 금속 탐사 사업이 진행되였으며 수 많은 기술 일'군 양성 사업이 진행되였다.

당과 정부에 의하여 전시에 취해진 정당한

제 대책의 결과 국영 및 협동 단체 공업 총생산은 1953년도에 이르러 1951년도에 비해 139.5%로 장성되였다.

특히 과거 일제하 가장 미약하였던 기계 제조 공업은 전시인 1953년에 전전 1949년도 수준을 124.8%, 방직 공업은 동 기에 149.4%로 각각 증가하였다. 이것은 우리 당이 핵심 공업인 기계 공업의 발전과 전시하 인민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얼마나 커다란 주의를 돌리였는가 하는 데 대한 명확한 증거이다.

전쟁 기간에 우리 나라 공업의 부문별 구조 변동을 보면 다음과 같다.

А Б 그루빠별 공업 총생산액 비중(%)

구분 \ 년도	1949	1951	1953
А	58.6	41.8	37.7
Б	41.4	58.2	62.3
계	100	100	100

이것은 결국 전쟁의 혹심한 파괴로 인하여 생산 수단 생산 부문이 현저히 저하된 것을 말하여 주며 전쟁 전에 유지되였던 А 그루빠와 Б 그루빠간의 일정한 균형 관계가 파괴 당하였다는 것을 보여 준다.

다음으로 공업 생산액의 부문별 구성의 주요한 부분을 보기로 하자.

구분 \ 년도	총액	발전 공업	연료 공업	광석 채굴업	야금 공업	기계및 금속 가공업	화학 공업	건재 공업	림업및 목재 가공업	방직 공업	수산업	식료 기호품 공업
1949	100	1.6	4.0	8.1	11.0	8.1	9.4	2.5	6.4	11.3	6.2	19.4
1951	100	1.0	0.8	7.0	2.0	18.4	1.6	1.1	9.8	18.1	2.4	26.3
1953	100	0.6	0.7	9.3	1.8	15.3	3.1	1.4	7.7	25.7	2.3	18.6

이는 전쟁 기간을 통하여 우리 나라의 공업 부문별 구조에 큰 변동이 일어 났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첫째로 기계 제조 및 금속 가공업 부문이 인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49년의 8.1%로부터 1953년에 이르러 15.3%로 급격히 장성하였으며 전전에 비해 근 2 배로 비중이 증대하였다. 광산 채굴업도 그 비중이 제고되였다.

이와 같은 기계 공업의 건설 확장은 당시 전시하 군수 생산을 보장하기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전후 파괴된 인민 경제를 급속히 복구 발전시키며 사회주의 건설의 물질—기술적 기초를 확립하기 위한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정당한 방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김 일성 동지는 1957년 9월에 열린 기계 공업 부문 전국 열성자 대회에서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 나라 인민 경제 발전에 대한 우리 당의 기본 방침과 기본 로선에 의하여 기계 공업 발전을 위한 준비를 전쟁 시기부터 하여 왔다》.

둘째로 중공업 부문들인 발전 공업, 연료 공업, 야금 공업, 화학 공업 및 건재 공업들의 절대적 생산량과 공업 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이 각각 저하된 사실이다. 이것은 중공업 부문 내부 상호간의 불균형성을 초래하게 하였다. 특히 급진적으로 발전한 기계 및 금속 가공 공업과 그에 원료 소재를 제공하는 야금 공업간의 불균형, 또한 광석 채굴업과 야금 공업간, 발전 공업과 화학 공업간, 금속 공업과 연료 공업간 등에 불합리한 균형이 조성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은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에 있어서 커다란 애로로 되였다.

세째로 방직 공업이 인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2 배 반이나 급진적인 장성을 한 것이다. 즉 1949년의 11.3%로부터 1953년에는 25.7%로 제고된 것인바 이 비중은 어느 공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보다도 가장 크다. 동시에 식료 및 기호품 공업도 1953년에는 역시 공업 총생산액 중에서 둘째번으로 가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절대적인 생산량에 있어서는 37%가 감소되였다.

네째로 전시하 공업 부문 기업소들의 지리적 배치가 변경되였으며 새로운 공업 부문들이 발전한 사실이다. 따라서 일련의 새로운

공업 중심지가 형성되였으며 이는 국방상 견지에서나 지방 경제 발전의 견지에서 커다란 역할을 놀게 되였다.

❊ ❊

전후 조선 인민 앞에는 혹심하게 파괴된 인민 경제를 급속히 복구 발전시켜야 할 중요 과업이 제기되였다.

우리 당 중앙 위원회 6차 전원 회의는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에 대한 다음과 같은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전체 인민들을 이 과업 수행에로 동원하였다.

그것은 인민 경제에서 주도적 부문이며 전쟁에 의하여 혹심한 파괴를 당한 공업의 급속한 복구 발전, 그중에서도 우선 중공업의 선차적 복구 발전을 보장하는 것이였으며 중공업의 선차적 발전과 함께 전쟁에 의하여 혹심하게 령락된 인민 생활의 급속한 향상을 위해 경공업과 농촌 경리의 동시적인 급속한 복구 발전을 보장하는 것이였다.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에 대한 당의 기본 방향에서 중요한 특성은 전쟁전 상태의 단순한 복구 발전이 아니라 전쟁 시기에 나타난 결함들과 우리 나라 공업의 식민지적 편파성을 퇴치하며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기초를 축성하는 것이였다.

이상과 같은 우리 당의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에 대한 기본 방향은 결국 동시에 공업의 부문별 구조의 개편을 위한 출발점으로 되였다.

이미 상술한 바와 같이 전쟁 기간을 통하여 우리 나라의 공업 부문별 구조에는 더욱 심한 불균형이 조성되였다.

전쟁에 의하여 파괴된 인민 경제 전체 부문을 급속히 복구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중공업의 선차적 발전이 요구되였다. 우리는 공업 일반을 동시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도 우선 발전 공업, 금속 공업, 석탄 공업, 기계 공업, 화학 공업, 건재 공업 등 인민 경제의 기간적 부문이며 또한 전후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는 것과 직접적으로 련결된 그런 핵심적 중공업 부문들을 선차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전후 공업 복구 발전 사업은 무엇보다도 우선 일제가 남긴 식민지적 편파성과 전쟁으로 말미암아 조성된 불균형성을 퇴치하는 과업과 결부되여야 하였으며 나아가서 우리 나라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의 구축과 앞으로 사회주의 건설의 물질적 토대로 되는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기초를 축성하는 과업과의 통일 속에서 진행되여야 하였다. 그러나 일부 분자들은 전쟁에 의하여 혹심히 파괴된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당의 전후 인민 경제 복구 건설 방침을 반대하였다. 그들은 우리 나라에 과거 중공업의 토대가 있었으며 지하 자원이 풍부하며 형제 국가들의 원조가 있다는 것을 타산하지 못하였었다.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우리 당은 또한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적으로 급속히 발전시키는 정확한 경제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 정책과 관련된 우리 나라 인민 경제의 부문별 구조의 개선에 있어서 반드시 지적하여야 할 문제는 전후 우리 나라 경제 발전의 구체적 사정과 함께 또한 국제적 분업의 우월성을 충분히 리용하는 문제였다. 쏘련과 중화 인민 공화국을 위시한 형제적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긴밀한 기술—경제적 협조는 전후 우리 나라 공업 복구 건설의 급속한 템포를 보장하는 면에서 뿐만 아니라 또한 부문별 구조 개선에서도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되였다.

우리 당은 전후 우리 나라에서 공업의 식민지적 편파성을 퇴치하며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와 사회주의적 공업화를 위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구축함에 있어서 개별적 공업 부문들 간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발전 템포와 기본 건설의 규모를 정확히 규정하는 문제, 그리고 우리 나라 공업의 자주성과 다면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문제에 심중한 주의를 돌렸다.

그런데 우리 나라 공업 발전의 자주성과 다면성을 보장한다는 문제는 반드시 우리 나라의 특수성과 국제적 분업의 우월성을 충분히 리용할 것을 전제로 한다. 이 문제는 우리 나라 공업의 식민지적 편파성을 퇴치하고 자립적 공업의 토대를 구축함에 있어 극히 중요하다. 그것은 특히 개별적 공업 부문들의 규모, 발전 템포 및 새 공업 생산 부문의 형성과 밀접히 련관되는 문제인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나라 공업 발전의 자주성과 다면성을 정확히 인식하여야 한다. 김 일성 동지는 이에 대하여 최고 인민 회의 제6차 회의에서의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 공업의 편파성과 일면성을 퇴치하며 그의 자주성과 다면성을 보장한다 하여 우리 인민 경제에 요구되는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우리 자체의 손으로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만일 이러한 견해가 있다면 그것은 오늘의 현실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옳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현 단계에 있어서 우리가 자체의 힘으로 생산하기 어렵고 또한 생산할 수 있다 하더라도 많이 요구되지 않는 그런 수요품을 당장에 생산하기 위하여 거액의 투자와 로력을 허비할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은 전후 우리 당이 제시한 인민 경제 복구 발전의 총로선과 함께 우리 나라 공업 부문별 구조를 개조하며 균형성 있는 자주적 공업 토대를 구축함에 있어서 기본 방향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면 전후 3개년 인민 경제 계획이 성과적으로 수행된 결과 우리 나라 공업 부문별 구조에는 어떠한 변동이 일어 났는가.

ㄱ) A 그루빠와 Б 그루빠 간의 구조 변동.

구분 \ 년도	1949	1951	1952	1953	1954	1955	1956
총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A	58.6	41.8	40.6	37.7	47.1	51.7	53.9
Б	41.4	58.2	59.4	62.3	52.9	48.3	46.1

여기에는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과 동시에 경공업과 농업을 급진적으로 발전시킨 당과 정부의 정확한 정책이 명백히 표현되여 있다. 즉 전후 첫해인 1954년도에는 중공업의 혹심한 파괴로 인하여 생산 수단 생산의 비중이 소비재 생산의 비중보다 적던 것이 전후 복구 시기를 통하여 곧 우위적 지위를 차지하게 되였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A, Б 그루빠간의 생산 장성 정형에서 명백히 볼 수 있는바 A 그루빠는 1953—1956년 기간에 4 배로, Б 그루빠는 2.1 배로 각각 장성하였다.

ㄴ) 공업 부문별 구조의 변화, 공업 부문별 구성.

구분 \ 년도	1944	1949	1954	1955	1956
총 계	100	100	100	100	100
그중 연 료 공 업	3.8	4.1	1.7	1.8	1.8
광석 채굴 공업	15.7	8.1	6.8	5.8	6.1
야 금 공 업	13.3	11.0	5.0	8.1	8.6
기계 제작 및 금속 가공 공업	1.6	8.1	16.9	17.9	17.3
방 직 공 업	6.0	11.4	18.7	17.2	18.4
식료 및 기호품 공업	7.8	19.4	17.9	15.8	13.2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후 3개년 인민 경제 복구 계획이 성과적으로 수행됨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의 공업 부문별 구조에는 질적 변화가 일어났다. 그것은 1946년으로부터

1956년에 이르는 사이에 과거 일제 시대에는 전체 공업 생산에서 극히 미약한 부문으로 되였던 기계 제작 및 방직 공업 부문이 공업 총생산액에서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즉 각각 17.3%, 18.4%)을 차지하게 되였다는 사실이다.

해방 후 10여 년 동안에 걸쳐 기계 제작 및 금속 가공 공업은 21.2 배라는 실로 놀라울만한 비약적 발전을 하였다. 방직 공업도 동 기간에 21 배라는 급격한 비약을 하였다. 이와 같이 기계 제작 및 금속 가공 공업과 방직 공업이 급격히 발전하였다는 것은 우리 나라 공업 발전의 자립적 기초가 형성되고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한 기초 공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식민지적 편파성이 현저히 퇴치되고 우리 나라 공업 부문별 구조상에는 질적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제하 우리 나라 공업 부문별 구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광석 채굴업과 야금 공업 및 연료 공업의 비중이 저하되였다. 그러나 1946년에 비해 1956년에 이르러 광석 채굴업은 5.6 배, 야금 공업은 5.7 배, 연료 공업은 2.4 배로 각각 장성하였다. 특히 전시에 혹심히 파괴되였던 야금 공업은 전후 3개년 인민 경제 복구 기간에 42%라는 년 평균 장성 템포로 복구되였으며, 연료 공업은 92%라는 놀라운 속도로 장성되였다. 광석 채굴업은 이미 전시부터 발전된 결과 년 평균 장성 속도는 다른 공업 부문에 비해 비교적 낮으나 전쟁전 1949년도의 생산량에 비한다면 1956년에 이르러 141%로 장성하였다. 이와 같이 전시에 혹심하게 파괴되였던 중공업 부문들은 1956년도에 이르러 발전 공업과 연료 공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생산량에서 전전 수준을 릉가하였으며 채취 공업과 가공 공업간, 공업과 농업간 및 개별적 공업 부문들 간에 전시에 조성되였던 불균형성이 현저히 퇴치되였다.

전후 3개년 계획 기간을 통해서 현저한 발전을 본 것은 전재 공업 부문이다. 전재 공업의 급속한 발전은 전후 파괴된 인민 경제의 복구 건설과 관련된다. 1956년에 이르러 전재 공업은 1946년도에 비해 31 배라는 거대한 발전을 하였다. 전재 공업의 급속한 발전은 건설 공업의 장성을 초래하는바 이와 같은 전재 및 건설 공업의 발전은 기계 공업과 함께 인민 경제 각 분야에서 고정 폰드의 확대 재생산을 보장하며 새로운 공업 부문의 형성을 위한 물질—기술적 기초로 된다.

원료, 반 제품 생산으로부터 완제품 생산에로의 이행과 개별적 공업 부문들에서의 품종 구조가 현저하게 개선되였다. 3개년 기간에 이전에는 우리 공업에서 생산하지 못하던 직류 발전기, 특고 변압기, 신형 선반, 착암기, 뽀베지트, 공기 압축기, 가스 발생로, 축력 파종기 등 기자재들과 기타 많은 화학 공업 및 경공업 제품들이 생산되게 되였다.

또한 개별적 공업 부문에서 새로운 생산 부문이 형성되였고 경제 부문들의 기술적 장비 정도가 제고되였다.

생산력의 급진적 발전과 새로운 제품 생산에 대한 인민 경제적 요구는 일정한 공업 부문으로부터 독립적인 생산 부문의 분리를 조건지었다. 3개년 계획 기간에 지하 자원의 급속한 대량적 개발과 채취 공업의 가일층의 발전은 우리 나라에 과거 존재하지 않던 현대적 광산 기계 공장을 가지게 하였으며 농촌 경리의 협동화와 더불어 현대적 기술에 기초한 농기계 제조 공장 및 전기 기계 공장들이 창설되게 되였다.

인민 경제 각 분야에서의 복구 건설 사업은 전재 공업 부문에서 새로운 브로크 생산을 조직하게 하였다.

전후 시기에 있어서의 이러한 새로운 생산 부문의 발생 및 발전은 우리 나라 공업 부문별 구조에서 질적 변화를 일으키게 한 중요한 요인들이다.

❊ ❊

조선 로동당 제3차 대회는 제1차 5개년 계획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있어서 우리 나라는 계속 중공업의 선차적 발전을 도모하며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적으로 발전시킨다. 이 기간의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업화의 기초를 더욱 튼튼히 축성하며 공업의 식민지적 편파성을 완전히 퇴치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공업화의 기초를 더 튼튼히 축성한다는 것은 기계 공업을 중추 신경으로 하는 금속, 석탄, 전기, 화학, 건설 등 중공업을 급속한 템포로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한 경공업 부문 즉 방직 공업, 식료품 가공 공업 및 기타 생활 필수품 생산 공업을 동시적으로 발전시키게 된다.

제1차 5개년 계획의 기본 방향에 따라 우리 나라의 공업 부문별 구조는 더욱 개선될 것이며 식민지적 편파성의 잔재는 완전히 퇴치되여 경제의 자립적이며 균형적인 발전이 도모될 것이다.

공업 부문별 구조의 개선에 있어서 기계 제조 공업은 결정적 역할을 수행한다. 기계 공업은 공업 및 기타 물질적 생산 분야에서의 생산량의 절대적 증가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부문들 상호간의 균형성을 보장함에 있어서의 물질—기술적 기초로 된다. 기계 제조 공업이 없이는 다른 모든 공업이 발전할 수 없으며 따라서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도, 사회주의 공업화의 기초도 구축할 수 없다. 기계 공업은 사회주의의 경제적 기초를 닦기 위한 기초로 된다.

기계 공업은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 생산 수단을 공급한다. 따라서 기계 공업의 발전 여하는 전체 공업 부문의 발전 수준을 규정한다. 생산 수단을 생산하는 공업 부문이거나 소비재를 생산하는 부문이거나를 막론하고 모든 공업 부문이 이 부문으로부터 선진적 생산 수단을 공급 받음으로써 자기의 고정 폰드를 확장할 수 있으며 생산량을 제고시킬 수 있다.

그런데 특히 기계 공업 중에서도 그의 심장으로 되는 것은 공작 기계 및 공구 제조 공업이다. 이 부문은 생산 수단을 생산하기 위한 생산 수단을 생산한다.

그러므로 기계 공업 부문 전체의 발전 수준은 공작 기계 공업의 발전 수준 여하에 의하여 규정된다.

따라서 고정 폰드의 핵심적인 물적 구성 요소로 되는 생산 설비, 기계들을 확대 재생산함으로써 새로운 공업 부문을 건설할 수도 있으며 또는 기존 공업의 개건 확장 및 기술적 재장비를 보장하게 된다.

그러나 이미 진술한 바와 같이 과거 일제 시기에 우리에게는 한 대의 공작 기계를 생산하는 공장도 없었다. 있었다는 것은 기계 부속품, 초보적 농기계, 일부 미약한 광산 기계들을 생산하는 락후한 기술적 장비를 가진 소규모 공장들과 일부 병기 공장들 뿐이였다.

이러한 사정으로부터 출발하여 해방 이후 우리 당은 우선 파괴된 인민 경제를 급속히 복구하기 위하여서와 또한 자립적 경제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계속 현대적 기계 공업의 창설에 꾸준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그 결과 현재 우리는 새로운 기술로 장비된 대기계 공장들을 가지게 되였으며 특히 기계 공업의 심장인 공작 기계 공업과 공구 공업을 가지게 되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 전 공업 발전사를 통하여 획기적인 전환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는 지금 인민 경제 각 부문에 요구되는 각종 기계 및 생산 설비들을 생산하는 전문화된 각종 기계 공업 부문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 새로이 창설된 기계 공업은 인민 경제의 각 분야에서 요구되는 많은 생산 수단과 도구들을 생산하게 되였으며 나아가서 종전에 우리 나라에서 만들지 못하던 최신식 공작 기계까지도 능히 만들어 낼 수 있게 되였다.

상술한 바와 같이 공급자적 역할을 놀아야 할 기계 공업은 반드시 우리 나라의 현 공업

구조와 우리가 앞으로 지향하는 공업 구조의 형성에 적응하게 발전되여야 하며 자기 생산물의 구조를 그에 상응시켜야 한다. 이러함으로써만 기계 공업은 인민 경제 각 분야에서 부단한 생산 확대를 위하여 요구되는 고정 폰드——설비, 공구, 부속품 등등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다. 더욱이 전후 시기에 우리들은 전쟁에 의하여 파괴된 설비들을 개건 복구하면서 인민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으니만큼 이에 다종다양한 설비들과 부속품들이 많이 요구된다. 또한 우리 나라에서는 전쟁에 의한 인민 경제의 혹심한 파괴를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새 공업 부문들이 창설되고 있으며 소상품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 단계에 들어 서고 있는바 그에도 다양한 새로운 품종의 설비와 기계들이 많이 요구된다.

그러나 지난날 반당 종파 분자 박 창옥과 그의 추종자들은 우리 나라 경제 발전의 형편과 공업 구조의 제 특징을 고려함이 없이 기계 공업 자체의 생산물 구조를 규정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선진 국가들의 경험을 기계적으로 모방하여 대규모적 설비들의 생산에 주되는 힘을 기울이면서 인민 경제 각 분야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부속품들의 생산을 소홀히 하였던 것이다. 종파 분자들은 건설을 조립식 방법으로 혁신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건설 기계 생산의 조직도 태공하였던 것이다. 결과에 기계 공업 부문에 대한 당 정책은 정확히 관철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인민 경제 각 부문의 기술적 개건과 복구 확장에 적지 않은 지장을 주었던 것이다.

사회주의 공업화의 기초를 더욱 튼튼히 구축하여 농업국으로부터 공업—농업국으로 전환하며 인민들의 의식주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1차 5개년 계획의 성과적 수행 여부는 기계 공업에 많이 달려 있다.

제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우리들은 인민 경제 각 부문의 기술적 장비를 계속 개선 강화하며 특히 금속을 비롯한 기간 공업 부문들을 인민 경제 각 분야의 장성하는 수요에 따라 세우기 위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구축하며 고정 폰드의 부단한 확대를 위한 기본 건설을 급속히 촉진시켜야 한다. 그리고 식량 문제 해결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비료 및 농약을 생산하는 화학 공업을 발전시키며 대 중 소규모의 관개 하천 공사를 더욱 광범히 조직 전개하며 농촌의 기술적 개조를 전진시켜야 한다. 섬유 공업의 원료 기지를 공고화하기 위한 섬유 화학 공업, 면화 생산 및 식료품 가공 공업의 토대 구축에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제1차 5개년 계획의 기본 방향에 적응하게 우리 나라 기계 공업은 자기의 생산물 구조를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기계 공업은 많이 요구되는 특히 야금 공업 부문들을 급속히 복구 개건하기 위한 설비와 부속품, 탄광 및 광산 기계와 설비, 전기 기계와 기구의 생산을 현저히 증대하며 건설 기계, 운반 기계 및 각종 설비 부속품들의 생산을 확대하며 농촌의 기술적 개조에 요구되는 각종 농기계와 관개 공사에 필요한 모타, 뽐프, 변압기 등 각종 설비들의 생산을 부단히 증대하여야 하며 수산업 특히 원해, 심해 어로 및 해상 수송용 만능 선박과 해상, 강하 수송용 선박 생산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인민 생활과 관련된 라지오, 자전거, 재봉기 등의 생산도 확장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우리 나라의 기계 공업은 제1차 5개년 계획의 기본 과업과 인민 경제 각 분야의 수요에 상응하여 발전할 것이며 그러한 련관 속에서 자기의 공급자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아직 우리 나라 기계 공업은 인민 경제 각 부문의 장성하는 수요에 따라 서지 못하고 있다.

기계 공업 부문 일'군들 앞에 나서는 과업은 당 중앙 위원회 12월 전원 회의가 호소한 《증산과 절약》의 구호를 더욱 철저히 관철시켜 온갖 증산과 절약의 예비들을 찾아 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기계 공업 부문에서 생산 설비의 합리적 리용과 품종의 확대를 보장하는 문제이다. 지금 문제는 이것을 위한 구체적인 조직적 대책을 취하는데 있으며 그리함으로써 선진 국가의 기계 설비 리용 수준을 따라 가도록 하는 데 있다. 생산 설비를 더욱 효과적으로 리용한다면 우리는 현존 생산 설비로써 더욱 많은 생산 설비와 공구, 도구들을 생산하여 인민 경제 각 분야에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오늘 기계 공업 부문에서 품질을 제고시키는 문제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바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이 뷰문 일'군들은 기술 관리 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며 설계를 생산에 선행시키며 기술 발전과 생산량 증대를 위한 대중의 창발적 로력을 적극 조직 동원함으로써 제1차 5개년 계획의 성과적 완수에 모든 힘을 다 하여야 할 것이다.

조선 로동당 투쟁사 연구 자료

조선 공산당 북조선 조직 위원회 창건과 그의 력사적 의의

박 연 백

우리 당 창건의 조직적 사상적 토대는 과거 반일 민족 해방 투쟁 시기에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이룩되였다.

맑스주의 창시자들이 교시하였으며 세계 로동 운동의 력사가 보여 주고 있는 바와 같이 로동 계급은 자기의 계급적 해방을 달성하기 위한 혁명 투쟁을 성과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투쟁을 능숙하게 조직 지도할 수 있는 전투적 참모부인 혁명적 당을 가져야 한다.

과거 우리 나라에 있어서도 로씨야의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의 영향하에 맑스—레닌주의 혁명 사상이 급속히 침투되여 근로 대중의 계급적 의식이 제고되고 로동 운동이 발전함에 따라 프로레타리아 당 창건을 위한 사업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의 혁명적 당 창건 사업은 로동 운동 내에 존재한 종파 분자들의 극심한 해독적 행위로 말미암아 막대한 저해를 당하였다.

다 아는 바와 같이 1925년에 《화요파》를 중심 세력으로 하여 《상해파》, 《북풍회》 등 3파 련합으로 창건된 조선 공산당은 혁명적 프로레타리아 당으로 되지 못하였으며 그의 지도 기관 내에 들어 앉은 소부르죠아 인테리들과 각종 기회주의 분자들의 동요와 해독적인 파벌 투쟁에 의하여 당 대렬은 4분 5렬되여 1928년에 조직된 력량으로서 자기의 존재를 끝마치게 되였다.

그러나 조선에서의 로동 운동과 민족 해방 투쟁은 계속 장성되였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혁명적이고 볼쉐비크적인 지도를 보장할 수 있는 통일적 맑스—레닌주의 당 창건은 혁명 앞에 제기된 더욱 긴급한 과업으로 되였다.

이 혁명적 과업은 1930년대에 들어 서면서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하는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직접 실천에 옮겨졌다.

김 일성 동지를 비롯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맑스—레닌주의 혁명 리론을 당시 우리 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영웅적 항일 무장 투쟁과 대중 운동을 조직 전개하면서 당 창건을 준비하였는바 이에 있어서 우선 우리 나라 혁명 운동과 당 창건 도상에 가로 놓인 가장 큰 해독물인 종파주의와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비타협적 투쟁을 전개함과 함께 맑스—레닌주의를 로동자, 농민의 혁명 투쟁에 결합시키며 공산당 단체들을 조직하여 공산주의적 핵심을 육성 단련하면서 분산된 공산주의자들 간의 련계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투쟁을 통하여 우리 나라 혁명 대렬 내에서는 진정한 공산주의적 령도 핵심이 확립되였고 맑스—레닌주의 당 창건을 위한 조직적 사상적 기초가 축성되였으며 종파 분자들의 죄행으로 인하여 분렬되였던 조선 로동 계급의 대렬은 점차 통일되기 시작하였다.

반일 민족 해방 투쟁 시기에 있어서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이 이룩한 당 창건의 조직적 사상적 준비는 8.15 해방 후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우리 당이 그와 같이 급속히 창건되고 강화될 수 있는 기본 토대로 되였다.

해방 후 조선의 혁명 정세는 공산주의자들에게 유리하였다.

위대한 쏘련 군대의 결정적 역할에 의하여 일제가 괴멸되고 조선이 해방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진정한 자유를 향유하게 되였으며 민주주의 완전 자주 독립 국가를 건설하는 새로운 길에 들어 서게 되였다.

그러나 한편 남반부를 미 제국주의 침략 군대가 강점하게 됨으로 하여 우리 나라 정세는 복잡하게 되였으며 우리 혁명은 간고성과 장기성을 띠게 되였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과업은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이미 이룩된 당 창건 준비에 기초하여 맑스—레닌주의 당을 창건하며 그의 주위에 전체 인민 대중을 단결시키는 것이였다.

남반부가 미제 침략 군대에게 강점 당하게 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방 직후 혁명 정세는 공산주의자들에게 유리하였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조건들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로 해방 직후 국내의 반동 세력은 미약하였다. 우리 나라 자산 계급들도 해방 전에는 자기의 정당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으며 해방 후에 비로소 자기의 당을 조직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그들의 력량은 잘 조직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거 민족 해방 운동에서 폭로된 계급적 취약성과 동요성으로 인하여 인민 대중의 신임과 영향을 상실하였었다.

둘째로 조선 인민은 해방된 첫날부터 다시는 제국주의의 노예 생활을 원치 않았다.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 기반에서 쓰라린 고통을 체험한 조선 인민은 제국주의에 대한 증오심이 더욱 높았으며 민주주의 자주 독립 국가를 건설하려는 욕망과 열성이 비상히 컸다.

해방 직후에 전 조선 각지에서 인민들 자신이 자기들의 창의에 의하여 인민 정권 기관으로서 인민 위원회를 조직해 나선 그것은 인민 대중의 정치적 열성과 창발성이 얼마나 높았던가를 잘 말하여 주는 것이다.

세째로 인민 대중은 해방 전부터 일제의 가혹한 탄압하에서도 굴하지 않고 계속 투쟁한 견실한 애국자는 공산주의자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였다. 그러므로 절대 다수의 인민 대중은 해방 직후부터 공산주의자들을 지지해 나섰으며 공산주의자들을 따라 나갈때만이 자기의 해방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모든 조건은 해방 후 혁명 정세가 공산주의자들에게 유리하였으며 따라서 당 창건을 위한 객관적 조건도 불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방 후 이러한 환경 속에서 공산주의자들은 맑스—레닌주의 당 창건의 길에 들어 섰다.

그러나 당 창건을 위한 투쟁 행정에는 적지 않은 난관이 있었다.

그것은 첫째로 8.15 해방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 나라에는 통일적 맑스—레닌주의 당이 창건되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당 생활을 통하여 검열되고 단련된 간부들이 적었으며 당 조직 사업이나 사상 사업에 대한 리론적 및 실천적인 지식과 경험을 소유한 일'군들이 부족하였다.

둘째로는 해방 전에 혁명적 프로레타리아 당이 없었으며 일제에 의한 가혹한 탄압과 허위 선전 등으로 인하여 과거 우리 나라에서 진정한 맑스—레닌주의 사상과 리론의 전파가 미약하였다. 따라서 해방 직후 적지 않은 공산주의자들, 심지어 장기간의 혁명 투쟁에 참가한 일부 사람들까지도 조국의 정치 정세와 우리 혁명의 성격과 임무, 그리고 그의 수행 방도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좌우경적 오유들을 범하였다. 또한 각 지방에서 분산적이며 소규모적인 투쟁을 계속하여 온 사람들은 시야가 협소하고 수공업적인 투쟁에 관습되였고 지방주의적인 관념이 농후하며 당 로선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더디였다.

세째로는 조선 로동 계급은 그가 계급으로서의 출현한 력사가 짧으며 대규모적인 혁명 운동을 통하여 단련되고 훈련됨이 부족하였고 또한 일제 식민지 통치의 결과 그들의 문화 수준이 낮았으며 그들 속에서 맑스—레닌주의 선전이 미약했던 관계로 그들의 계급 의식이

그리 높지 못하였다.

이 사정은 당이 자기의 기본 군중 속에서 핵심 진지를 공고히 하는 사업에 저해를 주었으며, 간부 대렬의 급속한 장성과 대중 속에 당 정책을 침투시키는 사업을 장애하였다.

네째로 해방 후 조국이 인공적으로 량단되고 미 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에서 온갖 방해, 파괴 활동을 감행하고 있는 복잡한 조건하에서 당을 창건하게 되였다.

미제는 남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국내 공산주의 력량을 파괴 분렬시키기 위하여 이에 대한 집중적인 탄압 정책을 실시하는 한편 박 헌영, 리 승엽 도당들과 같은 자기들의 간첩을 공산당 대렬 내에 잠입시켜 파괴 행동을 감행케 하였던 것이다.

다섯째로 가장 큰 난관은 과거 종파 활동으로써 조선 로동 운동과 혁명 사업에 막대한 해독을 끼친 적지 않은 종파 분자들이 해방 후 우리 당 건설 행정에서 또다시 분렬적 책동을 감행하였다.

해방 후 종파 분자들은 과거 조선 혁명 운동에 끼친 자기들의 엄중한 죄과를 뉘우칠 대신에 오히려 파벌 투쟁에 참가한 것을 가지고 《혁명》 했다고 자랑하며 누구도 인정하지 않은 자기 파벌의 《전통》에 대하여 요란스럽게 떠들어 대며 혁명 력량을 개개의 파벌의 영향하에 분렬시키려는 죄악적 행동을 또다시 감행하였다. 이자들의 안중에는 당과 혁명의 리익보다 오직 개인의 《리익》과 종파 집단의 《리익》 밖에 없었으며 소위 《당내 헤게모니》를 고집하면서 다시금 과거의 각 파벌 투쟁을 재연시키며 통일되고 단결된 혁명적 당 건설에는 전연 관심을 돌리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조선이 해방됨과 함께 남조선에서는 과거 《엠엘파》에 속하였던 종파 분자들이 중심이 되여 하루'밤에 《장안당》을 조작하여 종파 활동을 개시하였으며 이에 대항하여 미제의 고용 간첩이며 종파 분자인 박 헌영은 《콩크룹》과 종파적으로 결탁한 《화요파》 분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소위 《조선 공산당 재건 위원회》를 조직하고 각종 모략으로써 당내 《헤게모니》를 장악하려고 날뛰였다.

그들의 대부분은 례외 없이 일제 통치 시기에 혁명 운동에서 변절하고 시정 생활에 전락하였던 자들이며 박 헌영, 리 승엽 도당들은 벌써 제국주의의 고용 간첩으로 전락된 자들이였다.

때문에 이러한 자들이 해방 후 우리 혁명에 대한 옳은 로선을 내 놓을 수도 없었으며 따라서 그들의 행동은 옳은 로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탐욕적이고 무원칙한 종파들의 파벌 투쟁이였다.

이때 《장안당》 종파 분자들은 조선 혁명을 해방 직후부터 사회주의 혁명 단계로 규정하는 좌경적 구호를 들고 나섰다. 그들은 이러한 좌경적 구호로써 과거 혁명 대렬에서 탈락하였거나 변절한 자기의 정체를 음폐하여 자기들이 마치 진정한 공산주의자들인 듯이 대중을 기만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들과 대립하여 한편 박 헌영 도당들은 친미적 로선을 추구하며 우리 나라에 미제에 예속되는 부르죠아 국가를 창건하려는 우경적 구호를 들었다. 박 헌영 도당은 이때 조선 로동 운동을 내부로부터 분렬 파괴하기 위하여 당내 《헤게모니》를 장악할 목적으로 자기들의 간첩적, 종파적 흉모를 데마고기적 리론으로써 분식한 소위 《8월 테제》를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그들은 《련합국에 의한 조선 해방》을 주장함으로써 쏘련 군대의 결정적 역할에 의하여 조선이 해방된 사실을 부인 말살하려고 시도하였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미 제국주의자들을 조선의 해방자로 내세우고 친미적인 사상을 로동 계급과 인민 대중 속에 침투시키려고 시도하였다. 또한 여기에서 그들은 과거 반일 민족 해방 투쟁 시기에 있어서 마치 《콩크룹》이 계속 혁명 투쟁을 진행한 듯이, 또 오직 자기들 만이 투쟁한 듯이 묘사하면서 우리 인민의 진정한 혁명 전통을 위조하며 자기들이 조선 혁명의 주류로 자처해 나섰다.

이와 같이 박 헌영 도당이 발표한 소위 《테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반동적이며 종파적인 견해로 충만되여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박 헌영을 우상화한 종파 분자들은 이를 유일 무이한 《정치 로선》이라고 떠벌리면서 남조선에서는 물론 북조선에까지 류포시키려고 획책하였던 것이다.

박 헌영 도당은 이러한 종파 추종 분자들의 지지에 의거하여 한편으로는 《장안당》에 대한 공격을 맹렬히 전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온갖 사기와 모략적 방법으로 소위 조선 공산당 《중앙》이라는 것을 조작하였다.

이리하여 남조선에서는 《화요—콩크룹》파와 《엠엘파》의 변종인 《장안파》간의 추악한 종파 투쟁이 치렬히 전개되였다.

해방 직후 남조선에서 이와 같이 종파 분자들이 혁명 대렬을 다시금 분렬시키는 범죄적 책동을 하고 있을 때 북조선에 잠입한 종파 분자들도 반당적 파벌 책동을 감행하였다.

박 헌영을 추종한 종파 분자들은 북조선의 당 단체들을 소위 서울 《중앙》에 직속시켜야 하며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떠벌였다.

뿐만 아니라 당 건설 초기에 적지 않은 지방 당 단체들은 일부 개인 영웅주의자들의 영향하에서 그들의 지방 할거주의적 종파 활동에 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 모든 종파 분자들과 개인 영웅주의자들은 다 같이 자기들의 종파적 목적과 지방 할거적 목적하에, 통일된 맑스—레닌주의 당 창건을 반대하여 나섰다.

이와 같이 종파 분자들의 반당적 행동은 해방 후 남조선에서 뿐만 아니라 북조선의 당 공작에서도 많은 해독적 작용을 놀았다.

종파 분자들이 당내에서 분렬 책동을 감행하는 기회를 리용하여 지방 당 단체 내에는 계급적 이색 분자들과 친일 주구, 암해 분자들이 적지 않게 잠입하여 우리 당 대렬을 내부로부터 파괴하며 당과 대중을 리탈시키려고 획책하였다.

이러한 것들은 해방 후 우리 나라에서 통일적 맑스—레닌주의 당 창건을 위한 투쟁 앞길에 가로 놓인 제 난관들이였다. 이러한 난관들을 극복하고 맑스—레닌주의 당을 창건하는 것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였다.

이러한 난관들은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진실한 공산주의자들의 정확한 당 창건 방침과 헌신적 투쟁에 의하여 극복되게 되였다.

우에서 말한 바와 같은 해방 후 우리 나라의 정세와 제 난관 속에서 진정한 혁명적 당을 창건하기 위해서는 우선 당의 정치 로선과 조직 로선을 작성하여 공산주의자들에게 침투시키며 그 기초 우에서 공산주의자들의 정치 사상적 통일을 기하며 종파 분자, 지방 할거주의자들과의 원칙적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그를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분쇄하며 지방 당 단체들의 조직적 산만성과 사상적 불통일을 극복하며 맑스—레닌주의적 당 조직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동시에 해방 후 우리 나라에 조성된 특수한 정치 정세하에서 당 중앙 기관을 반드시 쏘베트 군대가 진주하고 있는 북조선에 두어야 하였다.

이것이 해방 직후 김 일성 동지가 제시한 우리 당의 창건 방침이다.

그리하여 김 일성 동지는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작성하였고 실지 투쟁을 통하여 검열된 조선 혁명에 관한 전략 전술적 방침들을 해방 후 변화된 조선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우리 혁명 수행을 위한 정확한 당 정치 로선과 조직 로선을 제시하였다.

김 일성 동지가 제시한 정치 로선은 우리 나라가 통일적 부강한 민주주의 자주 독립 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명확한 전망을 밝혀 주었다. 또한 김 일성 동지가 제시한 당 조직 로선은 우리 당이 민주주의 중앙 집권적 원칙 우에 선 강력한 레닌적 당으로 발전할 수 있는 담보로 되였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다수의 당원들과 근로 대중은 이 로선을 지지해 나섰다.

정확한 정치 조직 로선의 기초 우에서 통일적 당을 창건하기 위하여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한 진정한 공산주의자들은 지방 당 단체들과 근로 대중 속에서 당의 옳은 정치 로선, 조직 로선을 해설 침투시키며 종파의 해독성과 당 대렬 및 로동 계급 대렬의 분렬이 혁명 전도에 있어서 가지는 위험성을 깊이 인

식시켰다. 이에 있어서도 아직 통일되지 못한 당 대렬의 통일과 로동 계급의 통일을 실현하며 당원들과 근로 대중의 계급적 정치적 각성을 제고함에 특별한 주의를 돌렸다.

이러한 투쟁의 결과에 당원들과 그리고 근로 대중의 각성은 제고되게 되였으며 종파 분렬주의 분자들은 대중 속에서 점차 폭로되며 배격을 받게되였다. 또한 많은 지방 당 단체들과 당원들은 분산된 지방 당 단체들을 하나의 통일적 중앙 집권적 당으로 결속할 것과 강력한 중앙의 통일적 지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요구해 나서게 되였다.

이리하여 통일적 당을 창건하여 당 중앙 기관을 조직할 수 있는 조건이 성숙되였다. 이러한 조건에 기초하여 1945년 10월 13일 평양에서 북조선 5도 당 책임자 및 열성자 회의가 소집되였다.

회의의 기본 과업은 우리 당—조선 공산당 북조선 조직 위원회를 창건하고 당의 정치 로선과 조직 로선을 채택하는 것이였다.

회의에서 김 일성 동지는 당 조직 문제에 관한 중요 보고를 진술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자기 보고에서 해방 후 우리 나라 혁명의 성격과 임무를 맑스—레닌주의적으로 분석하고 당시 우리 혁명 로선을 외곡하는 좌우경적 편향들을 폭로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해방 후 우리 혁명은 로동 계급의 령도하에 광범한 인민 대중이 참가하는 인민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규정하면서 혁명의 첫 계단의 임무를 완수한 다음에는 혁명의 다음 단계의 임무 수행에로 이행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였다.

또한 민주주의 민족 통일 전선의 기초 우에서 민족적 독립과 인민 대중의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민주주의 인민 정부를 수립할 것이 당면 기본 과업으로 제기된다고 지적하면서 해방 후 우리 당의 기본 정치 로선을 천명하였다.

다음 자기의 보고에서 김 일성 동지는 맑스—레닌주의 당 조직 원칙에 립각하여 우리 당의 조직 로선을 제시하였다.

과거 우리 나라 혁명 운동에 막대한 해독을 끼친 종파 분자들이 해방 후 또다시 파쟁을 재연시킴으로써 당과 혁명 력량을 분렬시키고 있으므로 이자들과의 투쟁을 강화하여 당의 조직, 사상적 통일을 보장하는 문제는 특히 중요한 과업이였다. 그러므로 김 일성 동지는 당을 로동 계급과 농민 속에 뿌리 박게 하며 당내에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 원칙을 확립하며 우리 당의 청소성과 관련하여 규률을 일층 강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와 함께 김 일성 동지는 자기의 보고에서 아직 각 지방에 산만하고 조직 체계가 서지 않은 지방 당 단체들을 시급히 결속하며 그를 통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당 중앙 기관을 창설하여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그러한 중앙 기관은 조성된 우리 나라 정세와 혁명 실천의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반드시 북반부에 두어야 할 필요성과 그 정당성을 강조하였다.

김 일성 동지가 교시한 이러한 일련의 문제들은 해방 후 조성된 우리 나라 정치 정세하에서 반드시 우리 당이 취하여야 할 가장 정당한 투쟁 로선이며 우리 당을 맑스—레닌주의 당으로 조직 발전시키기 위한 조직 로선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가한 일부 종파 분자들과 지방 할거주의자들은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제시된 기본 문제들, 거기에서도 특히 북조선에 당 중앙 기관을 창설할 데 대한 문제를 둘러 싸고 반대하여 나섰다.

그들은 자기들의 종파적이며 지방 할거적 목적에서 소위 《서울 중앙》을 지지한다는 간판을 들고 북조선에 당 중앙 기관을 창설하는 것은 당을 《분렬》시키는 것이라고 비난하였으며 이것이 회의 참가자들에 의하여 론박당하게 되자 다음에는 북조선에 창설될 당 중앙을 소위《서울 중앙》에 《직속》하고 이에 《절대 복종》시켜야 한다고 떠벌리면서 당 중앙 기관 창설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이자들의 이러한 책동은 회의에 참가한 절대 다수의 열성 당원들에 의하여 분쇄되였다.

회의는 김 일성 동지가 제시한 당의 기본 정치 로선과 조직 로선을 확인 채택하였으며 당 중앙 기관으로서 조선 공산당 북조선 조직 위원회를 창설하였다.

이리하여 우리 당은 통일적 중앙 지도 기관을 가진 민주주의 중앙 집권적 당으로 창건되였으며 당의 정치 로선과 조직 로선을 확립하게 되였다.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제시되였으며 회의에서 채택된 당의 기본 정치 로선에는 해방 후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하에서 우리 혁명의 당면한 기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과업들과 방도들이 정확하게 제기되였다.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제시되였고 전 당에 의하여 확인된 해방 직후 우리 당의 정치 로선과 조직 로선의 기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은 이때 우리 나라에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수립하는 것이 해방된 조선 인민과 우리 당 앞에 제기된 기본 임무라고 인정하면서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당면 과업들을 규정하였다. 그것은,

첫째로 광대한 민주주의 민족 통일 전선을 결성하여 애국적이며 민주주의적인 각 당, 각 파와의 통일 전선을 전개함으로써 광범한 민주주의적인 력량을 집결하여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수립에 노력할 것이며,

둘째로 민주주의적 건국 사업에 가장 큰 장애물인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 세력과 국제 파씨스트의 주구들을 청산하여 우리 나라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순조로히 할 것이며,

세째로 통일적인 전 조선 민주주의 림시 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우선 각 지방에 진정한 인민의 정권인 인민 위원회를 조직하며 모든 민주주의적 개혁을 실시하며 파괴된 인민 경제를 복구하여 민주주의 자주 독립 국가 건설의 기본 토대를 닦을 것이며,

네째로 이 모든 과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우선 당을 강화하여야 하며 당 주위에 광범한 군중을 집결하기 위하여 사회 단체들의 사업을 강화할 것이였다.

이와 함께 당은 김 일성 동지의 교시에 립각하여 미제가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조건하에서 우리 혁명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북조선에 강력한 민주 기지를 창설할 과업을 제기하였다.

이것이 해방 직후 우리 당의 기본 정치 로선이다.

이 정치 로선은 해방 후 우리 혁명이 처한 력사적 조건과 국내에 조성된 정치 정세를 맑스—레닌주의적으로 정확히 분석한 기초 우에서 확립된 것이다.

해방 후 우리 혁명의 반제 반봉건적 성격으로부터 출발하여 이 혁명 수행에 함께 참가할 수 있는 국내의 광범한 애국적 민주 력량을 우리 당 주위에 통일 단결시키며 제국주의 잔재 세력을 끝까지 소탕함으로써 제국주의 침략의 국내 정치적 지반을 없애며 진정한 인민 정권 기관을 수립하며 민주주의적 경제 과업들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 완전 자주 독립 국가 건설의 튼튼한 정치, 경제적 토대를 축성하는 것은 해방 후 우리 혁명 앞에 제기된 가장 중요한 당면 임무들이였다. 동시에 미제가 남조선에서 식민지 강점 정책을 실시함과 관련하여 우리 혁명이 장기성과 간고성을 예견하게 된 조건하에서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북반부에서 쏘련 군대가 지어준 유리한 조건을 리용하여 혁명을 더욱 전진시키여 북반부를 강력한 혁명적 민주 기지로 전변시키는 것이 필요하였다.

때문에 당의 민주 기지 창설 로선은 해방 후 우리 나라에 조성된 특수한 정세에 대처하여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전략적 방침이였다.

이러한 혁명적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강화하여야 하며 당과 대중과의 인전대인 근로 단체 사업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와 같은 당의 기본 정치 로선은 해방 후 우리 나라 현실에 맑스—레닌주의의 전략 전술을 창조적으로 적용한 가장 정확한 투쟁 강령이였다.

다음 이러한 정치 로선의 성과적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당의 기본 조직 로선에서는 우선 우리 당을 레닌적 당 조직 원칙 우에 선 진정한 맑스—레닌주의 당으로 전변시킬 일련의 기본 문제들이 제기되였다.

당시 우리 당의 실정과 관련하여 먼저 당의 조직 체계를 확립하며 조직성과 규률성을 보장하는 문제는 선차적인 중요 과업으로 제기되였다. 때문에 당의 조직 로선에는 당내에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 원칙을 급속히 확립하며 유일한 당 규률하에 당원 대중들의 당 생활을 진행할 것이며 당내에 어떠한 프락치야의 존재도 허용하지 말며 종파주의, 지방 할거주의 등 일체 비당적 현상들과의 비타협적 투쟁을 전개할 것이 강조되였다. 그와 함께 당의 력량을 장성시키기 위하여 당의 조직적 기초를 로동자, 농민 속에 깊이 뿌리 박으며 그들 속에서의 우수한 선진 분자들을 많이 받아 들여야 한다고 지적되였다.

다음 조직 로선에는 해방 후 우리 나라에 조성된 특수한 정치 정세에 대처하여 당 중앙 기관은 반드시 쏘련 군대가 진주하고 있는 북반부에 두어야 한다고 지적되였다.

이러한 당의 조직 로선의 확립은 당시 우리 당을 4분 5렬하려던 종파 분자, 지방 할거 분자들에 대해서는 결정적 타격으로 되였으며 당내에 맑스—레닌주의 조직 체계를 확립함에 있어서는 중요한 담보로 되였다.

이와 같이 당의 기본 정치 로선과 조직 로선이 확립됨으로써 당과 인민 대중은 명확한 투쟁 목표를 가지게 되였으며 당내 사상 조직적 통일성이 보장될 수 있게 되였다.

조선 공산당 북조선 조직 위원회의 창건과 당의 기본 정치 로선과 조직 로선의 확립은 우리 혁명 발전에 있어서 획기적 사변이였다.

우리 당은 창건 초기 아직 조직적으로나 사상적으로 견고하게 통일되고 단결되지 못하였다. 일부 당 기관들 내에는 종파 분자, 지방 할거주의적 분자들이 잠입하여 분렬 행동을 감행하였으며 당의 중앙 집권적 규률과 조직 체계가 튼튼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북조선 조직 위원회의 창건은 조선 로동 운동에 있어서, 우리 혁명 발전에 있어서 획기적 사변이였다.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경험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국제 및 국내의 계급적 원쑤들과의 치렬한 계급 투쟁의 환경 속에서 창건되는 로동 계급의 맑스—레닌주의적 당이 자기의 존재를 선포함과 동시에 견고한 조직적 사상적 통일을 가진 세련된 당으로 출현하기는 매우 곤난한 것이다. 그것은 당의 로선을 옹호하며 당의 통일을 강화하기 위한 꾸준한 투쟁을 통하여서만 달성된다. 따라서 우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당이 옳은 로선을 가지고 또 그 옳은 로선을 옹호 발전시킬 수 있는 확고한 맑스—레닌주의적 기초 우에서 창건되는 것이다.

우리 당은 바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구축된 당의 사상적 조직적 기초와 영광스러운 항일 혁명 투쟁 전통을 계승한 토대 우에서 창건되였다. 특히 우리 당은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을 당의 기본 지도적 핵심으로 하여 발족하였으며 정확한 정치적 조직적 로선을 가지였다.

이것이 바로 그 후의 력사가 증명해 준 바와 같이 비록 창건 초기에는 공고하지 못하였지만 우리 당이 그후 맑스—레닌주의 당으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본 담보였다.

북조선 조직 위원회 창설로서 조선 로동 계급은 자기의 력사에서 처음으로 조직된 선봉대를 가지게 되였으며 자기의 력량을 몇 배나 더 강력한 것으로 만들게 되였다.

과거 조선 로동 계급은 일본 제국주의 략탈자들과 국내 반동 세력을 반대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하였으나 바로 통일적 맑스—레닌주의 당의 지도가 없은 때문에 응당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로동 계급의 력량은 적들에게 탄압 당하고 종파 분자들에게 롱락 당하여 통일되지 못하였다. 조선 로동 계급이 자기의 조직된 선봉대—공산당 북조선 조직 위원회를 가지게 된 이 사실은 과거에 당하던 그 쓰라린 경험을 다시는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보장

으로 되였으며 로동 운동과 공산주의 운동이 종파 분자들에게 롱락 당하여 실패하던 추악한 력사에 종지부를 찍은 것을 의미하였다. 동시에 이것이 그후 우리 로동 계급의 투쟁, 조선 인민의 투쟁은 필승 불패하리라는 데 대한 담보로 되였다. 생활은 바로 그것을 증명해 주었다.

또한 북조선 조직 위원회 창건으로써 조선 혁명은 건전한 참모부를 가지게 되였다. 우리 당의 창건은 제국주의 침략자들이 조선 인민을 마음대로 롱락하던 그러한 시대의 완전한 종말을 의미하였다.

우리 당은 창건 첫날부터 자기 대렬을 공고히 하면서 인민 대중의 선두에 서서 모든 혁명 투쟁을 지도하였다. 당은 인민 대중을 지도하여 인민 정권 기관들과 근로 단체들을 조직하며 민주주의 민족 통일 전선을 결성하여 각계 각층의 민주 력량을 자기 주위에 집결시키기 위하여 투쟁하였다. 이리하면서 당은 북반부에서 쏘련 군대가 지어준 유리한 조건을 리용하여 우리 혁명 수행의 강력한 담보로 되는 혁명적 민주 기지 창설에 착수하였다.

해방 후 우리 당의 창건과 또 우리 당의 지도하에서 진행된 북반부 민주 기지의 창설은 미 제국주의 침략 정책에 대한 결정적 타격으로 되였다.

만약에 해방 후 종파 분자들이 부르짖는 대로 조선 공산당 북조선 조직 위원회를 창건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당은 그 종파쟁이들 손에 롱락되여 4분 5렬되였을 것이며 우리 당은 오늘과 같이 강대한 대중적 정당으로 될 수 없었을 것이며 우리 북조선의 위대한 민주 개혁의 승리를 보장하지 못하였을 것이며 또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의 침략을 반대하는 조국 해방 전쟁에서의 승리와 오늘의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승리를 상상할 수도 없다.

지난 12 년간의 력사는 조선 로동당의 령도하에 단결된 조선 인민은 불패하며 우리 당의 지도하에 조선 혁명은 종국적 승리를 향하여 계속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민주주의 중앙 집권적 원칙에 의하여 유일한 통일 당으로 창건된 우리 당은 초창기에 아직 당내에 존재하는 결함들 특히 종파적, 지방 할거주의적, 자유주의적 경향과 강력한 투쟁을 통하여 급속히 자기 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견고히 하였다. 주지된 바와 같이 이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은 북조선 조직 위원회 제3차 확대 집행 위원회이다.

제3차 확대 집행 위원회를 계기로 하여 우리 당은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강력한 당 중앙 지도부를 가지게 되였다. 제3차 확대 집행 위원회와 그 결정 실행을 통하여 당 각급 지도 기관들이 가일층 강화되였으며 당 조직 사업과 사상 사업에 획기적 전변이 일어 났으며 당은 로동 계급과 근로 농민들 속에 튼튼히 뿌리 박게 되였다.

그리하여 우리 당은 이때로부터 더욱 강력한 맑스—레닌주의 당으로 급속히 발전하게 되였으며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한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의 전 당의 통일 단결이 확고하게 이루어졌으며 혁명 투쟁의 모든 복잡하고 곤난한 과업들을 능숙하게 극복하면서 인민 대중을 승리에로 인도하는 강력한 당으로 발전하였다.

끈쑬따찌야

량적 변화의 질적 변화에로의 이행의 법칙

량적 변화의 질적 변화에로의 이행의 법칙은 맑스주의 유물 변증법의 기본 법칙의 하나이다. 이 법칙은 전호에 게재된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의 법칙과 밀접히 련관되여 있다.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의 법칙에서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사물은 그 자체 내에 존재하는 내재적 모순으로 말미암아 발전 과정에서 자기의 대립물로 전화한다. 그런데 《대립물의 통일 뿐만 아니라 매개의 규정성, 질, 특징, 측면, 특성도 각각 상대자로 (자기의 대립물로) 전화한다》 (레닌《철학 노트》 209페지). 대립물의 통일 법칙의 이 측면이 사물의 발전 과정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표현되는 형태의 하나가 바로 량적 변화의 질적 변화에로의 이행의 법칙이다.

이 법칙은 자연, 사회의 사물, 현상들의 발전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한 질적 상태로부터 다른 질적 상태에로의 이행이 어떠한 방도와 형태로 진행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1. 사물 현상의 발전은 량적 변화의 질적 변화에로의 이행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형이상학자들은 자연, 사회의 모든 사물, 현상들의 발전을 있는 그대로 보려하지 않는다. 그들중 어떤자들은 사물의 변화 발전 과정을 단순한 량적 증감의 과정으로만 보며 질적 변화의 과정을 보려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그들은 량적 변화 과정에 있는 사물이 반드시 질적 변화를 일으켜 다른 사물로 전화한다는 것을 부인한다.

또 다른 종류의 형이상학자들은 사물 발전의 량적 변화 과정을 보려하지 않고 질적으로 새로운 사물은 돌발적으로 발생된다고 주장한다. 이런 견해를 가진자들 중의 한 사람인 큐비에는 말하기를 지상에는 때때로 대변동이 일어나며 그 결과 지금까지 생존하던 모든 생물은 멸망하고 그 다음에는 다시 초자연력에 의하여 그전과는 전연 새로운 형태의 생물체들이 출현한다고 하였다.

형이상학자들이 주장하는 첫째번 견해가 세계에는 새로운 것, 다른 것이란 없다고 한다면 둘째번 견해는 세계에는 력사적으로 발전하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질적으로 새로운 것들은 모두 서로 고립하여 우연적으로 발생, 소멸하며 또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형이상학적 견해들은 모두다 사물 현상의 운동, 변화, 발전 과정을 밝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외곡한다.

형이상학적 견해들과 정반대로 맑스주의 변증법은 자연, 사회의 모든 사물, 현상들에 대한 과학적 지식에 기초하여 모든 사물, 현상은 부단히 변화 발전하며, 그 변화 발전은 량적 변화의 질적 변화에로의 이행에 의하여 이루어 진다고 인정한다.

우리는 우선 이것을 리해하기 위하여 먼저 질이란 무엇이며 량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고찰하여 보자.

질이란 사물의 규정성이다. 질에 의하여 사물은 그 자체에 고유한 특성을 가지게 되며 또 다른 사물들과 본질적으로 구별되게 된다. 그러므로 질이란 사물들 간의 본질적인 차이를 규정하는 것이다. 례컨대 자본주의 사회의 본질적인 징표이라면 우선 생산 수단에 대한 자본주의적 소유, 자본가에 의한 로동자의 착취, 상품 생산의 지배와 생산물에 대한 자본가적 점유 등등일 것이며, 사회주의 사회의 본질적인 징표는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 온갖 종류의 착취의 근절, 생산물에 대한 사회주의적 분배 등등일 것이다. 이러한 본질적인 징표들 간의 차이에 의하여 우리는 크게 자본주의 사회와 사회주의 사회와의 질적 차이를 구별한다.

8.15 해방전 우리 나라는 식민지 반 봉건 사회였다. 8.15 해방전 사회의 질을 규정한 본질적인 징표는 우리 나라가 일제의 식민지였다는 것과 반 봉건적 착취 관계가 농후하였다는 그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를 질적으로 뜯어 고치기 위해서는 다만 생산력을 어느 정도 발전시킨다든가, 지주의 토지 소유를 제한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해방전 사회의 질을 근본적으로 변경시키기 위해서는 제국주의적 착취와 압박을 근절하며 지주들의 착취를 청산하는 반제 반봉건적 민주주의 혁명이 요구된다.

8.15 해방 후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는 우리 당의 령도하에 반제 반봉건적 민주주의 혁명 과업이 완수되고 식민지 반 봉건 사회와는 질적으로 다른 인민 민주주의 사회로 전변되였다. 인민 민주주의 사회가 식민지 반 봉건 사회와 질적으로 다른 것은 우선 로동 계급을 선두로 하는 인민 대중이 국가의 주인으로 되였으며 제국주의와 지주의 압박과 착취가 청산되였으며 자본주의적 착취가 기본적으로 청산되였다는 것으로써 설명된다.

이와 같이 사물들 간의 구별은 그 사물을 구성하고 있는 제 속성, 특징, 특성의 유기적 통일로서의 질에 의하여 구별된다. 그러므로 사물 현상의 질을 똑바로 인식하는 것은 사물 현상을 관찰함에 있어서 극히 중요하다.

질은 사물의 운동 및 발전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본적 속성 또는 특징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다양한 기본 속성 또는 특징을 우리가 파악하였다면 그의 질을 파악한 것으로 된다. 그러므로 사물의 질적 규정성을 인식한다는 것은 우선 그의 이러저러한 기본적 속성 또는 특징을 확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례를 들면 음식물과 독물(毒物)이 근본적인 질적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음식물은 사람들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나 독물은 인체의 조직을 파괴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액체 상태의 물과 수증기가 질적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은, 물은 소금이나 사탕같은 것을 용해시키는 물리적 속성을 가지고 있으나 수증기는 그렇지 못한 까닭이다.

질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또한 상대성도 갖고 있다. 즉 세계에 존재하는 많은 사물들은 질적으로 다양한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또한 일정한 사물들의 련관 속에서는 그 차이성이 동일성으로 전화한다. 가령 소와 말은 질적으로 다르나 동물과 식물과의 관계에서 볼 때 소와 말은 동일한 동물이 가지는 제 속성을 가진 사물들로 볼 수 있다.

사물은 질적 규정성과 함께 량적 규정성도 가지고 있다. 어떠한 사물이든지 그가 존재하는 한 반드시 일정한 량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질과 량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에 없어서는 안될 두 개의 규정성이다.

량이란 수, 크기, 속도, 정도, 용적 등등으로써 특징지어 지는 사물 현상의 규정성이다. 사물의 량은 어느 것이나 모두 일정한 질에 기초한 량, 일정한 사물의 속성, 특성과 결합된 구체적인 량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량에 의하여 사물들은 또한 호상 구별된다. 례컨대 산소(O_2)와 오존(O_3)은 동일한 원자의 량적 차이에 의하여 구별되고 있으며, 또 원자가 서로 구별되는 것은 그 구성에 들어 있는 프로톤과 중성자의 량적 차이에서이다.

이와 같이 사물은 그의 질적 관계만이 아니라 량적 관계에 의해서도 제약을 받고 있으며 그리고 량적 관계는 결코 사물의 외적 관계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내적, 본질적 관계와 불가분리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량과 질은 모든 사물들에 없어서는 안될 두 개의 측면이지만 그것들은 서로 구별된다. 질은 사물 자체에 고유한 특성을 규정하는만큼 질적 차이는 사물들 간의 본질적인 차이이다. 그러나 량은 사물의 존재와 발전의 규모만 보여 주는만큼 량적 차이가 반드시 본질적인 차이로는 되지 않는다. 같은 종류의 사물은 각이한 량을 가질 수 있으나 성질은 여전히 같은 것이다. 또 량적 변화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질적 규정성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물의 량적 규정성이 그의 질——그 자체에 고유한 특성——과 관계 없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량과 질은 호상 련계가 없는 것이 결코 아니며 호상 밀접히 련관되여 있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사물의 량은 모두 일정한 질에 기초하고 있으며, 또 질은 량에 의존하고 있다. 량적 변화의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질적 규정성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으나 량적 변화가 일정한 정도에 도달되면 반드시 질적 규정성이 영향을 받으며 그리하여 질적으로 새로운 사물로 전화된다. 가령 액체 상태의 물은 상압(常壓)하에서 섭씨 0도와 100도 사이에서는 그냥 액체 상태로 존재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고체로 변화하거나 (섭씨 0도 이하)혹은 수증기로 변한다 (섭씨 100도 이상). 또 수공업적 도구를 사용하는 조건하에서는 로동 생산 능률이 일정한 한도로밖에 제고되지 못한다. 그것은 아무리해도 기계를 사용하는 조건하에서의 로동 생산 능률만큼은 제고되지 못한다.

이상과 같은 실례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첫째로 일정한 질에 기초하고 있는 량적 변화는 일정한 범위,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는 것, 이것은 사물의 질이 그의 량적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둘째로 일정한 사물의 질적 규정성은 또 일정한 량적 한계를 필요로 하며, 량적 변화는 이러한 한계하에서 질적 안정성을 보장한다. 여기에서 질과 량은 호상 의존하며 유기적인 통일을 이룬다.

질과 량의 유기적인 통일을 옳바로 리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실제 활동에서 그것을 문제의 관찰과 해결의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가 생산에서 일정한 량적 지표를 완수하여야 한다고 할 때 일정한 질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을 망각하여서는 안된다. 만일 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고 일면적으로 량적 임무만 완수하였다면 그 결과는 량적 임무를 진정으로 완수한 것으로 되지 못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만일 우리가 사업에서 적당한 량 (혹은 범위)을 장악하지 않는다면 사업의 질적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 우리가 자기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의 량적 범위만 확대한다면 그 사업을 질적으로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완수할 수도 없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사물은 량과 질의 통일로 되고 있다. 즉 량과 질의 호상 의존 관계 또는 량과 질의 호상 대립의 동일성을 가지고 있다.

일정한 사물이 자기의 질을 보존하는 량적 한계를 도(度)라고 한다.

사물은 자기의 도 내에서는 자기의 질을 보존하기 때문에 질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량적 변화가 일어난다. 량적 발전이 사물의 도를 넘어 서게 되면 그 질이 파괴되여 질적 변화가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량적 변화의 질적 변화에로의 이행이다.

질적 변화에 의하여 새로운 질이 산생된 다음에는 또다시 사물의 안정성은 보존되며 이리하여 새로운 질에 기초한 량적 변화의 과정이 다시금 진행된다. 이것이 질적 변화의 량적 변화에로의 이행이다.

량적 변화가 질적 변화에로, 또 질적 변화가 량적 변화에로, 이렇게 끊임 없이 이행되면서 사물은 무한히 다양한 변화 발전 과정을 이루며 이 과정에서 사물은 한 질적 상태로부터 다른 질적 상태에로, 낮은 데로부터 높은 데로, 단순한 것으로부터 복잡한 것에로 이행한다.

량적 변화와 질적 변화의 호상 이행 과정에서 량적 변화의 과정은 질적 변화의 과정보다 먼저 시작되며 그것은 질적 변화를 준비한다. 량적 변화 과정에서는 많은 미미한 변화가 부단히 일어 난다. 이러한 미미한 변화에서 질적 변화의 요소 또는 새로운 질의 요소가 자라난다. 그러므로 질적 변화는 아무 근거도 없이 돌연적,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점차적인 량적 변화의 과정을 통하여 합법칙적으로 일어난다.

우리는 이와 같은 변화를 자연, 사회의 사물, 현상들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우선 자연계에서 사물들의 질적 변화의 과정을 관찰하여 보면 엥겔스가 말한 바와 같이 《자연에 있어서의 모든 질적 차이는 혹은 각이한 화학적 구성에, 혹은 운동 (에네르기)의 각이한 량 또는 형태에, 혹은——거의 언제나 그렇지만——이 두 사정의 결합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물질 혹은 운동의 증가 또는 감소 없이는, 즉 해당 물체의 량적 변화 없이는 어떤 물질의 질을 변경시킬 수 없다》(《자연 변증법》 39 페지).

자연에 있어서의 량적 및 질적 변화는 언제나 사물 및 현상의 호상 작용의 결과에 일어난다. 사물의 물리적 속성의 변화는 량적 변화에 의하여 야기된 질적 변화이다. 례컨대 동은 섭씨 1,083도까지의 열에서는 액체로 용해되지 않고 고체로서 존재한다. 그러나 1,083도에 도달하면 용해되여 액체 상태로 변화한다.

화학적 변화에 있어서도 이와 동일하다. 례컨대 두 개의 질소 원자와 한 개의 산소 원자는 일산화 질소(N_2O)라고 불리우는 화합물을 이룬다. 그리고 두 개의 질소 원자와 다섯개의 산소 원자가 화합하면 무수산 질소(N_2O_5)라는 고체를 형성한다.

이와 같은 사물의 변화 과정은 유기체의 발전에서도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다. 생물학은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미미한 변화의 점차적 축적이 일정한 시기에서는 질적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종래의 유기체가 가지고 있던 특성과는 다른 특성들을 가진 유기체로 발전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사실 새로운 종의 형성은 낡은 질적 상태의 새로운 질적 상태에로의 이행인 것이다.

자연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에 있어서도 한 사회 제도로부터 다른 질적으로 새로운 사회 제도에로의 이행은 이 사회에 고유한 모순의 서서한 축적의 결과 일정한 시기에는 사회 혁명에 의하여 이 모순을 해결하고 새로운 사회에로 이행한다. 례컨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은 그 이행을 위한 전제 조건 및 요소들 즉 자본주의에 고유한 제 모순의 장성, 프로레타리아트의 장성, 프로레타리아트의 의식성 및 조직성의 장성, 대중의 혁명적 투쟁 경험의 점차적 축적 등등의 축적 과정을 통하여 실현된다.

량적 변화의 질적 변화에로의 이행은 이데올로기 분야의 인식 발전 과정에서도 진행된다. 례컨대 철학 발전에 있어서 량적 변화의 질적 변화에로의 이행의 명확한 실례는 맑스주의 철학의 발생이다. 이 철학의 발생은 철학에 있어서의 진정한 혁명으로 량적 변화의 예비적 축적, 즉 맑스주의 전시기의 철학과 과학의 발전 과정에서 이루어진 지식의 축적 없이는 있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자연, 사회의 사물, 현상들은 사소하고 미미한 량적 변화의 점차적 축적이 결국 근본적 질적 변화를 불가피적으로 일으킨다는 것을 확증하여 준다. 때문에 량적 변화의 근본적인 질적 변화에로의 이행은 보편적인 법칙이다.

질적 변화는 량적 변화 과정에서 합법칙적으로 준비되며 량적 변화의 결과이다. 이 질적 변화는 량적 변화와는 달리 근본적이고 급속한 변화이다. 이것은 사물의 점차적 량적 발전이 일정한 정도에까지 도달하면 혁명적인 또는 근본적인 변혁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질적 변화가 필요한 것은 낡은 질이 량적 변화의 활동 규모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하기 때문이다. 질이 근본적으로 변혁되지 않는다면 량적 변화는 이러한 제한에서 벗어 날 수 없다. 그러므로 사물의 량적 발전이 일정한 정도로 축적되면 질적 변화가 일어나며 다음에는 새로운 질의 기초 우에서 량적 변화가 촉진된다. 이리하여 사물은 낮은 데로부터 높

은 데로 상승 발전한다.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의 인민 민주주의 제도의 확립은 우리 나라 발전의 량적 변화의 속도를 크게 촉진시켰으며 우리 나라의 면모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이미 우리 나라 북반부는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들어 섰는 바 이러한 사회주의적 개조의 질적 변화와 그 발전은 사회의 량적 발전을 더욱더 촉진시키고 있다. 례컨대 우리 나라 농촌의 사회주의적 개조의 질적 비약은 농업 생산력의 발전을 급격히 촉진시켰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 나라 북반부가 완전히 사회주의적으로 개조된다면 그의 량적 변화의 발천 속도는 더욱 크게 촉진될 것이다.

량적 변화와 질적 변화의 두 과정은 서로 다르다. 그런데 실제 생활에 있어서 량적 변화의 총적 과정은 어떤 측면의 질적 변화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례컨대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은 그의 맹아기로부터 제국주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총괄적으로 말하면 자본주의 사회의 본질적인 질이 변하지 않았으며 사회주의 혁명이 승리하기까지는 여전히 량적 변화의 과정이다. 그러나 산업 자본주의 시기에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던 자유 경쟁은 제국주의 시기에 와서는 독점에 자리를 내 준다. 자유 경쟁이 독점에로의 이행은 자본주의 사회가 한 측면에서 이미 질적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실제 생활에 있어서 량적 변화의 총체적인 과정은 어떤 측면의 질적 변화 과정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로부터 동일한 사물이 그 발전의 각 단계에서 현저히 질적 변화를 한다는 것을 리해하지 못한다면 발천 과정에서 동일한 사물이 각 단계에서 가지는 모순의 특수성을 리해할 수 없으며 각 계단의 특수한 합법칙성을 인식할 수도, 리용할 수도 없다.

량적 변화와 질적 변화의 호상 이행의 법칙을 심오하게 리해하기 위해서는 대립물의 통일 법칙과의 련관 속에서 보아야 한다. 사물이 자기의 대립물로 전화하는 것은 사물 자체의 내적 모순의 운동에 의하여서이다. 그러므로 량적 변화 과정을 량적 증감 과정으로만 간주하여서는 안된다. 량적 축적 과정에서 사물들의 모순, 사물 내부의 각 대립물의 상호 관계는 점점 변화를 일으킨다. 이 변화는 서서히 진행되며 비근본적인 변화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즉 새로운 질을 형성하는 조건, 요소 혹은 측면이 점점 생장하며 본래의 질적 요소 및 측면들이 점차적으로 소멸하여 간다. 이리하여 새로운 질적 요소의 작용이 더욱 증대되며 나중에는 모순의 주요한 측면이 근본적 변화를 일으키고 본래의 질적 요소 및 측면들은 물러서며 새로운 질적 요소들이 주요한 지위를 차지한다. 모순의 주요한 측면의 이러한 변화가 사물의 질적 변화의 내재적 원인이다.

량적 변화의 질적 변화에로의 이행의 법칙의 본질은 대체로 이러하다.」

2, 사물 발전의 제 형태

사물의 운동, 변화, 발전은 량의 점차적 진화와 질의 근본적 변혁이 교차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다. 따라서 이 과정은 형이상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히 량적 증감만 있는 과정이 아니다.

량적 변화는 점진적인 형식, 진화적인 형식, 즉 서서한 변화 형식을 취한다. 량적 변화의 과정에서 사물은 본질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며 계속 동일한 운동 형태를 유지한다.

그러나 발천에 있어서 진화적, 량적 변화의 단계는 내재적 모순들이 점차적으로 격화되며 첨예화되여 가는 과정이다. 진화적, 량적 변화의 단계에 있어서의 모순의 이러한 격화와 첨예화로 인하여 사물의 한 질적 상태와 그 형식이 계속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이리하여 다른 질적 상태와 형식에로의 질적 변화가 일어난다.

질적 변화는 량적 변화와 반대로 돌변, 즉 비약적 형식을 취한다. 질적 변화의 행정에서 사물은 본질적으로 변화되며 량적 변화의 점진성을 중단시킨다.

량적 변화와 질적 변화, 진화와 혁명은 동일한 발전 과정의 두 개의 필연적 계기이다. 량적 변화와 진화는 질적 변화와 혁명을 준비하며 그 토대를 닦아 주며 비약을 불가피하게 만든다. 레닌은 한 사물로부터 질적으로 다른 사물에로의 이행은 《비약에 의하여, 모순에 의하여 점차성의 중단에 의하여》(《철학 노트》 265 폐지) 이루어 진다고 가르쳤다.

그러면 비약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발천의 점차성의 중단, 발전의 혁명적 형태, 한 질적 상태로부터 다른 질적 상태에로의 이행이다. 이 비약 없이는 한 사물로부터 다른 사물에로의 이행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맑스주의 유물 변증법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의 혁명적인 비약적 발전을 거부하는 사회 개량주의자, 우익 사회주의자들의 견해를 견결히 배격하며 동시에 진화 없이 혁명을 시도하며 비약을 모험하는 무정부주의적, 모험주의적 견해들을 역시 배격한다.

비약은 발전 과정의 필수적 계기이다. 그러나 그것은 모순의 해결 형식인 것만큼 사물의 내부적 모순의 정황에 따라 또는 주위 환경에 따라 그가 취하는 형식은 다종다양하다. 비약 과정이 취하는 형식은 때와 장소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 정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신 구 사물의 격렬한 충돌의 형식, 즉 새 사물이 폭력으로써 낡은 사물을 대체하는 형식도 있고, 새 사물이 평화적으로 낡은 사물을 대체하는 형식도 있으며 또 아무러한 과도도 없이 량적 축적이 일정한 정도에 이르기만 하면 즉시로 비약하는 형식도 있고, 량적 축적이 일정한 정도에 이르러서야 비약 과정이 시작되나 일정한 과도 혹은 중간 단계를 거쳐야 비약을 완성하는 형식도 있다. 이상과 같은 비약 형식들은 다만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류형에 지나지 않는다.

엥겔스는 새로운 사물이 낡은 사물의 자리를 어떻게 차지하는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만일 낡은 것이 충분한 사려(思慮)를 가지고 있어서 저항하지 않고 사멸하는 경우에는 평화적으로 차지하며, 만일 그것이 이 필연성에 반항하는 경우에는 폭력적으로 차지한다》 (《맑스, 엥겔스 저작집》 제2권 2분책 당 출판사, 1955년 판 60 폐지). 엥겔스의 이 말은 사회의 질적 변혁이 내부적 모순의 성격과 구체적인 력사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각이한 비약 형식을 취한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사물 현상의 비약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본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즉 폭발적 비약과 비폭발적, 점차적인 비약으로 나눌 수 있다.

폭발적 비약은 폭발적으로 급속하게 1회적으로 낡은 질이 소멸되고 새로운 질이 교체되는 형태를 통하여 한 사물로부터 다른 질적으로 새로운 사물로 이행하는 비약의 형태를 말한다. 이 폭발적 비약의 중요한 특징은 1회적으로 새로운 질과 낡은 질이 교체된다는 데 있다.

우리는 자연계의 물리적 현상, 화학적 현상들에서 이 폭발적 비약 형태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례컨대 두 개의 포톤이 전자와 포지트론으로 전화하는 것은 전자와 포지트론이 두 개의 포톤으로 전화하는 반대 과정과 마찬가지로 급속히 격렬하게 진행된다. 화학적 반응에 있어서는 폭발에 의한 한 질적 상태로부터 다른 질적 상태에로의 전화 과정은 보통의 폭발적 형식으로써 진행된다. 폭발에 있어서 소여의 화학적 물체의 전 질량이 급속히 단번에 자체의 화학적 성질을 변경하여 폭발과 함께 고체의 상태로부터 기체의 상태로 전화한다.

사회 생활에 있어서 폭발적 비약은 한 사회로부터 다른 사회에로의 혁명적 이행에서 볼 수 있다. 적대적 계급들로 분렬되여 있는 계급 사회에서 낡은 생산 방식의 새로운 생산 방식과의 혁명적 교체가 폭발의 방법으로 진행되는 것은 착취 계급들이 자기의 정치적 경제적 지배권을 결코 자발적으로 포기하지 않으며 따라서 피착취 계급의 폭력적 행동에 의하여서만 그들을 타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같은 점차성의 중

단에 의한 비약에도 폭발이 수반되는 것과 수반되지 않는 것이 있다. 폭발이 수반되지 않는 점차성의 중단에 의한 비약에는 자연에 있어서의 일련의 물리 화학적인 비약들, 례컨대 물이 얼음으로 전화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자연계의 사물의 질적 변화에는 과도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물이 어는 것은 온도가 섭씨 0도로 하강하였을 때에야 즉시로 실현된다. 이것은 과도적 상태가 없는 변화이다. 그 밖에 유리가 액체로부터 고체로 변하거나 고체로부터 액체로 변하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점질(粘質)의 과도적 단계를 가지고 있다.

사회적 현상에 있어서는 례컨대 봉건 사회로부터 자본주의 사회에로의 이행은 자산 계급이 봉건적 지주 계급의 수중에서 정권을 획득한 때로부터 실현되며 따라서 그 사이에는 과도기가 필요 없으나 사회주의 혁명의 수행에서는 일정한 과도기가 필요된다. 프로레타리아트에 의한 정권 장악은 다만 혁명의 시초에 불과하며 과도기를 통해서만 자본주의적 요소들을 점차적으로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할 수 있으며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질적 비약이 점차적으로 이행하는 형식에 의하여 완성된다.

그러면 점차적 이행 즉 비폭발적 점차적 비약이란 어떤 것인가? 이 비약 형태는 새로운 질의 점차적인, 장기에 걸치는 축적과 낡은 질의 요소들의 점차적인 사멸의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비약이다. 따라서 이 비약 형태는 낡은 질이 단번에 새 질과 교체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비약이다.

이러한 비약 형태에 속하는 것은 류인원의 인간에로의 전화 등 자연, 사회 현상들에서 '수다히 들 수 있다. 례컨대 유기체에서의 변화는 환경과의 적응에서 일어나는 유기체 내에서의 새 특징이 점차적으로 장성 공고화되여 한편으로는 다른 낡은 특성이 점차적으로 퇴화된다. 이러한 두 과정, 즉 새것의 장성 공고화와 낡은 것의 퇴화 소멸의 장구한 과정에서 낡은 종에 비하여 질적으로 다른 새 종이 형성된다.

사회 현상에서 이러한 점차적 비약은 언어 발전에서 볼 수 있다. 언어의 어휘 구성은 사회 생활의 제 조건의 변화, 과학 문화의 발전 등등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새로운 단어에 의한 현존 어휘 구성의 점차적 보충과 한편 낡은 불필요한 어휘의 점차적 소멸의 과정을 통하여 변화한다. 이와 같이 언어는 비폭발적 점차적으로 발전한다.

그런데 새로운 질의 축적과 낡은 질의 소멸은 사물에 따라 달리 표현된다. 언어의 변화 과정에서 새로운 질의 축적과 량적 변화는 거의 분리시킬 수 없으며, 량적 증가와 동시에 새로운 질적 요소의 장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낡은 질이 새로운 질로 이행하는 단계가 어느 때에 시작되며 어느 때에 종결되는가 하는 뚜렷한 한계를 알기 힘들다.

그러나 사회주의 사회로 이행하는 시기의 시작과 종말은 퍽 뚜렷하다. 즉 이것은 로동 계급이 정권을 장악한 때로부터 사회주의적 개조와 사회주의 건설이 완성될 때까지의 시기이다. 이 전 기간에 계급적 착취가 소멸된 사회주의 사회로 비약한다. 이 비약은 점차적으로 이행하는 형태로써 실현된다. 이러한 점차적인 이행 형태는 언어의 변화 과정과 퍽 다르다. 자본주의 사회로부터 사회주의 사회에로의 이행은 매개의 량적 증가가 모두 새로운 질적 증가의 과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전체 과도기의 총적인 비약 과정은 몇 개의 량적 변화가 질적 변화로 이르는 발전 과정을 통하여 완성된다. 례컨대 쏘련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은 일정한 준비기를 거쳐서 위대한 10월 혁명에 의하여 부르죠아 독재 정권의 전복과 프로레타리아 독재 주권의 수립, 부르죠아지의 생산 수단들을 수탈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는바 이러한 변혁은 점차성의 중단에 의한 폭발적 비약의 방식으로 진행되였고 그 후의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비약은 일반적으로 폭발의 방법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점차적인 비폭발적 방법으로 수행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의 질적 발전 과정은 허다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우리 혁명의 성격과 그를 수행하는 계급들의 력량 관계의 구체적 사정에 의하여 규정된다. 가령 쏘련에서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의 질적 비약이 낡은 부르죠아 정권을 타도하는 무장 폭동에 의하여, 즉 10월 혁명에 의하여 수행되였다면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에로의 과도의 질적 비약은 이미 로동 계급이 령도하는 인민 정권을 더욱 강화하는 방법으로써 진행되였다. 즉 1946년 2월에 창건된 북조선 림시 인민 위원회를 더욱 강화하는 방법으로써 1947년에 과도기의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인민 정권을 창설하고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의 과업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우리 농촌의 사회주의적 개조, 자본주의적 요소의 사회주의적 개조도 각종 형태의 협동 조합을 통하여 폭발 없이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모든 질적 비약은 우리 당이 사물의 량적 변화와 질적 변화의 호상 관계를 과학적으로 타산한 기초 우에서 인민 대중을 정확하게 조직 동원하였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순의 기본 성격과 비약의 성격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즉 해결하여야 할 모순이 기본적으로 적대적 모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비약 방식은 점차적 비폭발적 비약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현 시기 일련의 자본주의 나라들에서의 의회적 방법에 의한 사회주의에로의 이행 방도가 바로 그러한 례로 될 수 있다.

쏘련 공산당 20차 대회와 금번 사회주의 제 국가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회의의 선언은 전 세계적으로 사회주의 체계가 장성 강화되여 가고 있으며 반대로 자본주의 체계는 날로 약화되여 가고 있는 때, 국내적으로는 공산당과 로동 계급의 위신이 현저하게 제고되여 전체 농민과 기타 근로자들, 인테리들, 그리고 일부 부르죠아지까지도 전쟁 방화 정책과 군비 경쟁 정책을 실시하려는 반동 지배층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공산당과 로동 계급의 주위에 단결될 수 있는 또 되고 있는 조건하에서 공산당과 로동 계급이 인민의 력량을 단결 강화시키고 이 힘으로써 반동적 지배층을 격파하고 국내 전쟁에 의해서가 아니라 평화적으로 의회를 통해서 사회주의에로 이행할 수 있다고 가리켰다.

모쓰크바 회의 선언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로동 계급은 인민의 대다수에 의거하여 자본가, 지주들과의 타협 정책을 포기하지 못하는 기회주의 분자들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줌으로써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세력을 격파하고 의회에서 확고한 다수를 전취하며 의회를 부르죠아 계급에 복무하는 도구로부터 근로 인민에게 복무하는 도구로 전환시키며 의회 밖에서의 광범한 대중적 투쟁을 전개하며 반동 세력의 반항을 분쇄하며 사회주의 혁명의 평화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들을 조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선언의 사상으로부터 또 맑스—레닌주의 혁명 리론에서 볼 때 새로운 세력인 로동 계급의 령도하에 있는 인민의 조직되고 각성된 힘이 반동적인 부르죠아지의 힘보다 우세한 조건하에서 반동적 지배층은 강력한 인민에 대하여 포악한 모험적인 탄압을 가하지 못할 것이며 이미 수립된 민주주의를 말살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조건하에서 인민들은 자기의 조직된 힘으로써 지배층의 반동적 행동을 마비시키고 일정한 시기에 의회 내에서 다수를 쟁취할 수 있으며 그럼으로써 의회를 자본가의 도구로부터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는 도구로 전환시킬 수 있다. 때문에 이 혁명과 이 비약은 국내 전쟁의 수단에 의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온갖 폭력의 거부로 리해해서는 안되며 또 계급들의 충돌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 계급 사회에서는 온갖 정권이, 심지어 가장 민주주의적 형태의 정권조차 폭력으로써 이루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적 방법에 의한 사회주의에로의 이행 방도라 하여 온갖 폭력의 배제로

리해해서는 안된다.

이상과 같이 점차적인 비약 형태에도 여러 가지 각이한 특수한 정황이 있으니 우리는 사물 현상을 관찰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 분석적으로 대하여야 한다.

*　　　*

량적 변화의 질적 변화에로의 이행의 법칙은 우리의 리론적 및 실천적 사업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우선 이 법칙의 원리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에 립각하여야 한다.

첫째로 발전은 낡은 질로부터 새로운 질로, 낮은 데로부터 높은 데로 이르는 상승 과정이고 매개 단계에서의 진화는 혁명적, 근본적인 돌변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 혁명적 시야와 혁명적 정신으로 모든 문제를 고찰하며 또 모든 문제들에 신중하게 대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필요한 때에는 사물을 근본적으로 변혁시킬 줄 알아야 하며 속류 진화론을 반대하여야 한다. 속류 진화론은 비약을 인정하지 않으며 사물을 근본적으로 변혁할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부르죠아적 개량주의이다.

이와 함께 우리는 또한 우경 기회주의와 보수주의도 반대하여야 한다. 이것은 실제에 있어서 속류 진화론의 견해와 류사한 성격을 띠고 있다.

둘째로 질적 변화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량적 변화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합법칙적으로 준비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며 관찰할 때에는 반드시 이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사물을 근본적으로 개진시키는 데 용감한 혁명적 정신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량적 타산과 세밀한 준비 사업을 진행하는 정신을 가져야 한다. 일상적인 사업에서 량적 준비를 충분히 하지 않는다면 낡은 것을 혁명적으로 파괴하며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에서의 조급성, 모험 혹은 《좌경》 기회주의적 경향들을 반대하며 또는 일상적으로 구체적인 세밀한 준비 사업을 하지 않고 요행을 바라는 경향들을 반대하여야 한다.

세째로 이상 두 가지 원칙들을 결합시켜야 한다. 즉 우리의 실제 사업에서 량적 발전 사업과 질적 변혁 사업을 적당히 결합시켜야 한다. 정확한 사업 방법은 량적 변화의 질적 변화에로의 이행 법칙에 부합되는 것이다. 례하면 대중적 운동에서 일정한 정도의 량적 축적 과정을 거친 다음에는 그를 질적으로 공고히 하는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가일층 발전시킬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리치에 알맞게 사업한다면 우리는 사업에서 성과를 더욱 거둘 것이다.

김대 변증법적 및 력사적 유물론 강좌

서적 해제 및 평론

김 한주, 홍 달선 저 《우리 나라에서의 농업 협동화 운동의 발전》에 관하여

최 병 현

김 한주, 홍 달선 저 《우리 나라에서의 농업 협동화 운동의 발전》 (1957년 9월 과학원 출판사 발행)은 우리 나라에서 농업 협동화를 기본적으로 완수하는 력사적 행정을 과학적으로 총화 일반화한 저서의 하나이다.

저자들은 자기 저서에서 우리 나라 농업 협동화 운동의 발생 발전 과정과 거기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중요한 특징들을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고 그를 알기 쉽게 서술함으로써 광범한 독자 대중이 우리 당의 협동화 정책의 정당성과 그 실현 행정을 정확하게 리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저자들은 일관하여 우리 나라에서의 협동화 운동의 발생 발전은 우리 당의 정확한 시책과 지도 방조하에서만 가능하였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 주고 있다.

저서의 첫 부분에서 저자들이 정당하게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농업 협동 경리의 새로운 싹들은 우리 당이 실시한 일련의 시책들에 의해서만 발생될 수 있었다.

해방 후 공화국 북반부에서 실시된 제반 민주 개혁은 우리 나라의 경제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혁시키고 새로운 토대를 구축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 변혁은 일정한 력사적 경제적 조건에 의하여 산업과 농촌 경리 부문에서 각각 동일한 사회—경제적 내용을 가지고 수행되지 못하였으며 또 수행될 수도 없었다. 중요 산업 국유화의 결과 공업 부문에서는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가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게 되였으나 농촌 경리 부문에서는 토지 개혁을 통하여 식민지적 봉건적 토지 소유 관계가 청산되고 근로 농민들의 사적 토지 소유에 기초하는 개인농 경리—소상품 경제 형태가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게 되였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 인민 경제의 기본 부문들인 공업과 농업간에는 일정한 모순이 조성되였는바 당시의 사회—경제적 제 조건은 이 모순을 즉시 해결할 수 없게 하였다. 그것은 저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농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위한 일련의 예비적 조건들이 아직 성숙되지 못하였기 때문이였다.

이 모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일련의 과도적 대책이 요구되였는바 이것은 우리 당의 정확한 농업 정책에 의하여 해결되였다. 우리 당은 농촌 경리 부문에서 자본주의적 요소들에 대한 일련의 제한 정책을 실시하면서 국가적 지도와 통제 및 방조의 역할을 제고하며 그의 물질적 및 기술적 토대를 점차 강화함으로써 근로 농민 경리를 급속히 발전시켜 산업 부문과 옳게 련결시키는 대책을 실시하였다. 이에 있어서 농기계 임경소의 창설, 특히는 국영 농목장들의 창설은 대규모적 농업 경리의 우월성을 보여 줌으로써 개인농들로 하여금 농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위한 투쟁에로 나갈 수 있게 하는 선구적 역할을 놀게 하였다.

전쟁전 평화적 건설 시기에 있어서 당이 취한 일련의 대책들과 함께 전쟁 시기에 있어서 제기된 로력, 축력의 부족을 비롯하여 이러저러한 악조건들을 타개하고 전선에 식량과 육류 및 기타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당의 정당한 농업 정책은 협동 경리의 발생을 촉진시킴에 있어서 결정적 요인으로 되였다. 저

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전쟁 시기 우리 당의 정확한 지도하에서 급속히 장성 발전된 국영 농목장, 농기계 임경소의 확장과 아울러 농민들 속에서의 소겨리반, 품앗이반 등 공동 로력 조직 형태들의 발생 발전은 농업 협동화 운동을 촉진시키는 강력한 요인으로 되였다. 소겨리반, 품앗이반 등은 계절적 림시적 성격을 띤 공동 로력 조직의 형태였으나 여하튼 그것은 협동 경리의 새로운 싹들이였으며 그 우월성을 보여 주었다. 그리하여 공동 로력의 우월성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농민들은 년간을 두고 계속 유지 운영되는 공동 로력 조직 형태들과 농업 작업반, 부업 생산까지 공동으로 운영하는 형태들을 조직하기 시작하였다.

이상과 같은 협동 경리의 새로운 싹들은 저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의 농촌 경리 부문으로 하여금 가혹한 시련을 극복하고 전쟁 제1 년보다는 제2 년, 제2 년보다는 제3 년——이렇게 계속 그의 생산을 장성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놀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농촌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함에 있어서 거대한 역할을 담당할 공간으로 되는 것이였다》(동서, 13—14 페지).

저서의 둘째 부분에서 저자들은 우리 나라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의 필연성과 그의 제 조건을 우리 나라 경제 발전의 객관적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분석하고 있는 데 우선 협동화의 필연성을 전후 시기 우리 당에 의하여 제시된 경제 발전의 총로선에 립각하여 분석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전후 시기 우리 당에 의하여 제기된 우리 나라의 경제 발전의 총로선은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경공업과 농업을 발전시키는 것이였다. 여기에서 농업의 협동화 문제는 중공업과 경공업의 급속한 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구로 제기되게 되였다. 왜냐 하면 이것은 저자들이 정당하게 론증하고 있는 바와 같이 농업의 협동화만이 전쟁으로 인하여 령락된 인민들의 생활을 급속히 안정 향상시키며 복구 건설되는 도시, 공업에 필요한 원료와 량곡 및 육류 등을 보장할 수 있으며 급속히 발전할 공업과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촌의 자체 실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소농 경리의 취약성과 거기에다가 전쟁의 피해로 인한 령세성은 농업의 협동화 없이는 농민들을 빈궁으로부터 구출할 수 없고 부족되는 농촌의 로력 및 역축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농업의 급속한 복구 발전을 보장할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령세 농민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로농 동맹을 가일층 강화할 정치, 경제적 과업과 혁명적 민주 기지 강화를 위한 요구에 의하여 농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는 필수적인 문제로 제기되였다.

저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화국 북반부에서 농업의 협동화는 경제적으로 인민 경제 발전 법칙의 필연적 요구로 되는 동시에 정치적으로 공화국 북반부의 혁명적 민주 기지를 강화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시키며 나라의 사회주의적 발전을 보장함에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필수적 과업》 (동서 27 페지)이였다.

저자들은 농업 협동화의 필연성과 함께 그를 위한 일련의 예비적 조건들의 성숙을 정확하게 해명하고 있다. 즉 전쟁 시기를 통하여 건설 확장된 농기계 임경소와 국영 농목장, 농민들에 의한 협동 로력의 직접적 체험과 그의 우월성, 농민들의 정치 사상적 의식의 제고와 함께 또한 전후 시기에 급속하게 복구 재건되는 우리의 공업, 위대한 쏘련을 비롯한 형제적 국가들의 물질—기술적 원조들은 농업 협동화 운동의 발전을 위한 강력한 공간들이였다.

저자들은 이와 같이 우리 나라 농업 협동화 운동의 필연성과 합법칙성 및 그 조건을 상세히 분석함으로써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을 론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저자들은 로동 계급의 정권 쟁취 후 가장 어려운 사업인 농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위한 력사적 과업 실천을 우리 당이 어떻게 지도하여 왔으며 또 우리 나라의 구체적 력사적 조건에 농업 협동화에 관한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칙과 다른 나라의 경험을 어떻게 창조적으로 적용하였는 가를 명백히 보여 주고 있다.

우리 당은 협동화 운동에서의 자원성 원칙과 점차성의 원칙을 확고히 고수하면서 우선 사유 토지와 사유 생산 도구를 보유하는 원칙하에서 각 군에 경험적으로 2—3개 정도로 협동 조합을 조직하여 이를 점차적으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일정한 경험을 축적함에 따라 대대적으로 발전시킬 데 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저자들은 경험적 단계에 있어서는 농민들의 경제적 처지와 그들의 의식적 각성 정도에 따라 각이한 형태의 협동 조합 창설이 필연적이였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에 따라 토지와 역축 및 기타 생산 수단들의 통합, 수입의 분배 등도 각이한 형태로 진행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으며 동시에 협동 조합을 저급한 형태로부터 고급한 형태로, 소규모로부터 대규모로 점차 발전시키는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을 론증하고 있다.

저자들은 우수한 성과를 거둔 몇 개 조합들의 경험들을 분석 총화하면서 경험적 단계에 있어서 농업 협동 조합들이 경제적 토대가 미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커다란 생활력과 우월성을 보여 주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서술하고, 이것은 결국 우리 나라에서 농업의 협동화를 대중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전제를 조성하여 주었다는 것을 정당하게 지적하고 있다. 그리하여 저자들은 우리 나라 농업 협동화 운동이 경험적 단계로부터 대중적 발전 단계로 이행함에 있어서 1954년 당 중앙 위원회 11월 전원 회의가 가지는 의의를 정당하게 강조하고 있다.

저자들은 협동 조합 운동의 대중적 발전 단계를 토지 개혁 후 농촌의 중심 인물로 되고 있었던 중농층의 협동 조합에로의 대중적 가입으로서 옳게 특징짓고 있다. 1954년 가을에 들어 서면서부터 중농들 속에서 협동 조합 가입 및 조직에 대한 욕망이 대대적으로 앙양되기 시작하였는바 우리 당은 당시에 조성되고 있었던 농촌의 이러한 구체적인 조건들을 정확히 타산한 기초 우에서 이러저러한 좌우경적 편향들을 제때에 시정 극복하면서 확고 부동하게 협동화의 대중적 발전 정책을 관철시키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우리 당은 농민들의 자원성 원칙에 립각하여 매개 지방의 특수한 구체적 조건들을 정확히 타산하는 기초에서 협동화의 속도, 형태 및 그의 규모를 규정하였다.

저자들은 경험적 발전 단계에서 이미 협동 경리의 우월성이 실증되였다는 사실과 대중적 발전 단계에서의 경험은 매개 조합들의 사업 성과가 자연—경제적 조건보다 그들의 내부—조직적 공고화의 정도와 공동 경리에 대한 관리 운영 사업의 수준 여하에 달려 있음을 보여 주었다고 지적하였으며 협동 조합들의 년말 결산 총화에서 나타난 바에 의하면 단위당 논밭 수확고에 있어서 개인농 경리와 동등하거나 그보다 떨어지는 협동 조합들도 없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협동화 운동의 초기에 있어서 경험의 부족으로 하여 있을 수도 있은 경향들인 것이다. 저자들은 이러한 경향들이 나올 수 있었던 원인을 조합의 내부—조직적 공고화 정도와 관리 운영의 미약성 등으로써 구명하고 있다.

물론 협동 경리를 개인농 경리와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는 농민들의 협동 조합 가입 전후를 대비함으로써 그의 우월성을 보여 주는 것이 보다 과학적 비교 방법으로 될 것이다. 그리고 일부 협동 조합들이 개인농 경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락후했다는 원인도 초기에 조직된 조합들이 일반적으로 아직 협동 조합에 망라되지 않은 개인농들에 비해 자연—경제적 조건들이 미약하였다는 사정과, 특히 중요하게는 반당 종파 분자들에 의하여 조성된 일부 협동 조합 조직 운영에 있어서 자원성 원칙, 민주주의적 원칙의 란폭한 파괴와 협동 조합 조직의 당적 방침의 위반 및 기타 이러저러한 분야에서의 해독적 책동이 작용했다는 사실도 그런 원인의 한 측면으로 간과되여서는 안될 것이다.

다음으로 저자들은 우리 나라 농업 협동화 운동의 중요한 특징들을 분석하고 있다.

저자들은 우리 나라 농업 협동화 운동의 중요한 특징으로서 우선 그의 급속한 발전 템포를 들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 협동화 운동은 일련의 특수한 조건들과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비교적 늦게 시작되였으나 그 후의 발전 속도는 비상히 빨랐다. 저자들은 이에 대한 원인을 다음과 같이 구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발전 속도는 우리 나라 공업의 급속한 발전 속도와 그 가일층의 발전의 요구에 완전히 부합되는 합법칙적 현상으로서 이는 생산력의 성격에의 생산 관계의 필수적 적응의 법칙이 우리 나라의 구체적 제 조건에 적응하게 관철되는 현실적 과정인 것이다》(동서 77 페지).

협동화 운동의 중요한 특징으로 되는 그의 급속한 발전 속도와 관련하여 저자들은 또한 각 지역별에 따르는 그 속도의 일정한 차이들도 분석하고 있다. 협동화 운동 속도에 대한 지역별 분석에서 저자들은 평야 지대는 산간 지대보다 빠르며 농촌 지역은 도시 주변 지대보다 빠르며 38 이북은 38 이남 신 해방 지구보다 빠르다는 것 등 아주 흥미 있는 문제들을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저자들이 이 속도상의 특징을 주로 시간적 개념으로만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술적 개조에 비하여 경리 형태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빨리 진행되였다는 사회 경제적 측면으로 분석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리라고 생각한다.

저자들은 우리 나라 협동화 운동의 다른 중요한 특징으로서 저급 형태에 비한 고급 형태의 협동 조합의 압도적 우세를 들고 있다. 그 조건과 원인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해방 후 공화국 북반부에서 진행된 일련의 혁명적 변혁, 인민 정권의 수립과 토지 개혁을 비롯한 제반 민주 개혁의 철저한 수행 과정에서 농민들의 정치 사상 수준이 현저히 제고되였다는 조건과 특히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 농민들 자신이 자원적으로 농업 협동 조합을 조직하리만큼 이에 대한 예비적 조건이 성숙되며 있였다는 그것으로써 설명된다》(동서 80—81 페지).

그러나 저자들이 저급 형태로 보고 있는 제 2 형태도 다른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의 그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훨씬 높은 사회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농업 협동화 운동의 형태상 특징에 있어서는 그것이 일반적으로 아주 높은 사회주의적 성격을 띠고 진행된다는 것으로써 규정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보아진다. 이러한 특징화만이 자체 내에 높은 형태의 협동 조합이 압도적 우세를 차지한다는 것과 저급 형태 자체도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저자들은 우리 나라 협동화의 세번째 특징으로 협동 조합의 농호수에 대한 규모에 비하여 경지 면적상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들고 있다. 저자들은 이것을 쏘련과 인민 민주주의 제 국가의 그것과 대비하여 설명하면서 아주 흥미 있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즉 저서의 88 페지에서 다음과 같은 통계적 실례를 들고 있다;

1) 1928—1932년간에 쏘련의 꼴호즈당 평균 가입 농호수는 13호로부터 71호로 장성되였고 1955년 현재로는 299호에 달하고 있다.

2)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에서의 농업 협동 조합들의 평균적 규모는 1955년 현재 파란 약 20호, 체코슬로바키야 약 40호 (제1 형태 제외), 루마니야 약 60호, 알바니야 약 40호, 중국 26호이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협동 조합당 평균 가입 농호수를 보면 1956년 12월 현재 30호 미만의 농호수를 가진 협동 조합은 23%, 31—50호수는 33%, 51—100호수는 35% 기타는 100, 200호수를 초과한다.

이상의 실례는 결국 우리 나라 농업 협동 조합들도 그의 농호수를 기준으로 한 규모에 있어서는 이미 쏘련을 제외한 인민 민주주의 제 국가들의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반면에 경지 면적을 기준으로 한 경영 규모에 있어서는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 보다

매우 적은 것이 특징으로 되고 있다. 저자들이 인용하고 있는 실례를 보건대 협동 조합 농호당 경지 면적이 현재 쏘련 및 구라파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에서는 5—10 정보에 달하고 있는데 비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평균 1.6 정보에 불과하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토지 면적의 제한성에서 오는 조건도 있지만 총체적으로 보아 아직 우리 나라 농업의 기술적 수준이 낮은 데 기인한다고 쓰고 있다.

저자들은 이로부터 협동 조합들의 경영 규모의 확장을 위한 방도 문제를 필연적인 귀결로 보면서 이것이 지난 기간 우리 나라 농촌 경리의 기술적 개조가 뒤떨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들의 평균적 조직 규모를 급속히 장성시킨 요인의 한 측면으로 정당하게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계속 이러한 경영상 규모의 확장을 위하여 관개 시설, 황무지 개척 등 방도를 통한 경작지의 획득과 토지를 비교적 많이 소유한 농가들을 협동 조합에 신속히 인입하는 방도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경영상 규모의 령세성을 낳은 원인의 중요한 측면으로 구명한 농업의 기술적 락후성에 대하여 이를 급속히 퇴치하고 현대적인 기계화에로 진출해야 한다는 것을 필연적인 결론으로 도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이 하루 이틀에 이루어질 수 없으니만치 협동 조합 농호수에 의한 조직 규모의 일정한 크기를 적절하게 40—100 호 정도로 제기한 1957년 1월 평남도 농업 협동 조합 관리 일'군 대회에서의 김 일성 동지의 연설을 상기시키면서 현실적으로 3 년 여의 협동화 운동은 협동 조합들이 그러한 원칙에서 그리 크지도 적지도 않은 범위로 50—60호 정도로 발전해 왔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저자들은 다음 개소에서 규모는 생산 관계의 한 측면을 이루는, 따라서 사람들의 의지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객관적 합법칙성의 지배와 작용을 받는다고 정당하게 지적하면서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생산력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의 일하는 사람들의 기술—기능 및 관리 능력, 그리고 또한 매개 조합들이 처하고 있는 자연적—지리적 및 기술 경제적 제 조건이라고 쓰고 있다.

여기서 저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생산 관계의 한 측면을 이루는 조합의 규모가 우선 일하는 사람들의 기술—기능 및 관리 능력에 의하여 규청된다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조합의 규모는 무엇보다 생산의 기술 경제적 조건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규정적 선후차성이 명백히 지적되였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이것으로써 현재 우리 나라에서 협동 경리의 기술 경제적 토대의 미약성 때문에 그의 규모가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기 곤난하다는 특성이 설명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기술 경제적 토대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조건과 관련하여 그만큼 개별적인 사람들의 기술, 기능 특히는 지도부의 관리 능력이 일정한 정도로 중요하게 협동 조합의 규모를 결정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에 우리 나라 협동화 운동의 규모상 특징의 중요한 측면의 하나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에서 조합의 규모를 확장하며 그 우월성을 더욱 잘 발양시키기 위하여서는 관리 일'군들의 관리 지도 능력을 제고시키는 것이 극히 중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

네번째 특징은 협동화가 높은 기술적 토대 우에 서지 못한채 진행된다는 사실이다.

협동화에 대한 맑스—레닌주의 정치 경제학의 일반적 원칙은 농업에 현대적 기술을 보장할 수 있는 공업적 토대를 전제로 한다. 이에 대하여 저자들이 정당하게 해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대규모의 사회주의적 협동 경리는 소규모의 분산된 개인농 경리에 적응했던 소농기구들과 락후한 기술에 토대를 둔채로는 운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력사적 경험은 높은 기술적 토대 없이 락후한 농기구에 의거하더라도 협동 경리가 개인 경리에 비하여 퍽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저서에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우리 나라에서 당장은 비록 농업에 뜨락또르, 콤바인을 비롯한 농기계와 기타 시설품 등등을 보장할 수

있는 발전된 공업적 토대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쏘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진영의 대가정 속에서 국제적 원조와 분업에 기초하여 우선 협동화를 실시하면서 이런 조건들을 자국 내에서 점차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바로 우리 나라에서 높은 기술적 토대 없이도 협동화를 보장할 수 있는 특성의 주요 요인의 하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저서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전반적 협동화를 위한 제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잘 서술하고 있다. 현재까지 협동 조합에 망라되지 않은 농민들을 그들의 경제적 처지와 의식 수준 여하에 의하여 계층별로 구분하고 또한 그들의 지대별 분포 상태를 옳게 고려함으로써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 내에 농업의 전반적 집단화를 완수할 데 대한 구체적 방도를 분석하고 있다.

이상 이 저서에 대한 간단한 서평을 마치면서 지적할 것은 비록 내용의 국부적 측면에서 약간의 결함들을 발로시키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이 저서의 보다 큰 장점을 손상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이 저서는 우리 나라 농업 협동화 운동의 발전 과정에 대하여 거의 전반적인 면에 걸쳐 총괄적으로 체계화하였으며 리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허다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리론적 분석을 가함으로써 이 부문의 계통적 연구와 실천적 사업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근 로 자》 제 1 호 (루계 제146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근 로 자 사 인 쇄 1957년 12월 27일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발 행 1958년 1월 1일

ㄱ—40 760 값 45 원